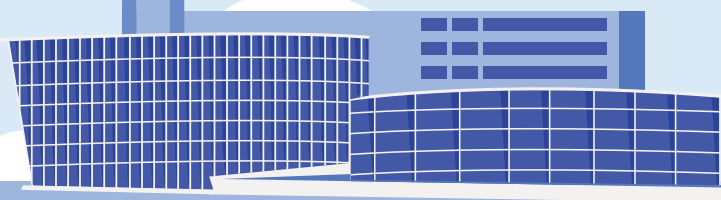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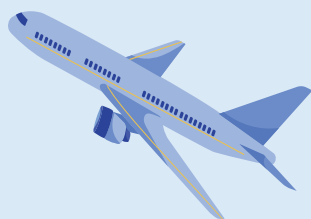




제10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제 10회
항공문학상 수상 작품집



제 10회 항공문학상 수상 작품집

제10회 항공문학상은 항공문화 저변 확대 및 대국민 홍보 제고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시(동시 포함), 소설, 수필로 구성된 3개의 공모부분을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로 나누어 온라인으로 총 818편의 작품을 접수하였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문학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1차(예심), 2차(본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54편의 수상작품을 선정하여 발표 하였습니다.

올해 총 상금 규모는 1,735만원을 포함하여 국내·외 왕복항공권 등이 부상으로 지급되며, 일반부 대상, 일반부 최우수상 입상자에게는 한국문인협회 입회 자격이 특전사항으로 부여됩니다.

< 제 10회 항공문학상 접수 결과 >

(단위:편수)

구분	시	소설	수필	합계
일반부	307	82	164	553
중고등부	132	19	25	176
초등부	77	2	10	89
계	516	103	199	818

주최/주관 한국항공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 한국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 제주항공 / 진에어 / 티웨이항공 / 한국문인협회

CONTENTS

소개	최종수상자 명단	4
	심사총평	7
	공고부문별 심사평	
	•소설 부분	9
	•수필 부분	11
	•시 부분	13

★ 일반부

대상	소설	허공(노희진)	19
최우수상	수필	조종사의 딸(한미경)	35
	시	태교여행(김서진)	41
우수상	시	종이비행기(권수진)	44
	소설	종이 인간 묵시록(박세날)	45
	소설	미조(봉만성)	60
	시	그녀의 혼수품 1호를 아시나요(연지윤)	78
	수필	휠체어와 비행기의 공통점(유동현)	79
	수필	하늘을 지탱하는 책임감(윤정래)	82
	수필	베트남에서 스무 살의 나를 만나다(최옥숙)	86
	시	구름 위의 평온(최항석)	92

★ 중·고등부

최우수상	시	한여름 비행(최지우)	98
우수상	시	진로불시착(서혜승)	102
	소설	하늘 위 이방인(손민성)	104
	수필	비행의 목적지(손유정)	110
	소설	Flight to my spring(신에서)	113
	수필	인간의 동경(이유림)	116
	시	하늘에서 만나다(이윤희)	120
	수필	시간의 문을 넘어 하늘에서 펼친 항일활동(이효재)	122
	소설	비행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한다.(조우령)	125

★ 초등부

최우수상	수필	아름다운 여행을 가고 싶어요(진시은)	138
우수상	수필	마법의 양탄자 비행기(곽희원)	142
	시	눈빛(김나은)	144
	소설	내 최애 아이돌, 돌핀(김서경)	145
	시	드디어 간다(박윤호)	148
	소설	우리의 우정은 ing(박하람)	149
	시	인생의 공항(윤재민)	170
	시	비행기의 손님들(이준상)	171
	수필	망고향이 가득한 태국여행(이태평)	172
장려상	시	행복한 꿈을 꾸는 곳(고예진)	176
	수필	더 이상 비행기 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김민선)	177
	시	지구 한 바퀴(김요한)	178
	시	여유(김운성)	179
	시	착륙(김태희)	180
	시	별이 빛나는 밤에(나도연)	181
	시	오늘도 내일도(민동원)	182
	수필	나의 첫 해외여행(박소울)	183
	시	하늘과 친구 되기(박재이)	187
	시	신기하고 놀라운 일(박준우)	188
	시	비행기에서 본 세상(성지완)	189
	시	인천국제공항(송현우)	190
	시	할머니의 첫 비행(오승완)	191
	시	비행기가 좋은 이유(이서진)	192
	시	바쁘다 바빠(이서후)	193
	시	구름조각가(이은호)	194
	시	비행기는 인생(이지환)	195
	시	비행기배 타고 가요(이찬희)	196
	시	비행기가 늦은 이유(이하진)	197
	시	꿈 비행기(임수혁)	198
	수필	2050년 슬기로운 UAM 생활(임채원)	199
	시	새(정서울)	201
	시	비행기 안에서 내 마음은(차정우)	202
	시	신나는 비행기(최우진)	203
	시	비행기에서 보내는 러브레터(현진주)	204

제10회 항공문학상 심사총평

문학은 상을 타는 일보다 읽고 쓰는 일이 더 소중하다

2024년 제10회 항공문학상 공모에는 시, 소설, 수필 등 분야에 모두 814편의 작품이 응모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시 34편, 소설 18편, 수필 19편 모두 71편입니다. 이 작품들을 각 부문별 본심 심사위원들이 꼼꼼히 읽고 작품별로 점수를 결정한 뒤 지난 10월 17일 김포 공항에 있는 한국항공협회 회의실에 모여 논의 끝에 최종 등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날 본심에는 (사)한국문인협회의 원로문인 3명과 한국항공협회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모두 5명이 모여 항공문학상 운영 취지에 대한 이해도, 적절성 및 독창성, 구성 및 표현, 문법 등 종합적으로 점검 심사하여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항공문학상은 대상 및 최우수 수상자는 모두 (사)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입회 자격이 부여되기에 기성 문인을 제외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합니다. 따라서 모든 원고에는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이 없는 채로 원고를 받아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심사합니다.

이번 제10회 항공문학상 공모 작품은 시, 소설, 수필 부문 전반에 걸쳐 그 수준이 예년에 비해 매우 높았다는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항공문학상 공모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의미이며, 한편으로는 항공을 이용한 여행문화가 우리 사회 문화의 한 축으로 정착해 가는 모습을 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중고등 및 초등학생들이 시, 소설, 수필 등 문학의 전문성을 살리는 작품을 쓰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후 운영진에서 이 문제를 살펴 청소년들이 발전적으로 문학 창작 능력을 겨룰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하며, 아울러 정성을 다해 작품을 써서 제10회 항공문학상에 응모한 모든 분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문학은 상을 타는 일보다 읽고 쓰는 일이 더 소중합니다. 열심히 정진하면 모두 훌륭한 문학인이 될 소질을 갖추었다는 점도 밝혀둡니다.

심사위원장 김호운(소설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제10회 항공문학상 | 소설 부문 | 심사총평

2024년 제10회 항공문학상 공모에서 소설부문에는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품이 일반 8편, 중 고등부 8편, 초등부 2편 등 모두 18편이다. 특히 중고등 및 초등학생들이 소설을 써서 공모전에 응모 하는 건 매우 드문 일로, 그럼에도 소설에 가깝게 작품을 쓴 학생들이 있어서 참 대견하고 반가웠다. 더구나 한강 소설가가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어 우리 한국문학이 새로운 모습으로 크게 발전하리 라는 희망이 보인다.

시, 수필, 소설 부문 최우수상 가운데 한 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각 부문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교차로 숙독한 결과 소설 부문 응모작 「허공」이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자연히 대상이 나온 소설 부문에서는 최우수 작이 없으며, 다음 등위인 우수상에는 「종이 인간 목시록」과 「미조」가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작인 「허공」은 여행을 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순간부터 비행 과정 등을 매우 사실적으로 잘 묘사했으며, 흡인력 있는 문장과 서사 구성 또한 탁월하다. 이러한 과정을 배경으로 서사를 전개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밀도 있게 그렸다. 특히 이러한 이야기를 '허공'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설정하며 여행과 인간의 내면 사이의 인과관계를 매끄럽게 처리하여 소설미학을 완성했다.

우수상에 선정된 「종이 인간 목시록」은 종이를 소재로 서사를 이은 구성이 돋보였다. 간결한 문장으로 흡입력을 이끈 점 또한 서사 전체의 균형을 이루는 데 좋은 역할을 했다. 「미조」는 소재와 구성이 매우 특이한 작품이라 관심 있게 읽었으나, 특이한 소재를 소설미학으로 완성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몇 군데 흠결로 특이한 소재를 작품으로 잘 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수장자 모두에게 축하 말씀을 전하며, 그 외 응모자 모두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심사위원장 김호운(소설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제10회 항공문학상 | 시 부분 | 심사총평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수백여 명의 투고작 중 예심을 거쳐 올라 온 작품들 중 최종심.

일반부 「태교 여행」

반짝이는 언어와 착상이 기발하다.

임신한 몸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은 임신부의 시. 세상이라는 기착지에 내 몸의 태아를 내려놓는다.

중고등부 「한여름의 비행」

기성 못지않은 시어에 감탄사를 보낸다.

앞맥마다 흐르는 햇빛이 공항을 가득 채우고//덜 익은 과일을 깨물었을 때의 시큼한 맛//날개 끝에
선 구름이 하얀 실처럼...

훔내낼 수 없는 기발한 시어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수작이다.

초등부 「인생의 공항」

마치 동시를 읽는 느낌이다. 출국하는 순서를 나열, 기발한 아이디어로 웃음과 기쁨을 함께 주는 초
등학생의 시다.

추억 만들기//행복한 얼굴 따뜻한 마음//삼촌처럼 기장이 되는 꿈//공항은 인생 터미널/그곳엔 기쁨,
행복, 슬픔이.../나는 그곳에 간다

심사위원 시인 박영하(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장)



제10회 항공문학상 | 수필 부분 | 심사총평

본심에 오른 19편은 문장력과 내용전개, 마무리 등이 고른 수준의 작품들이었습니다.

항공이라는 특수한 주제지만 풀어나가는 솜씨들이 세련되었습니다. 자유스러운 세계여행과 문화교류가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다양한 스토리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항공문학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감동 주는 작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2024년도 일반부 최우수상인 「조종사의 딸」은 조종사 아버지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봐온 딸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섬세하면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중고등부 「인간의 동경」은 여행 에세이 작가를 꿈꾸는 항공고 학생의 포부를 담았습니다.

초등부 「아름다운 여행을 가고 싶어요」는 영화 속 주인공이 겨울 철새 기러기를 부화시켜 아버지가 만든 비행기로 여행하는 내용입니다. 용기를 주는 주인공 에이미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대상 수상자를 비롯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심사위원 수필가 권남희(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



일반부

대상	소설	허공 (노희진)
최우수상	수필	조종사의 딸 (한미경)
우수상	시	태교여행 (김서진)
	시	종이비행기 (권수진)
	소설	종이 인간 목시록 (박새날)
	소설	미조 (봉민성)
	시	그녀의 혼수품 1호를 아시나요 (연지윤)
	수필	휠체어와 비행기의 공통점 (유동현)
	수필	하늘을 지탱하는 책임감 (윤정래)
	수필	베트남에서 스무 살의 나를 만나다 (최옥숙)
	시	구름 위의 평온 (최항석)



대상
일반부

허공
소설 / 노희진





허공

일반부 대상
소설 / 노희진

이른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짐을 준비해서 그런지 온몸에 힘이 빠졌다. 컨디션을 걱정해서 공항버스를 타고 왔지만 영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전 7시가 좀 지난 시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평일 오전이라 덜 북적일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도 공항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종종 은주는 인천공항이야말로 24/7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다. 언제나 해일 같은 인파를 보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면 된다.

이미 모바일 체크인을 한 상태라 바로 위탁 수화물을 부치기 위해 카운터로 향했다. 종종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대 첫 해외여행을 갈 때만 해도 모든 승객은 캐리어를 끌고 카운터 앞에 줄을 섰다. 앞 사람의 수속이 얼른 끝나길 바라면서 자라처럼 목을 빼고 두리번거렸다. 기다리는 순간부터가 여행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승객 대부분은 출국 전날 모바일 체크인을 한다. 위탁수화물마저 없다면 바로 출국심사장으로 향하고, 은주처럼 캐리어를 보내야 하더라도 직접 수화물을 보내야 했다. 그래도 예전엔 카운터에 직원이 앉아 있기라도 했는데, 이젠 이마저도 무인이다. 마치 마트 무인 계산대처럼 승객들이 기계 앞에 서서 익숙하게 태블릿을 조작하고 짐 무게를 잰다.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없는지 관찰하는 직원 두세 명만 카운터를 어슬렁거렸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일상에서 마주칠 때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 자리에 있던 직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됐을까? 키오스크 형태의 태블릿은 사용료가 얼마일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바꾸라는 의사결정은 누가 내렸을까? 앞으로 어디까지 키오스크가 점령할까? 언젠가 나조차도 키오스크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부질없는 질문들이 은주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사이에 태블릿에는 캐리어의 무게가 떴다. 23kg. 2주간의 여행 짐치고는 단출했다. 인쇄된 스티커와 종이띠를 캐리어 손잡이에 붙였다. 평범한 남색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캐리어가 다른 사람들의 것과 헛갈릴까 봐 손잡이에 베이지색 손수건을 묶어놨다. 그 옆에 대롱대롱 짐 주인이 은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더해졌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캐리어가 스르륵 뒤로 이동했다. 커튼같이 보이는 발 뒤로 넘어간 캐리어를 잠시 지켜보다가 되돌아섰다. 은주를 관찰하다가 작업이 끝났다는 걸 확신한 다른 승객이 은주가 몇 걸음 걷기도 전에 태블릿 앞자리를 꿰찼다. 그 역시나 거리낌 없이 태블릿의 첫 화면을 터치했다.

위탁 수화물을 보내니 한결 몸이 가벼워졌다. 손에 든 가방에는 노트북과 기내에서 사용할 간단한 짐들만 들었다.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은주는 바로 라운지로 향했다.



뉴스에서 라운지 오픈런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실제로도 사람이 너무 많았다. 항상 라운지가 붐볐던 기억은 있었지만, 오늘처럼 사람이 많은 날도 처음이었다. 일행의 형태는 다양했다. 젊은 부부가 많았고, 또래로 보이는 동성 친구들도 여럿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가는 3~4인 가족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다 보니 좁지 않은 라운지 공간이 울릴 정도로 시끌벅적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라운지에서 간단하게 허기를 달래며 휴식을 취한다는 개념은 진작 사라진 것 같았다. 모두 전투적으로 음식을 담았다. 가벼운 음식들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 수 있는지 대결이라도 하는 모양새였다.

붐비는 사람들, 소음, 각종 음식 냄새가 역여서 갑자기 두통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이 그나마 덜 한 공간을 찾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구석 한편에 난 소파에 자리 잡았다. 소파의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자 급격히 피곤함이 더 몰려왔다. 은주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성적으로 먹는 모습을 보면 본능적인 거부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종종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먹고사는 것 자체가 추잡하다고 생각했다. 무언가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이라는 동물에 대한 혐오감이 바닥에 깔려있었다. 멀리 갈 것까지도 없이 그녀의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랬다.

그는 삼시세끼를 누가 차린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아주 어릴 때, 아마 자신의 기억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로 추정되는 것조차도 아버지가 밥상에서 게걸스럽게 밥을 먹는 모습이었다. 그는 수저로 크게 푼 밥을 입안 가득 욱여넣고 그 뒤에 반찬을 끊임없이 넣었다. 쉴 새 없이 씹어대는 소리와 사이사이 입을 벌려 무언가를 더 넣는 행동이 섞여서 물기 섞인 밥 먹는 소리가 찼찼 들렸다. 그러다 국 사발을 들어서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을 들이켰다. 지금 보면 속된 말로 머슴밥 먹는 형상이었다. 밥상 위에 올라간 음식이 얼마가 되든 그는 쌀 한 톨, 반찬 한 조각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가끔은 그렇게 아버지가 먹은 음식물들이 입안에서 펄 하고 터져버리는 건 아닐지 상상하기도 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에 강렬하게 남을수록 은주는 자신이 음식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남들의 눈치를 신경 썼다. 한때는 입을 벌리는 것조차도 눈치가 보였다. 혹시나 소리가 나진 않을까, 입안이 보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었다. 매번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다이어트하냐는 질문을 받았고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그렇다고 답했다. 우습게도 그 한마디가 그녀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눈을 감고 있자, 소음은 더 커지고 음식 냄새는 진해졌다. 시각을 차단하니 청각과 후각이 예민해졌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허기가 몰려왔다. 생각해 보니 짐을 싣다고 어제 오후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었다. 몸을 일으켜서 간단한 요깃거리라도 담아오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 같았다.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 아직 한 시간 반이 남았으니, 알람을 맞춰놓고 한숨 자고 싶었다. 신발 속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이리저리 시간을 계산해 봤다. 하지만, 이곳에서 마음 편히 잠들 자신이 없었다. 잠은 비행기를 타고 나서 자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힘주어 눈을 떴다.

접시에는 식빵 한 장과 버터 그리고 구운 과자를 담았다. 음료는 따뜻한 커피였다. 음식을 먹기 전에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아메리카노의 온도 때문인지 몸이

한결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향이나 맛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온도만큼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만큼 뜨거웠다. 말라 있던 속이 덕분에 좀 풀어졌다. 가져온 빵에 버터를 발라 베어 물고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포털에는 각종 뉴스가 어지러울 정도로 지면을 차지했다. 굳이 보지도 않는 뉴스를 포털 메인으로 설정해 둔 것은 그러지 않으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아예 모르게 될 것 같아서였다. 물론 그런 노력은 하등의 효과가 없었다. 제 목만 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오히려 기사 제목만 보는 것은 비뚤어진 세상을 한 번 더 꼬아서 보게 만들었다. 은주는 습관적으로 켜던 포털 앱을 끄고 SNS를 켜다. 사진을 보는 등 마는 등 스크롤을 내렸다. SNS는 끝이라는 게 없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슬라이딩하면 무한히 새로운 무언가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종종 자신이 중독된 것은 SNS의 콘텐츠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아닌가 생각하곤 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다른 한 손에는 빵을 들고 허기를 채우는 자신 옆으로 다섯 살쯤 된 아이가 와다다 달려갔다. 소파들 사이에 있는 좁은 통로를 마치 달리기 트랙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속력으로 달렸다.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젊은 부부는 아이의 행동이 익숙한지 아이를 붙잡기 위해 각자 자리를 잡았다. 마치 슬래잡기하는 모양새가 더 신났는지 아이가 괴성을 질렀다. 아이의 엄마가 지친 얼굴에 울상이 됐고, 아이의 아빠는 무표정해 보이는 얼굴에 눈썹이 더 하늘로 치솟았다. 아이의 움직임을 예상해 자리를 잡은 아빠는 아이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자식을 들어 올렸다. 이마저도 즐거운지 아이의 새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그들의 옷차림을 보고 동남아로 놀러 가는 가족일 것으로 생각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있는 가족을 보면 보기 좋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시끄럽고 불편해했던 예전과는 달랐다. 온몸에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자기 신체를 주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귀여웠다. 그리고 얼굴에 질게 물든 피로감을 숨기지 못하는 부모가 안쓰럽다가도 그 피로감 위로 덧칠해지는 자식에 대한 애정이 보기 좋았다. 마치 서로가 온전하게 맞붙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은주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였다.

생각보다 승객수가 많았다. 인천공항의 북적임을 생각하니 비행기에 사람이 많은 것도 당연했다. 평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떠난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자신의 일상에서 지금 이 시각은 회사에 출근해 눈을 찌푸리며 모니터를 바라보거나, 답답한 회의실에 갇혀있을 때였다. 다행스럽게도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은주의 옆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은주의 옆옆 자리인 창가에는 아직 어려 보이는 20대 여자가 앉아 있었다. 헤드셋을 끼고 눈을 감고 있는 얼굴이 홀끔 보게만 해도 옛돼 보였다. 후드티는 원단이 도통해 보였고, 그녀의 체구보다 커 보였다. 그 아래로 입은 트레이닝 팬츠도 혈령해서 긴 비행시간에 어울리는 복장이었다. 자신도 비행시간을 감안해 편안한 옷을 입고 왔지만, 옆 승객만큼 마음껏 편한 복장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은주는 넉넉한 티셔츠에 얇은 가디건, 허리에 밴딩이 있는 A라인 롱스커트를 입었다. 평소에 집 앞 슈퍼 가는 복장 수준이라 동네를 벗어날 때는 입어본 적 없는 스타일이었다.

기내는 서늘하고 건조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온도와 습도가 마음에 들었다. 서늘하다는



표현이 걸맞은 공기가 주는 안정감이 있다. 보통은 공간이 클수록,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쾌적한데 이상하게 비행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항상 이런 ‘적절함’을 준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리가 전혀 없어도 견딜만하다고 느꼈다.

항상 그 거리가 문제였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리의 기준이 너무 달랐다.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은주는 자신이 그중에서도 유별나게 남들과 다른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다. 살을 부딪쳐오는 경험은 대부분 불쾌함이 뒤따랐고, 호의든 악의든 누군가의 관심으로 다가오는 대화는 불편했다. 그런 반응을 숨길 수 없었던 어릴 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다. 안아 올리는 엄마의 몸에서 떨어지기 위해 발버둥을 치거나 모르는 사람이 얼굴을 들여다보며 칭찬하면 손으로 얼굴을 덮어버렸다. 엄마는 어릴 때부터 ‘내가 낳았지만 유별난 년’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녀는 살갑게 굴 귀염성 있는 딸이라는 엄마의 바람과는 영 거리가 멀었다.

본능적으로 예민함이 돌아나는 청소년기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극에 달했지만, 티 내지 않는 법을 배웠다. 무리에서 누구나 쉽게 타깃이 되는 것을 보고 배웠다. 친구끼리의 팔짱과 같은 스킨십에서 느껴지는 찝찝하고 끈적이는 촉감은 혐오스러웠지만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었다. 확보하지 못한 물리적 거리감은 고스란히 심리적 거리감으로 넘어왔다. 웃으며 친구처럼 지내도 마음속 거리감은 점차 벌어졌다. 대신 스스로 자신에게 거리감을 두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풀렸다. 그래서 은주는 무관심해 보이는 선생님들, 오가며 눈인사만 하는 아는 얼굴들을 더 좋아했다.

안전벨트 착용 등이 꺼졌다. 안전을 위해 계속 벨트 착용을 권하는 승무원의 방송이 나왔지만 여기저기서 벨트를 푸는 철컥 소리가 들렸다. 은주도 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캐빈을 열어 가방을 꺼냈다. 가방에는 자질구레한 짐들과 노트북 그리고 책 한 권이 있었다. 은주는 잠시 노트북과 책 중에 고민하더니 책을 꺼냈다. 책은 카프카 단편집이었다. 고전문학을 즐겨 읽지 않지만 그래도 여행을 갈 때면 주로 고전문학을 챙겼다. 읽지만 오랫동안 읽을 수 있는 책. 독서하는 시간보다 무언가를 곁집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콘텐츠를 찾았다. 카프카의 단편집은 이미 여러 번 읽어서 여기저기 포스트잇이 붙어있었다. 자연스럽게 책장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었다. 책은 카프카가 발표한 연도순으로 작품을 나열했고, 책갈피는 백색 페이지쯤 꽂혀 있었다. 그레고르의 이야기였다.

자리에 있는 화면에서는 지금 비행기의 위치를 보여줬다. 일본을 넘어 태평양 위를 지나는 비행기의 아이콘은 서울과 뉴욕 사이를 이은 점선 위를 착실하게 따라가고 있었다. 복도 사이에 두고 옆자리에 앉은 승객은 모녀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딸과 60대로 보이는 어머니는 비행기가 이륙한 뒤로 끊임없이 대화했다. 은주는 의도치 않게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청하고 있었는데 마치 안방 소파에서 TV를 보며 수다를 떨듯 대화를 이어갔다.

“머스마가 와져러노” 라는 어머니의 호들갑 섞인 말이 시작이었다. 딸은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주의를 주는가 싶더니 얼마 안 가서 본인도 혼잣말을 가장한 대화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좌석에 있는 태블릿으로 콘텐츠를 보고 있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 같았다. 두 사람의 반응과 대화가 자꾸 책의 내용과 섞였다.

그들은 연애 예능을 보고 있었다. 그 안에서 서로의 상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녀들이 저마다 감정을 숨기는 척하며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었다. 감춰지지 않는 욕망을 카메라 앞에서 감출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함이 그들을 더 안쓰럽게 만들었다. 호들갑 섞인 모녀의 대화가 자꾸 은주의 시선을 그들의 모니터로 향하게 했다. 예의상 고개를 돌릴 수 없어 눈동자만 돌려 흘금 본 화면 속의 남자는 너무나 평범하게 생긴 일반인이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인터뷰 장면이 지나가더니 여자 셋이 방 안에서 대화하는 장면으로 넘어갔다. “미쳤다 미쳤어” 딸은 한탄이 섞인 것 같은 말을 내뱉었다. “오메” 라던지, “미쳤뿌네”, “니는 정신차리라” 같은 어머니의 추임새도 곁들여졌다. 두 사람의 반응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반응의 시점이 비슷했다. 그리고 감탄사와 말들이 절묘해서 정말 다 같이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전 국민 앞에서 구애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보며 온갖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처음 영화 트루먼쇼를 봤을 때의 충격은 자발적으로 트루먼이 되기 위해 줄 서는 사람들을 보며 받은 충격에 비할 바가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결혼 상대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 시작이 사랑이니, 결혼이니 하는 것이라는 것이 새삼스러웠다. 그리고 보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그랬다. 이성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논하며 울고 웃고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를 거쳤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자기 자신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결혼은 너무 순탄해 무언가 말을 덧붙일 부분이 없었다. 물론 이혼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그러니까, 무던한 사람이었다. 은주가 그러하듯 그 역시나 거리감에 민감했다. 그의 행동과 말은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소개팅이라고 하기에는 무거웠고, 맞선이라고 하기에는 가벼운 자리를 통해 만났다. 여러 번의 거절에도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직장 상사의 주선에 마지못해 나간 자리였다. 상대방도 은주와 다를 바가 없었다. 두 사람은 어색한 공기를 마시며 드문드문 대화했다. 첫 만남의 끝쯤에 두 사람 모두 침묵이 오하려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다음날 안부 문자를 보냈다. 다시 만나기로 했냐는 상사의 물음에 아무 말 없이 어색한 웃음을 지은 날 저녁에 영화를 보지 않겠냐는 문자를 받았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다는 것 말고는 혼자 하는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만나보니 괜찮은 사람이지 않냐는 상사의 질문에도 어색하게 웃었을 때쯤 남편이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그는 은주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했다. 설렌다거나, 반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서 은주는 그러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일 년 정도 연애를 한 뒤 결혼했다. 주선했던 상사는 그사이 이직했지만 두 사람의 결혼식에 선물로 받은 양복을 입고 참석했다. 역시 자신이 사람 볼 줄 안다며, 주선에 성공한 커플이 열 손가락을 넘으며, 천국행 티켓은 이미 받았다는 너스레를 신부대기실에서 한 번 더 떨었다. 그에게 결혼 사실을 밝히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식사 자리에서 이미 수없이 들었던 레파토리였다.

결혼을 기점으로 은주는 제 가족에게서 영원히 떨어져나올 수 있을 줄 알았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직장을 다니며 독립한 이후 원래도 교류가 적었던 가족들과 더 거리를



벌렸다. 그의 남편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에 대해 별 감정은 없어 보였지만, 은주의 행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면 그에게도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다. 그녀는 점차 우주에서 외따로 존재하는 행성처럼 그녀가 가족이라고 불러왔던 이들에게서 멀어져 갔다.

“이혼했으면 해.”

저녁 식사를 하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은주가 이혼 통보를 했을 때, 남편은 알타리 무김치를 씹고 있었다. 젓가락을 내려두고, 입안에 있는 밥을 다 삼키고 나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에야 그가 말했다.

“왜?”

“그냥 이제서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은주가 처음 남편을 만났던 그때, 레스토랑에서 은주를 바라보던 그 남자의 표정 그대로 그가 은주를 보고 있었다

“마음을 바꿀 수 없어?”

“응”

“그래, 그렇구나.”

남편이 잠시 고개를 뒤로 젖혔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알겠어. 시간을 잠시 줘.”

“서류는 준비했어. 내일 아침에 식탁 위에 올려둘게.”

“그래.”

그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젓가락으로 밥을 적당량 들어서 먹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밥을 먹지 않았다. 항상 적정량만 덜어서 입안에 음식물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게끔 조용히 먹었다. 그것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았지만, 남편과의 식사가 반복될수록 은주는 먹는 것이 추접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자신이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게걸스러움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기내식으로 나온 것은 묵밥이었다. 승무원이 준비된 다른 메뉴가 이미 품질이어서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말했을 때 은주는 개의치 않았다. 무엇이 나왔든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반면 창가에 앉은 20대 승객은 기분이 나빠 보였다. 두 사람이 앉은 자리가 꽤 후미여서 이미 기내에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준비된 식사는 밥과 불고기, 묵과 야채가 담긴 큰 그릇과 육수 그리고 반찬이었다. 평소 먹는 양보다 두 배는 거뜬히 넘을 한 상이었다. 라운지에서 식빵 한 조각만 먹어서 그런지 여러 음식의 냄새가 섞인 상황에서도 은근히 식욕이 돋았다. 따뜻하게 데워진 흰 쌀밥과 불고기의 경계를 수저로 떴다. 팔려 온 양념에 졸여진 고기와 야채가 달았다. 큰 대접에 묵과 야채들이 담겨있었고, 육수가 담긴 파우치가 따로 제공됐다. 은주는 제가 불고기와 밥도 다 못 먹을 걸 알았다. 제가 뜯든 뜯지 않은 음식을 버리겠지만 굳이 육수를 뜯어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밥을 몇 번 더 떠먹는 사이 옆자리 승객이 아무지게 육수를 뜯어 대접에 부었다. 차갑게 제공된 육수가 그릇에 부어지자, 공기 중에 새콤하면서 달콤한 냄새가 한 겹 더해졌다. 뽀얀 남을 보면 실례라는 걸 알면

서도 이상하게 옆 사람을 자주 관찰하게 됐다. 묵밥이라는 메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사람은 한 입 먹어보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꽤 열성적으로 떠먹고 있었다. 딱 봐도 작은 체구였는데 기내식으로 나온 음식들을 번갈아 가며 빠짐없이 잘 먹었다.

태평양 위를 지나는 비행기 안에서 좁은 각자의 좌석 위에 펼쳐진 한 상 차림을 동시에 열심히 먹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갑자기 속이 울렁였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여겨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이질적이고 받아들이 수 없는 느낌이 든 적은 없었다. 몇 번 손가락질 했던 덮밥의 달짝지근한 양념 맛은 입안에 들큰하게 들러붙었다. 위는 이제서야 식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는지 요동치기 시작했고, 침샘도 제 역할을 하는 지 침이 고였지만 무언가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는 거부감이 일었다. 밥 위로 뚜껑을 도로 덮고 오렌지를 한 조각 입안에 물고 눈을 감았다. 앞뒤, 양옆으로 밥 먹는 소리가 귀를 덮어 버렸다.

“하여튼 유별나”

쪼뻑 소리를 내며 밥을 먹는 아버지 옆에서 엄마는 아까부터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했다. 최근 몸이 피곤해서 더 입맛이 없었다. 과외와 아르바이트가 많기도 했고, 학교 과제 때문에 편하게 쉬지 못한 지 꽤 됐다. 그래서 오랜만에 부모님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달갑지 않았다. 밥을 먹는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쉬고 싶었다.

식탁의 상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반찬이 많이 나와 있었다. 빨간 양념으로 무친 것들과, 간장에 삭힌 장아찌류, 젓갈 등 온통 은주에게는 그저 똑같이 보이는 것들이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밥그릇을 들어 가득 채워진 밥을 절반 이상 덜어 밥솥에 넣었다. 그 뒤로 마저 국을 푸던 엄마의 허 차는 소리가 들렸다. 밥상이 다 완성되고, 수저까지 놓여서 밥을 먹기만 하면 되는 순간에야 아버지가 등장했다. 그는 ‘수고했다’ 라던가, ‘맛있겠다’와 같은 말 따위는 모르는 사람처럼 자리에 털썩 앉아 수저를 들어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삼분의 일도 되지 않는 밥만 남긴 그릇을 들고 자리에 앉은 은주도 젓가락을 들었다.

엄마는 그냥 그날 무언가 심사가 꼬였던 것 같다. 은주가 잘 안 먹었던 것은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었다. 물론 대부분 급식을 먹으며 컸으니, 밥을 직접 같이 먹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새삼스러운 것도 없었다. 오히려 청소년기에는 적게 먹는 은주의 식습관을 은근히 뽐내기도 했다. 엄마는 자신과 다르게 날씬하게 마른 딸의 몸매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꼈다. 하지만 언제나 그 만족감은 다양한 형태로 변해서 은주를 찔렀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형태였다.

“그걸 누구 코에 붙인다고 굳이 덜긴 덜어? 그렇게 먹으면 오면 복도 달아나겠다.”

“...”

“불이 다 패여서는, 젊은 여자가 그렇게 마르면 누가 예쁘다고 하니”

폭격처럼 시작된 엄마의 말에 몇 번 하던 젓가락질을 멈추고 물을 마셨다. 아버지의 밥 먹는 소리는 마치 비트처럼 엄마의 바늘 같은 말에 추임새를 넣었다. 엄마는 부모라면 자식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여기며 평생을 폭언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찔러댔다. 무기의 형태가 매번 달라서 처음에는 당황하고 낯설어했지만 결국 어떤 형태이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20살이었다. 그 뒤로 은주는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기로 다짐했다. 물론 다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깨달았다.

“요즘 잠을 잘 못자서 그래요.”

“유세다 유세야.”

아무래도 오늘 들어야 하는 말이 짧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엄마의 말 사이로 들리는 아버지의 음식물을 씹고, 삼키고, 입을 벌리고, 물을 들이켜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벗어날 수 없는 울무처럼 제 귀를 꽂꽂 싸맨 기분이었다.

출발시간이 오전이라 식사하고 나서도 불을 꺼주지는 않았다. 승객 중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좌석 사이의 복도를 걸으며 나름의 소화를 시켰다. 대부분은 여전히 의자에 붙은 모니터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은주는 아까 덮어 둔 책을 다시 펼쳤다가 도로 덮었다. 집중이 되지 않았다. 다시 캐빈을 열고 가방 안에 넣어둔 노트북을 꺼냈다. 짧지 않은 여행이었고, 여행 계획이라고는 몇 군데 가고 싶은 장소 말고는 없는 상황이라 여행 짐을 쌀 때 가장 먼저 노트북을 챙겼다. 노트북을 켜고 와이파이를 연결했다. 브라우저를 켜서 메일과 카카오톡을 로그인했다. 개인 메일함에는 별달리 중요한 내용은 없었지만, 매일 한 번씩은 들여다봤다. 더 이상 개인적인 연락은 메일을 통해서 하지 않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은주는 막연히 어느 날 자신의 메일함에 무언가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반면 카카오톡 메신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회사 단체 메신저 방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다섯 손가락에 꼽았다. 긴 휴가를 얻은 뒤로는 회사 단체 메신저 방도 알람을 꺼두어서 대화 내용을 보지 않고 있었다.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일이나 연락은 개인적으로 오곤 했다. 대화방 목록을 보고 있는데 새로운 대화가 생겼다. 같은 팀 박 대리였다.

「차장님! 죄송하지만 뉴욕 도착하시면 지난번 전무님 보고자료 작성할 때 쓰셨던 시장조사 파일 원본 저장경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ㅠㅠ」

메시지 옆에 있었을 숫자 1이 지워지자마자 메시지가 또 왔다.

「헉 차장님 벌써 뉴욕이세요?」

「아니 비행기야. 와이파이 결제했어」

「대박 ㅋㅋ 요즘은 진짜 세상 좋아요 그쵸?」

은주는 박 대리의 말투와 친근함이 자주 신기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싫지는 않았다. 박 대리의 친근함의 가장 큰 장점은 거리를 좁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로의 바운더리를 지키면서도 가깝다고 착각하게끔 하는 것이 박 대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이었다.

「시장조사 자료는 왜?」

「아야! 아니 글썄 그 전무님 보고 아이템 엮어진 거 들으셨죠? 갑자기 어디서 무슨 지시가 떨어졌는지 아이템 바뀌어서 다시 보고하래서 저랑 이과장님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아...」

「차장님 자료는 진짜 완벽했는데. ㅠㅠ 뭐 또 위에서 사정이 생겼나 봐요」

「그랬구나. 자료는 팀 공유폴더에 있어. 내 인수인계 폴더에서 보고서명 찾아서 들어가면 아마 있을 거야」

「넹! 이거 보다가 도움 필요하면 연락드려도 받아주셔야 해요~」

「^^」

「감사합니다! 뉴욕여행 완전 부러워요. 저도 안식월만 바라보고 버텨봅니다!」

「그래 수고해~」

박 대리가 보낸 귀여운 토끼 캐릭터의 이모티콘을 끝으로 대화가 끝났다. 대화방을 위로 올려보니 휴가를 받고 나서도 몇 번 박 대리에게 연락을 받았다. 휴가 잘 다녀오라는 인사나, 인계받은 업무에 대한 질문 그리고 팀이나 회사에 대한 가벼운 가십이었다. 대부분의 대화는 상대방이 시작했고, 그녀의 호들갑 섞인 말들을 읽고 질문에 답해주고 덧붙이는 말 없이 알겠다고 답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 대화 형태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직접 이야기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은주는 무엇이든 듣는 게 더 마음이 편했다. 사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가능한 한 짧고 피상적으로 대답했다. 말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다. 특히나 자신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을 알아챌까 봐 두려웠다. 누군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러모아 기워서 만든 천을 펼쳤을 때 자신의 속마음이 낱알이 발가벗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릴 땐 누군가 자신을 궁금해할 때 덜컥 겁부터 났었다. 요령이 없어서 거짓말도 하지 못하고, 진심을 답하지도 못했다. 어색한 침묵과 얼버무림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관심은 금세 비교함에 가까운 감정으로 변했다. 소위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겪어온 여러 번의 어려움 끝에 그녀는 자신만의 요령을 만들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도 아닌, 모호하면서도 그럴듯한 대답을 하는 것. 대답을 지연시키는 것,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것, 질문으로 되돌려주는 것. 보통 상대방의 관심은 알пах했기 때문에 이런 몇 개의 요령만으로도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역시나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이 가장 편했다.

광고성 스팸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나니 답장을 해줄 만한 연락은 거의 없었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였지만 읽고 싶지 않았다. 아마 읽었다는 표시가 나자마자 엄마는 폭탄같이 연락을 투하할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 스트레칭 좀 해야돼”

노트북을 노려보고 있는 은주의 귀를 때리듯 옆자리에 앉은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좀 전까지 보고 있던 예능이 다 끝이 났는지, 화면은 꺼져있었다. 얼핏 봤던 남자의 인상이 검은색 모니터 위에 그려지는 듯 착각이 들었다.

“아고고고. 다리가 땀땀 뵈는거 같은디”

“스트레칭해야 한다니까. 일어나봐”

딸이 제 어머니의 한쪽 팔을 부축하듯 일으켜 세웠다.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어머니는 생각보다 키가 작고 체구가 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배가 많이 나왔다. 팔과 다리는 얇아 보이는데 유독 배가 많이 나온 체형이었다. 엉거주춤 일어난 여자가 딸의 부축을 받아서 복도로 나오더니 제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문지르듯 주물렀다.



“오래 앉아 있어서 그래. 엄마 저기 끝까지 왔다 갔다 몇 번 걷고 와”

“저까정?”

“응 얼마 안 걸릴걸? 사람들 치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걸어야 해”

마치 어린 딸한테 알려주듯 딸은 손가락으로 목표 지점을 명확히 가리키고 주의 사항을 말했다. 여자는 못내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은 지 입을 삐죽였지만, 딸의 말대로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딸이 복도를 걷는 게 어머니의 뒷모습을 자리에 서서 계속 지켜봤다. 두 사람이 보던 연애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서로의 짝을 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걸어가는 이성을 바라보는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남편에게 메신저가 와있었다.

「생일 축하해」

짧은 한마디뿐이었다.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이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다만 예상보다 그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돌려받는 데는 며칠이 걸렸다. 이혼서류를 돌려받고, 법원에 제출하고, 수속을 밟는 과정은 고요했다. 양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따로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러웠다. 경제권을 합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집만 처분하면 됐다.

집이 팔릴 때까지 같이 지내자는 것은 남편의 제안이었다. 원래도 집이라기엔 행할 정도로 물건이 없었던 터라 정리할 살림살이도 적었다. 계획대로라면 이혼 이야기를 꺼낸 시점부터 작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알아볼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바빠진 회사 일 때문에 은주도 준비된 거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하자. 대신 내가 작은방으로 옮길게.”

하지만 같이 지낸다고 해서 한 침실을 쓸 수 없으니 창고 겸 안 쓰는 물건을 두고 지내는 작은방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혼을 먼저 꺼낸 자신이 침실을 계속 쓸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남편은 순순히 동의했다.

집을 빠르게 처분하기 위해서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내놓은 덕분에 하루에도 여러 번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둘 다 직장인이라 저녁 시간에만 부동산의 방문을 허락했는데도 2주가 채 되지 않아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싸게 내놓은 덕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부동산 중개인은 자신이 특별히 신경 써서 거래가 빨리 성사된 것이라며 은주와 남편 앞에서 여러 번이나 스스로 공치사했다.

집을 비워야 하는 날까지는 꽤 시간이 남았다. 두 사람의 일상은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해서 저녁을 챙겨 먹었다. 원래도 퇴근 시간이 조금 달라 식사를 따로 하는 날이 적지 않았었다. 앱으로 장을 보고, 냉장고를 채우고, 가끔 반찬거리를 만들었다. 주말은 이사 갈 집을 보러 다니느라 둘 다 자주 집을 비웠다. 적막했던 집이 한층 더 고요해졌다.

그러던 중에 은주는 회사에서 연식휴가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15년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받았던 한 달의 연식휴가였다. 일이 바빠서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사용기한에 대한 최후통첩을 받은 것이다. 누구나 회사에서 정한 기한만큼 일하면 받는 휴가인데도 팀원들은 진심으로 부러워했다. 쉬면서 집이라도 더 알아봐야 하나 고민

하던 찰나에 SNS에서 뉴욕 야경 사진을 봤다.

어두운 하늘을 별처럼 수놓은 무수한 빌딩숲. 마천루가 만드는 스카이라인 사이로 칠흑 같은 센트럴파크의 짙은 음영. 총동적으로 뉴욕행 항공권을 예매했다. 그리고 그날 팀장에게 휴가계를 올렸다.

“차장님 진짜 너무너무 부러워요! 뉴욕이라니 진짜 최고의 선택이에요.”

“박 대리가 더 뉴욕 가는 사람 같다.”

“저도 얼른 연식휴가 받고 싶어요. 실제로 차장님이 한 달 딱 휴가 내시는 거 보니까 의욕이 샘솟는다니까요.”

“다음 타자는 나야. 나도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다고.”

“과장님은 어디 가실지 정하셨어요?”

“글쎄 와이프랑 이야기해 봐야지. 아 차장님 남편분도 같이 가세요?”

김 과장의 질문에 은주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혼자 가요.”

“하긴 직장인이 한 달 휴가 내기 어렵죠.”

“차장님 제가 뉴욕 맛집 저장한 구글 지도 공유해드릴까요?”

“괜찮아요.”

“정말요? 몇 년 전에 다녀온 버전이지만 그래도 엄청 맛집들만 모은 거예요.”

“가서 외식을 자주 할지 알 수 없어서요.”

“하긴 뉴욕 물가가 오죽 살인적이어야지.”

“그건 그래요. 그래도 뉴욕 간 만큼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 후회가 없다고요.”

휴가 기간과 여행지를 말하자마자 동료들의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다. 대부분의 팀원이 이미 뉴욕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여러 추천이 이어졌다. 뉴욕을 다녀온 사람이 주변에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이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열성적으로 추천할 만큼 좋아하는 장소들이 지구의 정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도.

총동적으로 잡은 여행 날짜 때문에 집을 구하는 시점이 애매해졌다. 여행을 가기 전에 짐을 옮겨두어야 해서 단기 렌트가 가능한 곳을 빠르게 수소문했다. 단출한 짐을 정리하고 가구나 가전들은 남편에게 의사를 물어 나누어 가졌다.

“집은 괜찮은 곳으로 구한 거야?”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단기로 구했어. 다녀와서 다시 찾아봐야지.”

“그렇구나. 생일은 비행기에서 보내겠네.”

“...응.”

그가 올해도 축하를 해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기내는 불이 꺼졌고 대부분의 승객이 잠을 자기 위해 몸을 뒤척였다. 커 둔 노트북 화면에는 남편이 보낸 짧은 축하 메시지만 반짝였다. 한국시간으로는 아마 자정이 막 넘어간 시간이라.

「고마워」

답장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보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다는 의미로 화면에서 숫자가 사라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화면에 뜨지 않았다.

은주는 노트북을 덮었다. 가방에 노트북을 두고 가만히 몸을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시야가 차단되니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카펫을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 누군가 몸을 뒤척이며 옷의 원단이 비벼지는 소리, 나지막한 숨소리, 멀리서 노트북 타자를 하는 소리. 온갖 소리가 귓가를 소용돌이치며 은주에게 전해졌다.

마흔의 생일을 하늘에서 보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생일이 특별하지 않은 하루가 된지는 너무나도 오래라 이따금 안부 인사와 함께 받는 생일 축하 말이 아니면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았다. 무언가를 견뎌내며 사는 삶에 즐거움이나 의지 따위는 없이 오로지 관성처럼 살아냈다. 그러니 마흔이라고 무엇이 다를까.

삶의 의미나, 행복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었다. 느끼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들을 함께 말해야 하는 순간엔 자신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여됐다는 증거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찾지 못하고, 찾을 의지도 없이 벌써 40년을 살았다. 은주는 머릿속으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장면들과 함께 잠이 들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에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과 함께 공기 중에 설렘이 톱톱 튀어다녔다. 사람들은 아직 비행기가 하늘에 있는데도 마치 도착한 것이나 다름없는 표정을 지었다. 길고 긴 14시간의 비행에 지쳐 보이는 동시에 기대감이 서려 보였다. 창가에 앉았던 학생은 헤드셋을 목에 걸고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연애 프로그램을 보던 모녀는 어머니의 어깨에 딸이 고개를 기대며 눈을 감고 있었다. 어머니는 의자에 달린 모니터를 몇 번 누르시더니 무언가를 골똘히 쳐다보았다.

의자에 머리를 붙였다. 고개를 살짝 젖히고 항공기의 천장을 잠시 바라봤다. 연한 회색의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작점도 끝도 무늬도 글자도. 그렇게 아주 잠시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기체가 흔들리며 착륙이 시작됐다. 활주로를 한참 달리던 비행기가 속도를 점차 줄이고 멈추자마자 사람들은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은주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무원들의 안내방송이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 주머니에 넣어놔던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부에서 보내는 각종 안내 문자리라 생각했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 소리가 몸을 흔들어대는 것처럼 점차 크게 느껴졌다.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허공에서의 순간들이 더 편안했음을.



최우수상

일반부

조종사의 딸

수필 / 한미경





조종사의 딸

일반부 최우수상
수필 / 한미경

“신랑감이 비행기 모는 조종사란다.”

엄마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말이었다. 다른 조건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와 아버지는 선을 본 지 다섯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아버지는 20년간 군인 조종사로 근무했는데, 계급이 올라갈수록 진급은 점점 어려워졌다. 그 해에 진급이 안 되면 제대해야 하는 처지가 되자 부모님은 앞날이 막막했다. 장남인 아버지는 동생들까지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 하나 차릴 여유도 없었다.

진급 통보를 앞두고 민간항공사 조종사 모집에 원서를 냈다. 모든 것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긴박하고 조마조마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엄마는 새벽마다 절에 기도를 하러 가셨고 나도 엄마를 따라다녔다. 캄캄한 새벽, 열한 살 어린 나를 깨우면서 엄마는 어쩌면 나를 앞세워 부처님께 더 매달렸는지도 모르겠다. ‘이 어린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합격시켜 주세요.’ 감사하게도 부처님은 우리 모녀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나는 xx항공 조종사의 딸이 되었다.

서울로 올라온 우리 가족은 비록 방 두 개짜리 전셋집에 살았지만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가 조종사라는 말을 할 때마다 친구들이 내지르는 놀람과 부러움의 탄성은 언제 들어도 싱싱했다.

하지만 나의 행복과 자긍심은 아버지의 눈물겨운 노력의 대가였다. 아버지는 안방을 콧으로 만들었다. 비행기 조종석을 영어로 콧(cockpit)이라 부른다. 벽에 커다란 계기판 모형을 붙여놓고 그 앞에 앉아서 연습을 하셨다. 오른손으로는 계기판의 스위치를 누르고, 왼손으로는 레버(lever)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언젠가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뻘뻘히 열린 문 안쪽으로 콧을 본 적이 있다. 작고 답답한 방이었다. 그 닭장 같은 공간에서 아버지는 뜨거운 태양을 온몸으로 받으며 앉아계셨을 것이다.

‘Ladies & gentleman’으로 시작되는 조종사 멘트를 수도 없이 읽고 외웠다. 소심했던 아버지는 그 짧은 멘트도 참 어려워했던 것 같다. 나는 지금도 비행기에서 조종사들의 기내 방송을 들을 때 마다 그 목소리를 듣는 듯하다. 젊은 내 아버지의 목소리.

새벽 비행이 있는 날은 모두가 조심했다. 예민하고 잠귀가 밝은 아버지가 혹여 잠을 설치까 걱정되어 엄마는 거실에서 TV는 물론 큰 소리로 떠들지도 못하게 했다.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적도 많았다. 수많은 목숨을 책임지는 그 일이 얼마나 부담이었을지는 비행기를 직



접 타 본 뒤에야 알았다.

아버지가 미주 노선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은 더 긴장했다. 시차가 바뀌는 국제선 비행은 고역이었다. 집에 돌아와 적응할 만하면 다시 나가야하는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다. 장거리 노선을 타면 비행 시간이 길고 수당도 보태져서 수입이 훨씬 많았다. 형편이 넉넉지 않던 때라 아버지는 체력이 달리는 데도 국제선 비행을 계속했다. 생활은 여유가 생겼지만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건강 잃고 돈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엄마가 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버지는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할 때까지 국내와 가까운 외국만 다니셨다.

아버지는 비행을 다녀오면 우리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풀어놓곤 했다. 아찔한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기상이 나쁠수록 조종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기술이 중요하다. 김해공항에 도착했는데 강풍이 불고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기상 조건이 애매할 때, 착륙하느냐 회항하느냐 선택은 기장의 몫이다. 그날 아버지는 내리기로 결정한 후 가까스로 착륙하고 보니,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 아슬아슬하게 멈춰 있었다.

비행 중 문제가 생기면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는데, 이 때 연료가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비행기가 무거우면 착륙할 때 위험하다. 항공기가 상공에서 연료를 소진하는 것을 덤핑(dumping)이라고 한다. 적정 고도 이상에서 덤핑을 하면 기름이 기체로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대구에서 제주로 가는 도중, 세 개의 엔진 가운데 하나가 꺼져 버렸다.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아버지는 하늘에 연료를 뿌리고 대구 공항으로 회항했다.

하늘 위로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2도씩 내려간다. 일본 홋카이도로 비행할 때 일이다. 상공에서 갑자기 속도가 줄기 시작했다. 놀라서 원인을 찾아보니 연료가 얼고 있었다. 급히 조치를 취하고 고도를 낮춰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무용담 속에는 ‘오늘도 해내고 돌아왔다.’는 안도와 자량이 녹아있었다. 그때는 그 이야기들이 평범한 일상이었다. 이제 보니 아버지는 비행을 갈 때마다 하늘에서 ‘살아 돌아오신’ 것이었다.

이륙하고 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시간이라고 하셨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이동한 후 힘차게 날아오를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난다. 눈을 꼭 감고 올라가는 기울기를 느끼다가 수평으로 안착하면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 이쯤 되면 아버지도 긴장을 풀고 한숨 돌리며 물 한 잔을 드셨을 게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불안과 고독을 아버지는 어떻게 감내했을까?

착륙할 때는 더 긴장하게 된다. 아버지가 근무하던 시절, 동료 조종사의 비행기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다. 교육을 받던 부기장이 착륙을 앞두고 바퀴 내리는 것을 잊어버렸다. 땅에 닿기 직전 그걸 알게 된 기장은 복행(항공기가 정상적인 착륙이 어려울 때 다시 이륙하는 상황)을 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기장은 비행기 바닥을 활주로에 고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착륙했지만 그 소식을 들은 충격은 컸다. 조종사의 역할이 얼마

나 중요하고 무거운지 실감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은 꽤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 후로 엄마는 항상大門 밖까지 나가서 아버지를 배웅했다.

지금도 나는 비행기가 내릴 때쯤 되면 바퀴가 내려오는지 귀를 기울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퀴가 내려온 것을 확인하고 나면, 운해를 붉게 물들이며 떨어지는 태양처럼 고요히 내려앉기를 기도한다.

아버지는 1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마치고 정년 퇴직하셨다. 하늘과 땅을 오가는 긴 여정을 끝내던 날, 우리 가족은 공항에 나갔다. 책임감과 두려움을 구름 위에 내려놓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빨강색,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손녀들이 달려가 할아버지 품에 꽃다발을 안겼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나는 스튜어디스가 되어 하늘을 날고 싶었다. 고민 끝에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니 ‘원한다면 딱 3년만 하라.’고 하셨다.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외로운지 알기에 허락하고 싶지 않았으리라. 딸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항공인의 삶을 아버지는 40년이나 사셨다.

입사 초기에 미국 덴버에서 한 달간 비행 훈련을 받고 돌아오신 날이었다. 그때는 조종사들이 커피나 화장품 같은 미제 물건을 사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팔았다. 엄마는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방에서 제일 먼저 꺼낸 것은 은녹색과 살구색 잠옷이었다. 언니와 나에게 줄 선물이었다. 소핑을 나가서 제일 먼저 산 물건이라고 했다. 칼라에 하얀 레이스가 달린 보들보들한 원피스였다. 우리 자매는 꽤 오랫동안 그 옷을 입고 잠들었다. 옷이 다 해진 뒤에도 한동안 버리지 못했다. 아직도 그 고운 빛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아버지가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다. 항상 부모님 곁에 살던 내가 싱가포르로 떠나던 날이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나오는 걸 참고 있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내색을 못 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떠들었다. 짐을 부치고 드디어 이별의 시간이 왔다. 엄마와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이제 그만 들어가라고 재촉하셨다. 아이들 손을 잡고 보안 검색대 쪽으로 들어갔다. 줄이 꽤 길었다. 몇 번 돌고 돌아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밖을 쳐다보았다. 아직도 가림막 밑으로 엄마와 아버지의 신발이 보였다. 내가 보이지 않는데도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셨다.

긴 비행 끝에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엄마에 이어 아버지를 바꿨다.

“아빠, 잘 도착했어요.”

“그래, 고생 많았다. 비행기에서 힘들지는 않았냐?”

떨리는 목소리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흐느끼고 계셨다.

해외에 사는 동안 부모님은 매번 나를 배웅하기 위해 공항에 나오셨다. 엄마는 나를 보내고 돌아올 때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술술 흘러내리는 것 같다고 했다. 아버지도 내가 탄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도하며 눈물을 삼켰을 것이다. 그 사랑과 헌신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아버지는 조종사라는 직업에 금지가 대단했다. 하늘을 나는 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도 자랑이고 자부심이었다. 조종사의 딸로 살면서 정말 행복했다. 퇴직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방은 여전히 콧빛이다. 침대 앞에는 커다란 조종실 사진이 걸려있고, 거실에는 두대의 비행기 모형이 이륙과 착륙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인생 비행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최우수상

일반부

태교여행

시 / 김서진





태교여행

일반부 최우수상
시 / 김서진

내 몸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공항의 심장이 관제탑이라면
하늘을 향한 심장은 비행기일까요
상공을 향해 날아오를 때
입덧이 도질까 불안했는데
두 날개로 두 사람이 사뿐히 날아올랐어요

교통약자 우대 대상이 된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어요
짧은 시간에 검색과 출국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
임산부의 특권이네요
꿈은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줘요

육 개월째 내 몸에
무료 탑승한 태아는 나와 함께
구글 지도에 표시된 광으로 가는 중이에요

기내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입맛을 돌게 해요
레드와인 대신 제로 콜라를 시켰어요

비행기의 난기류에 내 몸이 흔들리나 잠시 불안했는데,
아차 아무래도 뱃속의 태아의 태동인가 봐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하늘은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
신이 만든 아름다운 풍경에
밀려드는 졸음과 잡념마저 물러갔어요

캄캄한 곳에서 자세를 잡으려 태아가 움직여요
바깥 풍경이 무척이나 보고 싶은가 봐요

몇 시간 후면 여행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무사히 진입하듯이
나도 내 몸에 탄 태아를
세상이라는 기착지에 내려놓아야 해요



우수상

일반부

종이비행기 시/권수진

종이 인간 목시록 소설/박새날

미조 소설/봉민성

그녀의 혼수품 1호를 아시나요 시/연지윤

휠체어와 비행기의 공통점 수필/유동현

하늘을 지탱하는 책임감 수필/윤정래

베트남에서 스무 살의 나를 만나다 수필/최옥숙

구름 위의 평온 시/최항석





종이비행기

일반부 우수상
시 / 권수진

새하얀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날개가 완성됩니다
반으로 접힌 종이를 다시 대각선으로 접으면
손잡이 발사체가 완성되고요
누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꿈을 일찍 접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날기 위해
오늘을 잠시 접는 것 같았지요
나에게는 항상
비행 청소년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라면
접어두어야 할 것들이 참 많았지만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은
젊은 날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창문을 열면 산허리 걸터앉은 뭉게구름들
새들의 힘찬 날갯짓
나도 언젠가 저 푸른 창공을 높이 나는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누나는 오늘도 비행기 안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마지막 승객이 탑승을 마치면
늘 불안한 비행에 가슴 졸인 적 많았지만
날마다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저마다 꿈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허공을 향해 완성된 비행기를 힘껏 날려봅니다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가는
가슴 고이 간직한 수많은 꿈들
저 멀리 희망의 나라로
구름을 가르며 비행운을 남긴 채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습니다

종이 인간 묵시록

일반부 우수상
소설 / 박새날

프롤로그. 평행선

나는 종이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인지 날카로운 혀에 쉽게 찢어지고 구멍이 뚫리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으로든 접힐 수 있다는 형의 말에. 난 흩어진 종이 가루를 두 손으로 모았다. 형은 말했다. 우리가 저 멀리 평행선을 넘으면 따뜻한 봄날이 있을 거라고. 그곳에서 우린 젖은 몸을 말리면 그만일 거라고. 그 말을 끝으로 형은 파쇄기에 갈려서 죽어버렸다. 그제야 난 결심이 바로 섰다. 잘 접힌 종이비행기가 되겠다고. 형이 넘지 못한 시멘트 담벼락을 넘겠다고. 저 멀리 새털구름을 쫓을 거라고.

종이 인간이 비행기가 되는 일은 꽤 잔인했다. 반으로, 사선으로 관절이 접히는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으니까. 그래도 난 포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햇볕이 없는 습지대에 남게 된다면. 몸에 곰팡이가 피어나 소멸해버릴 테니까. 나는 추운 가난을 핏몸으로 기회를 쫓았다. 그리고 난, 봄이 있다면 평행선을 넘을 수 있었다.

공군의 사명감을 벗어던지고 난 항공사에 들어갔다. 상사의 말에 모두가 수첩을 꺼내면, 곧 대로 난 몸에 적어버렸다. 살아남은 종이 인간의 태도였다. 칠은 날 인정하는 눈치였지만, 삼은 내가 봄날을 견고히 있다고 질투했다. 난 그들에게 속삭여 묻고 싶었다. 만개한 벚꽃은 아름답냐고. 겨울을 핏몸으로 봄이 소화돼버리냐고. 뜬겨나간 살점은 평행선에 남을 뿐이냐고.

무덤덤한 시간을 보냈고, 나는 비행길에 올랐다. 오늘도 건조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무탈하게 이륙을 마치자 인터폰이 울려왔다. 사무장이었다. “부기장님 누군가 무임승차를 했어요.” 평온했던 시간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난 문제의 원흉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필 도망칠 곳 없는 하늘에서 당신을 마주칠 줄이야. 저 평행선 너머에 얼룩으로 남아 있어야 할 당신을.

*

1장. 종이 인간



그날엔 성근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형과 나는 천막에서 똑똑 떨어져 내리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쩔 이라도 소란스러운 걸까. 제법 묵직한 빗방울 때문일까. 아니면 엄마의 애잔한 통곡 때문일까. 쟁그랑 접시가 깨지는 소리에 정답은 부엌으로 기울었다. 그날 우린 아빠에게 머리채를 뜯기는 엄마를 뒤로하고, 마루로 도망친 겁쟁들이었다. “현성아. 형 따라 귀 막고 있어.” 마음은 날이 섰지만, 책가방도 버거운 체구로는 엄마를 지켜낼 수 없었다.

양손으로 귀를 막은 형을 보니. 그래 이게 최선이구나 싶었다. 아빠라는 인간은 폭력적이었다. 기본에 따라 밥상을 엮었고, 날씨에 따라 엄마를 때렸다. 덕분에 우린 노래미처럼 가슴을 달래주며 눈치밥을 삼켜야 했다. 목을 쓰지도 않고 입 모양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불안 속에서 터득한 우리의 대화법이었다. 고막에 스며드는 엄마의 눈물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까지 솟아나진 않았다. 멀쩡한 접시가 몇 개나 깨졌는지. 심술을 부리던 열은 소나기가 그쳤다. 부엌문을 걸어차고 마당으로 나온 불안은 소주병을 들고 집을 나갔다. 불안이 사그라들었다.

우린 마룻바닥에서 엉덩이를 떼어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챙겼다. 들어선 부엌에는 물골이 상한 엄마가 꼭꼭 서러움을 참아내고 있었다. 겁쟁이들의 임무는 난장판이 된 부엌을 정리하는 것. 우린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자루에 담았다. 조금은 정돈된 엄마가 형과 나를 품에 안았다. 열린 부엌문은 바람이 통하는 골이라 아궁이에서 다시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엄마는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와 애호박을 썰었다. 아궁이에선 흰 실타래가 피어올랐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된장찌개 끓여놨으니까. 밥 챙겨 먹을 수 있지? 함께 먹자는 말에 엄마는 배가 부르다며 고무장화를 챙겼다. 일을 나가기 위한 엄마의 거짓말이었다. 그건 유행이 지나버린 거짓말인데.

엄마가 일을 나가자 집에는 형제만 남게 되었다. 구수한 된장찌개에 밥을 말고 있는 형에게 나는 엉뚱한 질문을 흘렸다. 만약 미래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냐고. 형은 웃으며 답했다. “타임머신이 개발된 미래로 갈 거야. 그걸 타고 스물둘에 엄마를 찾아가겠지. 그리고 엄마에게 말해줄 거야. 아빠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우연히라도 날 갖지도 말라고. 그럼 불행해질 거라고.” 형은 고추를 베어 물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나도 형을 따라 고추 하나를 집어 들었다. “아빠는 정말 비겁해. 분명히 엄마 손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텐데. 이제 그 손으로 엄마를 때리고 있잖아.” 알싸한 매운맛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다.

아빠는 동네 이장이었다. 머리가 파 뿌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완장을 찻다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보였다. 어쩌면 아빠가 취해 사는 건, 술이 아닐지도 몰랐다. 그건 그저 마을에

기미 꽃이 많이 피었기 때문인데. 아빠는 자신이 목단꽃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형은 수돗가에 앉아 수세미에 풍뎡을 켜다. 나는 풍뎡을 손에 비벼 비눗방울을 날렸다. 바람에 실려 간 비눗방울은 담벼락을 넘지 못하고 터져버렸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담벼락에서 엄마가 써놓았던 시의 한 구절이 눈에 담겼다. ‘불행이 만개한 나무에 한 번의 설렘이 불어온다면, 그 불행은 바람결에 우수수 떨어질 수 있을까.’

배가 부르자 따분함이 찾아왔다. 마당에 만들어진 웅덩이가 눈에 들어왔다. 유레카! 나는 형을 부추겨 장롱 위 신문지를 꺼내 마루에 앉았다. 형에 손을 따라 면을 접으니 종이배가 만들어졌다. 나는 선원이 없는 종이배를 웅덩이에 띄웠다. 신기하게도 종이배는 물에 젖지 않았다. 표정을 읽은 형이 작은 돌멩이를 배에 얹으며 말했다. “이렇게 작은 돌을 실어도 배는 가라앉지 않아. 장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야. 웅덩이에 부피보다 배가 더 가볍거든.” 몇 개의 명사를 제외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이 길어지기 전에 어서 화두를 돌려야만 했다.

새로운 주제로는 형이 사랑하는 비행기가 제격이었다. “형. 그럼 왜 종이비행기는 날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건데?” 주머니에서 종이비행기를 꺼내든 형이 담벼락으로 날리며 말했다.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중력이 놓아주질 않거든.” 손을 떠난 종이비행기가 담벼락에 부딪혀 추락하고 있었다. 덩그러니 떨어진 비행기를 바라보는 형의 얼굴은 어딘가 울적해 보였다.

타본 적도 없으면서 형은 비행 조종사를 꿈꾼다. 그런 형의 꿈이 의심스럽다가도, 방구석에 널브러진 항공 관련 서적들을 보면 그 꿈이 만만해 보이지 않았다. 책을 얼마나 훑어봤는지 마름 침이 굳은 얼룩이 여러 군데 있었다. “현성아, 형이 조종사가 되면 어디로든 날아줄게. 물론 엄마도 함께 말이야. 우린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무엇으로든 접할 수 있는 종이 인간으로 태어났거든.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접할 수 있어.” 형의 웅변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종이 인간이라는 형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길가에 버려진 박스를 좋아하고, 나의 몸엔 괴롭힘으로 새겨진 낙서가 가득하다는 점에서. 우리 가족은 눈물에도 쉽게 젖어버린다는 점에서.

*

낙엽이 손을 흔들고 겨울이 찾아왔다. 하늘에선 초소를 따라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마당 앞 살구나무는 떨어지는 눈꽃을 잡으며 소망을 모으는 듯했다. 강타한 추위가 시멘트 담벼락을 얼렸고, 온돌이 돌아야 할 안방은 냉기가 감돌았다. 자만했던 아빠는 완장을 내어주고 바보로 변해있었다. 마른 메주로 가득했던 마루 밑은 널브러진 소주병이 대신했다. 아빠가 패잔병 신세가 된 이유는 동네 선동꾼이었던 부녀회장의 입술임 때문이었다. 그동안 엄마가 뼈 빠지게 그 집의 일손을 도운 건, 모두 아빠의 연장선 때문이었다. 까칠해진 엄마의 손



을 보고 있자니 알뜰한 동네 어른들이 미웠다. 덕분에 엄마는 마늘 몇 망을 더 벗겨야 했고, 꼭두새벽부터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

시골에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몽글몽글하게 피어오른다. 굴뚝을 타고 들어온다면 산 타의 존재는 정말이었을까. 꼭 아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빌었던 나의 잔인한 소원을 들어주었다. 삼베옷을 입고 찬 바닥에 누운 아빠를 보고 든 생각은 이거였다. ‘화를 내지 않는 아빠 얼굴은 봐줄 만 하구나.’ 그렇게 아빠는 구덩이로 겨울잠을 떠났다.

썩은 기둥이 사라지자 집은 고요해졌다. 언제부터인가 엄마는 이상한 종교에 나가기 시작했다. 늦은 밤이 돼야 집으로 돌아오는 건 일상이었다. 차라리 다행인 점도 있었다. 학교에서 얻어온 상처와 멍 자국을 감추기엔 충분한 틈이 돼주었으니까. 형은 당장이라도 녀석들을 혼내주겠다고 뛰쳐나갔지만, 후레쉬에 배터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형은 엄마를 대신해 서랍에서 꺼내 온 물파스로 나를 씻겨주었다. 아무리 뽀뽀 문질러 닦아도 손등에 박힌 샤프심의 뿌리는 지워지지 않았다. 형은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다. 엉성한 실력이었지만 맨 쌀보단 나았다.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심화 과정으로 접어든 학교생활 때문이었다. 아빠의 죽음이 내가 왜 샌드백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점심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나를 중심으로 하나둘씩 무리가 모였다. “도시락이 이게 뭐야? 혹시 개밥을 잘못 들고 온 거야? 북한 애들도 이렇겐 안 먹겠다. 갈갈갈. 현성아, 김정일 개새끼 한번 해봐.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국물을 원샷 해야 할 거야.” 허끝을 델 만큼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태웠다. 한 시간. 내게 점심 시간은 너무나 긴 고문이었다. 뾰족한 볼펜이 살을 찌르고 손등에 샤프심은 고슴도치처럼 박혔다. 매직으로 그려진 낙서는 나를 이면지로 만들어버렸다. 조금만 노력해보아도 날아드는 주먹질에 온몸에 멍이 들었다. 그제야 난 새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몸에 퍼런 멍이 들어도 난 색종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방과 후 운동장은 한적했다. 유일하게 나와 같은 처지였던 동석이가 내 옆에 다가와 앉았다. 그래, 아직 우리에겐 보충수업이 남아있지. 우리 집으로 돌아가기 전. 서로의 동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나눴다. 동석은 내게 물파스를 내밀었고, 나는 동석에게 지우개를 건넸다. 부디, 내일도 학교에서 만나자는 우리만의 교감이었다.

*

뒤뜰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다. 기다란 나뭇가지를 든 형이 까치발을 들고 서 있었다. 지붕에는 착륙에 실패한 고무 동력 비행기가 걸려있었다. “어이, 종이 인간 나 좀 도와줘.” 형은 나를 불러 목말을 태웠다. 요란한 기합 소리와 함께 형은 지축을 밀며 우뚝 솟아났다. 젠장, 나뭇가지를 챙겼어야 했는데. 이후 우리 고무 동력 비행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세 번의 합체

를 더 해야만 했다.

늪뽕늪뽕 해가 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엄마는 여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인 형이 마루로 냄비를 들고나왔다. 현성아, 장독대에서 김치 좀 가져와. 나는 장독대 위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신김치를 가위로 잘랐다. 형이 끓인 라면은 흙탕물처럼 맹맹했다. 다행히 면발은 꼬들꼬들하게 잘 익어있었다. 우리 찬밥을 말았고, 국물까지 해치워 버렸다. 배가 울창이처럼 볼록해지고 나서야 우리 손가락을 멈췄다.

형은 장작을 가져와 드럼통에 불을 지폈다. 덕분에 얼었던 몸은 녹았지만, 마음에선 성애가 자라고 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도 의지할 곳이 필요한 거뿐이니까. 우리 봉어빵이나 사러 갔다 올까?” 그날 우리 봉어빵을 나가지 말았어야 했다.

겨울이면 버스 정류장 앞에는 달콤한 봉어빵 냄새가 퍼졌다. 슈크림이 들어가 노릇하게 잘 구워진 봉어빵의 냄새는 이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했다. “우리 꼬마 신사들은 뭘로 구워줄까?” 형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천원을 꺼내며 말했다. “슈크림 봉어빵 천원어 치요.” 주전자에서 반죽이 부어지고,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다. 두 개는 형이랑 나눠 먹고, 남은 하나는 엄마의 몫으로 남겨두어야지. 어서 포장된 봉어빵을 들고 집으로 발길을 재촉하고 싶었다.

악! 행복했던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짧은 비명이 들려왔다. 거리를 지나던 행인이 길바닥에 쓰러졌다. 곧이어 두 사람이 더 쓰러졌다. 정류소 앞은 붉은 피로 수채화가 뿌려지기 시작했다. “빌어먹을 것들! 썩어빠진 것들! 다 똥쳐버려!”

몽둥이의 무분별한 격제. 뉴스에서 나오던 문지 마 폭행의 현장이었다. 고요했던 정류장은 삼시간에 절망의 소나타가 연주되기 시작했다. 포근했던 겨울밤이 순식간에 망가지고 있었다. 이 잔혹한 연주회에 누구도 초대받지 않았었다. 도미노처럼 쓰러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건 사람이 아닌 괴물의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파르르 떨려오는 몸과 망부석처럼 굳어버린 다리로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었다.

조금씩 좁혀오던 불길한 예감은 결국 우리에게 닿았고, 순식간에 다가온 괴물이 퍽. 형의 머리를 속절없이 내리쳤다.

*

형은 뇌사상태에 빠졌다. 의사는 형이 제때 수술만 받았더라면 코마 상태에 이르진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보였다. 뇌에 고인 피를 빼주지 못해 번져버린 일이라고. 그날의 범인은 출동한 경찰이 쏜 고무탄을 머리에 맞고 현장에서 즉사해버렸다고 했다. 과녁이 사라져버린 지금. 이제는 누구를 탓해야 하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화살촉은 엄마를 향해 겨누고 있었다. 그날 엄마가 이상한 종교에 가지만 않았더라면. 그날 엄마가 엉터리 신에게 헌금을 받치지만 않았더라면. 적어도 형은 식물인간이 되진 않았을 텐데. 그날 엄마의 부재에 난 야유를 쏟아부었다.



내게 종이 인간이라고 말해주었던 형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망이 없다는 의사에 말에 엄마는 고개를 고덕거릴 뿐이었다. 엄마는 형의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새로운 삶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면서. 나는 그런 엄마의 결단에 화가 치밀어올랐다. 엄마가 무슨 아낌없이 주는 나무냐고. 종교에 헌금을 받치더니, 이제 형의 몸까지 나눠주는 거냐고. 마음 깊은 곳에서 불꽃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형이 떠나고, 줄곧 나는 엄마와 말을 섞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에 대한 원망은 얼룩이 되었고, 마음엔 곰팡이가 피어갔다. 나는 겨드랑이에 털이 나자마자 짐을 싸고, 무작정 외할아버지를 찾아갔다. 제발 부탁이니 대학교를 진학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소식을 전해 들은 엄마는 딱히 별다른 말이 없었다. 내가 집을 나오던 날 텃밭을 갈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내겐 마지막 모습으로 남았다.

나는 돈이 없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평행선을 벗어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었다. 부족했던 학비는 틈틈이 모아둔 아르바이트 비로 해결했다. 4년간의 기숙사 생활을 마치고 나는 졸업식을 맞이하고 있었다. 가족들과 사진을 찍는 동기들의 모습이 부럽지 않았다. 굳이 떠나갈 평행세계의 흔적을 애써 남겨둘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난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2년의 훈련을 더 버텼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얼룩을 사명감이 깃든 제복으로 몸을 감쌌다. 언젠가 넘어갈 저 평행선을 바라보며.

2장. 하늘에서 마주친 비밀

비행기가 창공으로 이륙하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공항청사의 발바닥 요정이라 불리는 지상직과. 몸살 난 항공기를 치료해줄 중·정비사. 안전한 불빛의 어머니라 불리는 램프 마스터. 그리고 탑재 화물팀의 헤르메스인 로드 마스터까지. 설렘이 깃든 이륙과 간절한 기대의 착륙은 이렇듯 보이지 않는 히어로들의 노고 덕분에 존재한다. 이들의 노력이 서로의 손을 잡아 이어지고, 둥근 벤다이어그램이 완성되면 비로소 우리는 안전한 벤다이어그램 속 원소가 된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감동의 이야기가 피어오르는 장소. 공항이란 사연을 만들어 내는 공장인 셈이다.

그런데. 캐리어를 끌고 들어선 공항은 고요하다 못해 메아리가 울린다. 시골벽적인 사람들의 활력으로 정신없어야 정상이거늘. 마치 낭만을 잃어버린 시골에 낡은 버스 터미널 같기도 하다. 오랜만에 오른 출근길에 탄산이 빠지고 있었다. “이현성 부기장이시죠? 동선이 여기서 겹치네요.” 낮익은 우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 황연수 기장님. 오랜만에 뵙니다.” 오늘 나와 함께 비행에 나설 선임 조종사 황연수 기장이었다. 하얗고 가는 모발이 그녀가 가진 경력을 증명하듯 반짝거렸다.

“이런, 아메리카노라도 사주고 싶었는데. 카페가 전부 문을 닫아버렸네요.” 다정한 미소와

부드러운 멘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녀의 유연함이었다. 생기있는 눈동자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머리칼. 분명히 평소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던 사람의 흔적이었다.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기장님과 함께 하는 비행이라니. 살짝 긴장되는걸요? 모쪼록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노프라블럼 엄지를 내밀어 보이는 그녀의 당당한 제스처. 윙크를 날리는 여유까지. 텅 빈 공항만 아니었다면 오늘은 완벽한 하루의 시작이었을 텐데.

내가 공군을 전역하고, 막 민간 항공사에 입사했을 당시(깍두기 머리였던 시절) 황연수 기장은 나의 부기장 클리어 테스트의 교관이었다. 여성이라는 점에 놀랐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와 간간함에 놀랐었다. 클리어를 마치고 기종이 같았던 우리는 종종 함께 비행을 가기도 했었다. 오늘 내가 그녀와 호흡을 맞추게 된 건 오랜만에 찾아온 행운이었다.

운항 승무원의 보폭에 맞추어 미팅룸으로 향하는 동안. 황연수 기장은 내게 은근히 농담을 던져왔다. “부기장, 공항이 이렇게 텅 비다니 낯설지 않아요? 비행 인생 25년 동안 이런 쓸쓸함은 처음이에요. 으스스한 게 꼭 좀비가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은근슬쩍 나도 농담을 섞어 답했다. “우리가 좀비일지도 몰라요. 기장님.” 황연수 기장은 기대하던 유머였는지 까르르 게걸스럽게 웃었다. 약마 교관과의 농담이라니. 나도 이제 어엿한 동료로서 그녀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짜릿했다.

이토록 공항이 아포칼립스가 돼버린 이유는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이었다. 물론 감염된 사람이 좀비로 변하진 않았지만, 백신이 없다는 점은 같았다. 처음 뉴스로 녀석의 존재를 듣게 되었을 때는, 먼 나라의 실연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설마 코앞까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사스와 메르스를 거뜬히 이겨낸 우리가 두려워할 상대는 아니라고 방관했었다. 하지만 녀석의 전파력은 우사인 볼트보다도 빨랐고, 트럼프보다도 막무가내였다. 소리도 없이 달콤한 일상을 훔쳐 가 버린 건, 흡사 과도 휘핑크림 은밀했다.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 일부 인원은 무급휴직에 들어갑니다. 일상의 빠른 회복으로 다시 하늘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휴직자 명단에는 내 이름도 있었다. 메시지를 읽은 나는 깜깜한 도림천을 무작정 내달렸었다. 다른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휴직 소식에 오히려 좋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에 대출을 감당해야 하는 나의 입장은 암담했다. 손에 쥐고 태어나버린 가난. 고작 날개 달린 직업 하나를 얻었다고 해서 뿌리칠 수는 없는 숙명 같이 느껴졌다. 정성으로 모래성을 쌓아가고 있었던건, 갑작스러운 밀물에 무너지고 있었다. 밤하늘에서 해수면을 가지고 장난치는 달이 앞뿔기만 했다.

한순간에 생업을 잃고 백수로 전락해버린 기분은 이랬다. 밀레니엄 난제를 마주한 수학자의 심정. 인테그랄과 시그마로 녹색 칠판을 가득 채웠지만, 풀리지 않는 방정식에 내뿔어지는 한숨. 필즈상을 기대했지만, 분필 가루만 흩날리고 있는 심정. 양파의 가격이 이렇게나 비쌌었나? 기내식을 먹으며 체류비로 우버를 시켜 먹던 지난날이 그리웠다. 당장부터 알뜰



하게 장을 보고 밥을 지어 먹어야 하는 처지였다. 인력사무소에는 일자리가 없었고 고용보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체념하고 하루하루 종이학을 접었다. 구백 마리의 학이 방바닥에 깔려갈 때쯤. 반가운 전화벨이 울려왔다.

“안녕하세요. 운항 승무팀 최빛나 팀장입니다. 회사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의 대응책으로 새로운 비행을 편성하려고 하는데요…….” 감격스러웠다. 평소에 최악의 노선으로 불리던 마닐라 킥턴이라도 좋다. 내게 따뜻한 기내식과 월급만 준다면 어디든 기꺼이 날아주마! 운항 승무팀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비상책으로 무착륙 비행을 편성했다. 말 그대로 인천에서 인천으로,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이었다. 아무리 자본력을 갖춘 메이저 항공사라도 계속해서 적자를 감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바이러스 때문에 무리하게 유통권 증권을 발행하며 버틸 수 없었을 테지.

수화기 너머로 최빛나 팀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무래도 이번 국내 무착륙 비행은 처음 시도하는 노선이라. 검보 항공기만으로, 소량 운행을 편성하게 되었어요. 부기장님 기종이 A380 맞으시죠?” 지난날 큰 체구 때문에 장거리 노선만 걸렸던 아쉬움이 증발해버리는 순간이었다.

*

황연수 기장과 함께 도착한 미팅룸에는 먼저 온 객실 승무원들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OJT(첫 비행)을 앞둔 신입 승무원의 모습도 보였다. 긴장한 자세로 눈만 동그랗게 뜬 모습이 꼭 토끼를 닮아있었다. 신입치곤 제법 뽀뽀하게 잘 다려진 스카프와 반짝이는 트레이니 배지가 그녀의 굳은 결심처럼 웅얼었다. “자, 다들 모이셨으니 이제 브리핑 시작합니다!” 황연수 기장의 경쾌한 목소리로 브리핑은 시작되었다.

객실 사무장의 브리핑은 깔끔하고 능숙했다. 오늘 항공기에 탑승하실 승객은 총 186석이고, 특이사항은 임신부 두 분입니다. 기내식을 제공할 땐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기장의 차례가 되었다. 오늘 신입이 있을 줄 알았다면 목에 꿀이라도 발라 놓을걸. “오늘 비행은 인천에서 출발해 강릉과 김해를 그리고 제주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무착륙 비행입니다. 현재 강릉은 IFR 기상으로 비가 약하게 오는 상태이며, 김해는 VFR이고 BKN이 2만 피트입니다. 오늘은 서해안을 지날 때 약간의 터블런스가 예상되오니, 승무원분들께서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는 신입의 모습. 잘 알아듣고 있는 걸까? 피식, 기분 좋은 웃음이 새어 나왔다.

브리핑을 마치고 모두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사무장의 비명이 모두의 걸음을 멈춰 세웠다. “으악! 오늘 비행에 부문장님이 함께 탑승하십니다! 오늘은 첫 비행인 아영 씨도 있는데…….” 객실 승무원들은 다급히 손톱을 지우고 어피를 메 만졌다. 부문장이라면, 코드원 출신에 사내에서 서열이 세 번째인 주요 임원이었다. 그가 사내에서 유명한 이유는 화려한 그의 스펙 때문이 아니었다. 권위적인 인품과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성격. 티끌만 한 흙집을 백두산으로 만들어버리는 집요함. 아마테라스 같은 인물이었다.

침울해진 분위기를 바꾼 건 황연수 기장이었다. 다들 동요하지 말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나의 마지막 비행과 신입 승무원의 첫 비행이 함께하는 날이니깐요. 화려한 은퇴식을 누구도 망칠 순 없어요. 각자 최선을 다하자고요. 감히 누가 높은 독수리는 불품없다고 했던가. 황연수 기장의 갈기에선 은빛 광택이 돌고, 여전히 부리마저 날카로워 보였다. 부문장을 향한 황연수 기장의 말이 날이 선 이유는 적벽대전 때문이었다. 여성 조종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부문장의 망언(여자가 이끄는 비행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시작된 치졸한 싸움이었다. 대군을 이끌고 나타난 부문장을 황연수 기장은 소수의 연합군만으로 격퇴해버렸다. 결국 이 사건으로 부문장은 스스로 명성에 흠을 남긴 셈이 되었다. 어쩌면 오늘이 둘의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비행기가 토잉카에 끌려 게이트로 들어왔다. 에어버스 회사에서 만든 A380의 모습이었다. 육중한 생김새와는 다르게 날렵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야무진 녀석이었다. 게이트에서 항공기로 파킹 램프가 연결되고, 승무원들은 미소를 장착하고 항공기에 탑승을 시작했다. 미리 기내 청소를 마친 노동자들이 우르르 몰려나오고 있었다. 얼룩 없는 맑은 비행을 할 수 있음에 나는 짧은 목례로 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황연수 기장과 나는 각핏에 들어와 분주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푸시백을 앞두고 꼼꼼히 비포 스타트 리스트를 체크했다. 왼쪽으로는 탑승을 시작한 승객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엔 분명 미소가 피어있었다. “겨우 그 정도 미소로 손님들에게 칭송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차야 여덟 개가 보이도록 미소를 보이란 말입니다.” 뒤이어 부문장이 평가지를 흔들며 기내에 올랐다. 인터폰으로 사무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장님 부문장님을 포함한 승객 187명 모두 탑승 완료하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황연수 기장이 인터폰을 잡았다. “짐승 한 명은 빼도록 하죠. 부문장이 탑승했다고 긴장들 하지 마시고 굿 플라이 합시다.” 인터폰에서 사무장의 콧방귀가 새었다. 오케이 사인을 확인하고 나는 이륙을 위한 관제탑과의 교신을 시작했다.

P : Clearence Delivery, 한국항공 KE852 케피털타워 제주공항까지 IFR 비행허가를 요청합니다.

T : 한국항공 KE852 비행허가하며, 이륙후 12,000ft로 상승하고 18RWY 헤딩을 유지하고, 17분 후에 FL310로 상승하십시오. Squawk부호 3277입니다. 좋은 비행 되십시오.

오랜만에 잡아보는 조종 스틱의 촉감이 반가웠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아름답게 이륙했다. 하늘엔 창공을 따라 푸른 피카소의 물감이 뿌려져 있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진입하고 난 오토 파일럿을 켜다. 지금부터 A380의 비행 실력을 느껴볼 시간이었다. 조종사가 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끝내주는 순간들이 존재한다. 불그스름한 해가 저무는 황혼의 시간, 흑만의 커튼 아래로 펼쳐진 오로라의 춤사위, 밤하늘에 뿌려진 무수한 별들의 향연. 구름을 내려보며 맛보는 아메리카노는 조종사만의 베네핏이었다.



“이쯤 어딘가 부기장의 고향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땅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황연수 기장의 말에 나는 서해안을 내려다보았다. 내게 고향은 종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습지대였다. 얼룩으로 가득한 빈민촌이었다. 그런 얼룩뿐인 고향의 상공을 난 여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서해안에서 강릉으로 방향을 틀자 갤리에서 인터폰이 울려왔다. 사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기장님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 항공기에 무임 승차한 사람이 발견됐어요.” 오금이 저려오기 시작했다. 사실을 전달받은 황연수 기장도 이마를 굽었다. 하필 부문장이 탑승한 날의 사고라니. 아찔했다. “부문장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무장이 속삭이듯 답해왔다. “아직요, 부문장님은 좌석에서 승무원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황연수 기장은 사무장을 콧짓 안으로 불러 긴급회의를 나누기 시작했다. 쉽사리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 눈치였다. 하필 이런 상황에 화장실이 마렵다니. 바깥 마른 목에 들이마신 물 때문이었을까. 나는 사무장에게 좌석을 내어주고 조종실을 나왔다.

조르륵 물줄기에 희석된 근심은 쉽사리 끊기지 않았다. 애써 불안함을 털어 낸 뒤 나는 다시 콧짓으로 발을 끌었다. “손이 너무 차세요. 따뜻한 물이라도 드릴까요?” 갤리에서 신입 승무원 아영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아영은 부정 승차한 범인으로 보이는 노인의 손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해결될 거예요.” 아영은 혼자서 청심환이라도 먹은 걸까. 첫 비행을 나온 승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침착한 태도였다.

파르르 몸을 떨던 노인이 인기척에 놀라 몸을 경직시켰다. 곧이어 나와 시선이 마주 닿았다. 잔뜩 겁에 질린 미어캣의 모습. “어? 부기장님.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십니까?” 나는 아영에게 손을 저었다. 콧짓으로 돌아가려는 발걸음은 왜 이리도 무거운 걸까. 노인은 어쩌다 부정 승차의 범인이 되어버린 걸까. 여러 상황과 사단을 파헤치고 싶었다.

노인은 아영이 주는 따뜻한 물을 두 손으로 건네받아 입을 축였다. 나는 마스크를 내린 노파의 얼굴을 훑어본다. 그리고, 소스라침에 놀라 안구의 실핏줄이 터지고 말았다. 많이 변했지만, 너무도 익숙한 얼굴. 우연히 하늘에서 마주치게 될 줄이야.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또 마주칠 일도 없었던, 평행선 너머에 두고 온 나의 얼룩이었다.

*

3장. 천마리의 학

나는 당혹스러움을 껴안고 콧짓으로 발길을 돌렸다. 조종실에선 황연수 기장과 사무장이 하얗게 질려있는 나의 물골을 걱정했다.

“몸이 안 좋으세요? 소화제라도 가져다드릴까요?” 사무장이 조종실을 나갔다. 저 멀리 평행선에 두고 왔던 엄마가. 도대체 왜? 지금 이곳에 있던 말인가. 도대체 왜? 무임 승차한 범인으로 탑승해 있다는 말인가.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다시 갤리에

서 인터폰이 울려왔다. 황연수 기장이 인터폰을 뽑아 들었다. 어떤 단서여도 좋다. 제발 이 복잡한 연출을 누구라도 빨리 설명해주길 바랐다. 인터폰을 귀에 붙인 황연수 기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거린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터블런스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한동안 고개를 끄덕이던 황연수 기장은 인터폰을 내려놓았다. 사선으로 나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 “부기장 비행에 집중하세요. 교육생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가요? 안색이 창백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우린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조종사입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황연수 기장의 말에 정신이 번뜩인다. ‘그래 지금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던지. 난 내 임무에 집중하면 그만이야.’

잠시 뒤 사무장이 콧짓으로 들어왔고, 황연수 기장을 대신해 뒷자리에 앉았다. 상황을 눈치챈 부문장이 이 항공기의 총책임자인 황연수 기장을 갤리로 호출시킨 것이었다. 하필 화려했어야 할 그녀의 마지막 비행에. 나의 엄마가 걸림돌이 돼버리다니. 무표정한 얼굴로 콧짓을 나가는 황연수 기장의 뒷모습에 나는 깊은 곳에서 미안함을 우려내고 있었다.

콧짓에는 나와 사무장이 남게 되었다. 곧바로 사무장에게 목구멍에 걸려있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지만. 우선 비행기의 안전한 순항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였다. 내가 고도를 확인하고 관제탑과 교신을 마쳤을 때, 사무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황연수 기장님은 괜찮으실까요? 부문장님이 난리가 났으니까요. 무임 승차한 승객의 소지품을 탈탈 털면서까지 반응하시고 있어요. 비행기에 폭탄을 가지고 탑승한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제 눈에 마냥 겁에 질린 노인 같았거든요. 그것도 약의 없이 순수한.”

사무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묵혀두었던 답답함을 사무장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격양된 반응을 보이자 사무장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침착한 어투로 내게 말했다.

“부기장님이 직접 인터폰으로 들어보세요. 제가 콧짓에 들어오기 전에 갤리에서 인터폰을 울려두고 왔거든요. 물론 함부로 엿듣는 게 좋은 방법이진 않지만, 저도 상황이 걱정스러워시죠.”

집어 든 인터폰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부문장의 날카로운 지적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날카로운 부문장의 목소리에도 황연수 기장은 한동안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황연수 기장. 항공기에 부정 승차한 승객이 있다고. 왜 바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은폐할 생각이었던 겁니까? 내가 탑승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라도 한 겁니까? 어디 한번 설명해보세요.”



말이 없던 황연수 기장이 답을 시작했다. “이 항공기에 책임자는 기장이예요. 제가 바로 그 기장이고요. 더 질문이 남았나요?” 그녀의 단호한 어투에 부문장은 단단히 봉기를 잡고 일어섰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엄연히 직급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당신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항공기에 부정 승차한 승객이 발견됐다는 건 매우 중대한 사건이예요! 당신을 포함한 승무원 모두가 꼼꼼하게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죠! 이 노망난 노인네 때문에. 당신과 내 앞날에 흠집이 날 수도 있던 말입니다! 알아들겠어요?”

부문장의 말은 알곶었지만, 그렇다고 틀린 말도 없었다. 그렇기에 나는 더욱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둘 사이에서 잠깐의 냉혈한 기류가 흐르고 인터폰에서 다시 황연수 기장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역시나 그녀는 여전히 부리가 날카로운 독수리였다.

“이분은 노망난 노인네가 아닙니다. 항공기 청소 노동자죠. 그리고 이건 부정 승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니까요. 이분은 하루에도 수십 대의 항공기를 청소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다 과로로 인해 아무도 없는 벙커에서 쓰러져버렸죠. 우리 승무원들의 잘못이라고요? 오히려 잘못된 청소부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한 회사에 있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경고하나 하도록 하죠. 무사히 비행이 끝나면, 회사의 노동력 착취로 인해 생긴 이 문제를 낱알이 파헤칠 겁니다.”

“뭐라고? 당신 미쳤어? 사태 파악이 안돼? 일개 기장 따위가 회사를 상대로 칼춤이라도 춰보겠다는 소리야? 일 더 커지기 전에 당장 비행기 비상착륙 시켜! 이건 상사로서의 명령이야!”

갤리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갤리와 가까운 비즈니스석에 승객이 타 있지 않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부문장의 언성에 객실 승무원들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은빛 독수리는 천적에게 맞서기 시작했다.

“부문장, 뭔가 잘 못 알고 있나 본데. 적어도 이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까진 내가 하늘의 법관입니다. 순항 중에 기내에 난동 승객이 발생하면 주취자를 전기충격기로 제압하고, 케이 불타이로 묶어버릴 수도 있어요. 매사 매뉴얼만 따지는 부문장이 이런 사실을 모르진 않을 텐데요? 부문장 당신은 업무시간에 삼페인이나 훌쩍이면서 승무원들을 못살게 군 주폭일 뿐이예요. 계속 난동을 부릴 생각이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난 마지막 비행을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황연수 기장의 논리에 부문장은 아무런 대꾸 없이 신음만 들끓고 있었다. 비록 문제의 뿌리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비행기는 제주공항과의 교신을 마치고 다시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다시 카펫의 문이 열렸고, 황연수 기장이 조종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게 던지시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부기장,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만약 내가 엄마라면 많이 서운할 것 같은데요.” 황연수 기장이 낯은 사진 한 장을 내게 건네주며 말을 이어갔다. “특별한 승객이 흘린 사진입니다. 부문장이 어질러 놓은 승객의 짐을 주워주다가 발견했죠. 이 사진, 부기장 졸업식 때 모습 맞죠? 지금이랑 똑같네.” 황연수 기장에게 사진을 건네받은 나는 마음이 시금해지고 있었다. 형이 죽었던 날처럼 누군가 나의 머리를 몽둥이로 내려친 기분이었다. 낯은 사진 속 엄마는 졸업식을 배경으로 가지런히 그 시간 안에 묵묵히 서 있었다. 저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푸른 제복. 멀리서 찍힌 스물셋의 나였다.

차분해진 마음에선 먹먹함이 피어올랐다. 눈앞에 마주한 그리움에 왈칵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마음에는 실금이 가고 있었다. 이십 년이 넘도록 삭아버린 원망이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르곤 하죠. 부기장의 운명에 나와 내 딸도 함께 연결된 것 같고.” 황연수 기장이 말했다. 오늘 비행기에 무임승차를 한 나의 엄마가 자신에게 귀한 승객이라고. 오늘 첫 비행에 오른 자신의 딸에게 새 생명을 전해준 감사한 산타클로스라고. 오늘은 자신의 마지막 비행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감동적인 비행이 될 거라고. “아영이는 제 딸이예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죠. 엄마를 따라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런 몸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현수 씨. 부기장의 하나뿐인 형 맞죠? 현수 씨에게 전해주세요. 덕분에 아영이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아영의 몸속에는 형의 꿈이 깃들여 숨 쉬고 있었다.

그리운 나의 형. 황연수 기장의 손이 나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자, 나는 이 비행기의 기장으로 임무에 충실해야겠습니다. 터볼런스는 지나갔으니, 어서 당신의 운명에게 달려가 보세요.”

카펫으로 사무장이 들어오고 나는 엄마에게 달려갔다. 형에게 꿈을 전달받은 아영이 엄마에게 음료를 건네고 있었다. 마스크로 그리움을 가린 탓일까. 여전히 엄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마스크를 벗었고 오랜만에 소리에 그리움을 실었다. 엄마, 엄마. 나의 엄마.

이제야 나를 알아본 엄마. 무너진 엄마의 눈물 댐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엄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죄인처럼, 그간의 농축된 서러움을 토해내고 있었다. “우리 아들 현성이. 정말 잘 커 줬구나.”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아윈 노파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물었다. 도대체 졸업사진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날 엄마가 길을 좀 헤맸어. 너에게 근사한 꽃다발이라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늦어버린 탓에 상인들이 모두 자리에 없더구나. 그래서 지나가는 청년에게 부탁했지. 버릴 꽃이라면 내게 팔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널 발견했단다.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당장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는데. 도무지 네 앞에 다가가 설 자신이 없



있어. 많이 외로웠지? 엄마가 미안해, 아들.”

마음에 실금이 이어지고 균열이 생겨났다. 풍덩. 얼어있던 빙산 조각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린다.

“그래도 전 엄마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이상한 종교에 빠지지만 않았더라면, 형의 수술비를 몽땅 받치지만 않았더라면. 그렇게 형이 죽어버리진 않았을 테니까요. 아직도 엄마는 그 신을 믿고 있나요.”

나의 기억 속에서 텃밭을 갈고 있던 엄마는. 앙상한 가지가 되어 자리에 앉아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묻고 싶었다. 시멘트 담벼락에 엄마가 써놓았던 시의 구절처럼. 지금 엄마는 만개한 불행이 우수수 떨어져 내린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어째서 말라버린 나무가 된 채 내 눈 앞에 앉아있는 거냐고. 엄마는 웅크린 자세로 나를 올려보며 말했다.

“엄마는 신을 믿지 않아. 어떤 신에게도 간청한 적 없었지.”

“거짓말 마세요. 아직도 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새하늘원. 엄마가 미쳐있던 그 종교잖아요. 게다가 두둑했던 그 돈 봉투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전 그날의 조각을 전부 기억하고 있는걸요.”

엄마는 아무런 대꾸 없이 잔에 따라진 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곁에 있던 아영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갤리에 놓인 음료수 페트병 하나를 집어 들었다.

“이거 말이니? 엄마가 처음 취직했던 음료 공장이었단다. 시작은 공장에 청소부로 일을 나가기 시작했었어. 없는 살림에 입에 풀칠은 해야 했으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꽃이 필 줄 알았었지. 그런데, 현수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야. 정말 지옥 같은 그 일이. 슬픔보다 괴로웠던 건, 텅없이 부족한 병원비였어. 현성이 네가 기억하는 그 돈 봉투는 말이야. 엄마가 처음으로 세상에 도전한 이력서란다. 쓰는 방법을 몰라 몇 장이나 써서 면접을 보러 갔었지. 그게 돈 봉투였다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마음속에 녹슬어있던 사슬이 탁. 소리와 함께 끊어져 버렸다. 오랫동안 사슬에 묶여있던 소년의 눈동자는 불꽃과 그늘음이 함께 타고 있었다. 정신없이 흐트러졌던 기억의 쌀알들이 서러움에 가라앉기 시작한다. 송송 뿜렸던 구멍에 부스러진 종이 가루가 모여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진정 내뿜고 싶었던 속앓이는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버려 잘 나와주지 않았다.

“그런 사실들을 왜……. 왜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오늘 까지도 엄마를 원망하며 살고 있었다고요!”

“울지마 아들. 엄마도 잘 알거든. 원망할 대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적어도 현성이 넌, 누군가를 실컷 원망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했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엄만 네게 너무 감사해. 하필 오늘, 네게 또 한 번 얼룩이 돼버려서 미안하구나…….”

여름보다도 뜨거운 게 있었다.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 아리는 건지, 쓰라린 건지, 이대로 녹아버릴 것만 같았다. 들리지 않는 형의 음성이 어디선가 내 귓가에 스며들고 있었다. ‘현성아, 엄마도 의지할 곳이 필요한 거야. 엄마는 우리가 지켜줘야지. 부탁한다 동생아.’ 건드릴 수 없이 몸을 태우던 열기가 차츰 누그러지고 있었다. 갤리를 지키고 있던 아영이 내게 손수건을 건네주었고 다시 엄마에게 다가가 말했다. “시들어있던 제게 날개를 달아주신 마음.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행기는 서해안을 지나 인천국제공항 상공으로 진입을 시작했다. 각픽을 지켜준 황연수 기장과 사무장 덕분에 나도 고향의 상공을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다. 황연수 기장은 내게 엄지를 치켜세웠다. 나도 그녀에게 엄지를 내밀어 보인다. 그녀가 나의 손에 인터폰을 쥐여 주었다. 승객들에게 비행기가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기내 방송을 맡긴다는 의미였다. 나는 마음을 정돈시켰다. 그리고 인터폰을 들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있는 부기장 이현성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모두가 잃어버린 달콤한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오늘 이 비행기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함께 탑승해 계십니다. 비록 그녀의 옷차림은 형광색 조끼를 입고, 땀이 마른 얼룩뿐이지만. 제겐 아주 소중한 손님입니다.

빛물이 새는 삶에서도, 골판지가 돼주셨던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오늘에 저는 승객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착륙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착륙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비행기 안에서는 승객들의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도 봄날이 찾아오고 있는 걸까? 나는 활주로의 불빛을 보며 다짐했다. 저 멀리 평행선에 갇혀있던 엄마를 위해. 천 번이라도 몸이 접히겠다고. 천마리의 학이 되어, 엄마의 소원을 꼭 이뤄주겠다고. ‘우리에게도 늦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끝.



미조

일반부 우수상
소설 / 봉민성

1. 날개

점심 식사를 마친 2시쯤이 하루 중 가장 졸린 것 같다. 푸른 하늘과 얼굴에 닿는 바람, 그리고 공기를 밀어내는 편안한 날갯짓이 느껴졌다고 졸음에서 깬 나는 생각한다. 사무실 책상 위에서 분주히 돌아가는 작은 선풍기가 보인다. 그 옆에는 나처럼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든 멧비둘기가 보인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작은 가슴을 반쯤 감긴 눈으로 바라본다. 손목의 스마트워치에서 오후에 화물을 점검하러 내려가야 한다고 알림을 보내온다. 아래로 자연스레 향한 시선이 손등에 난 작은 상처에 머무른다. 어라, 이걸 언제 생겼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긁혔겠거니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빠져나간다. 새끼손가락에 묶인 붉은 스웨터 실이 걸음에 맞춰 흔들거린다. 실을 따라 창밖을 바라본다. 적당히 구름 낀 푸른 여름 하늘을 빨간 털실이 가로지른다. 연인은 지금쯤 출국 준비를 잘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엘리베이터에 탄다. 안에는 참새 몇 마리가 지저귀며 손잡이 봉에 앉아 있다.

공항으로 가는 화물들은 튼튼한 소재의 컨테이너에 담긴다. 허리까지 오는 상자에는 수화물 고리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화물 태그 카드’가 하나씩 달려 있다. 카드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화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오후 업무는 각 컨테이너가 지정된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도록 확인하고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화물이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알 수 없는 곳에서 발견될 테니 말이다.

화물 집하장으로 내려와 문을 열고 들어간다. 제리가 앉아서 천천히 적치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근처 바닥에 떨어진 흰색 깃털 몇 개를 줍는다. 그녀의 까만 눈이 보인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인사를 건넨다. 제리는 고개를 느리게 들어 올린다. 나는 작업 조끼의 지퍼를 잠그고 안전모를 쓴 뒤 낮은 단 아래에 있는 컨테이너 적치 구역으로 가볍게 뛰어내린다. 그러다 밑에서 굴뚝째 돌아다니던 통통한 평 한 마리를 놀라게 하고 만다.

일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다. 내 책상에서 졸고 있던 멧비둘기는 가고 없다. 퇴근까지 남은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 간간이 들려오는 방울새의 울음소리가 무료한 오후를 허전하지 않게 하는 듯하다.

2. 여름새

공항에 도착하고 나는 예상보다 많은 여객의 수에 놀란다. 생각해 보면 공항으로 화물은 정말 많이 보내고, 가끔 화물 터미널은 찾아가지만, 막상 여객 터미널에 간 적은 거의 없었다.

커피 두 잔을 주문해 놓고 주변을 살핀다. 사람들은 저마다 캐리어와 가방 등을 가지고 누구는 바쁜 걸음으로, 누구는 여유롭게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걷는다. 신나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난다. 연인과 출국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게이트가 열릴 때마다 해오라기들이 삼삼오오 걸거나 날아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내가 입국장으로 잘못 찾아온 듯하다. 벤치에도 긴 비행을 마치고 잠시 날개를 쉬고 있는 여름 철새들이 여럿 보인다. 여름새는 남쪽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오기 때문에 다들 많이 지친 상태이다. 분주한 주변 광경에 넋을 놓고 있다가 커피숍 직원이 내 주문 번호를 세 번쯤 외치고 나서야 커피를 챙긴다. 땅에 서 있을 때는 고등어를 닮은, 붉은 눈을 깜빡거리며 멀뚱하게 있는 해오라기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로 향한다. 입국장은 1층, 출국장은 3층에 있다.

연인의 모습을 찾아 두리번거린다. 수화물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외국인과 가볍게 부딪혀 사과를 건넨다. 카페와 식당에는 사람이 가득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무리도 보인다. 여행 전의 설렘으로 한껏 들뜬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을 띠고 지나간다.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는 정장 입은 사람들도 꽤 있다. 이런 다양한 모습에 신기해하는 나 자신을 보며 ‘공항’에 정말 오랜만에 왔다는 걸 다시 체감한다. 오목눈이 한 마리가 포로롱 날아 나무 틈새로 사라진다. 공항 실내에 나무가 꽤 많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다.

붉은 스웨터 털실이 팽팽해진다. 왜가리 한 마리가 분수대에서 사뿐히 세 발짝 걸다 크게 날갯짓하며 날아오른다. 그 회색 바람 사이로 연인의 모습이 보인다. 연인은 큰 캐리어를 곁에 둔 채 분수대 옆에 앉아 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간다. 검은 머릿결, 중단발, 큰 눈, 하얀 피부, 내 품에 쏙 들어오는 키. 급하게 준비하고 나왔는지 머리카락은 적당히 부시시하고 웃은 긴 비행을 대비해 편안해 보인다. 가벼운 화장에 안경을 썼다. 귀에는 귀마개를 끼고 있다. 그녀가 문득 뒤를 돌아보고 나를 알아본다. 귀마개를 빼며 손을 흔든다. 그녀의 새끼손가락에 묶인 붉은 스웨터 실이 함께 흔들리고 내 손가락 사이를 간지럽힌다.

우리는 다가가 포옹한다. 이야기를 나눈다. 3년간 함께 살아서 대단히 특별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는다. 점심은 무얼 먹었는지, 오늘은 어떤 화물을 처리했는지, 공항에 온 소감은 어떤지 등등. 그녀와 나누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대화가 즐겁다. 우리는 분수대 끝에 걸터앉아 커피를 마신다. 이룩까지 시간이 꽤 남아 여유는 있다.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목젢을 홀고 식도를 타고 내려간다. 이가 좀 시리다. 문득 나는 곧 그녀가 먼 외국으로 떠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다는 걸 실감하고 서글퍼진다. 연인은 내 어깨에 팔을 두른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그녀에게선 이름 모를 보라색 들꽃의 향이 난다.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 분수대 끝에 앉아 물을 마신다. 이 친구도 오랜 비행으로 지쳐 있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연인에게 기대었다. 연인의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진다. 평소보다 그 속도가 빠른 듯하다.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 그녀는 울음을 잘 참는다. 나는 눈물이 뒤늦게 오는 편이다.

해 질 녘이 되자 새들이 하나둘 잠을 자러 떠난다. 물떼새들은 갯벌로 향할 것이다. 산새는 산으로, 올빼미나 부엉이는 숲에서 잠이 깨어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작은 연작류 새들은 공항 내의 나무에 있는 저마다의 동지를 찾거나,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의아한 양증맞은 날개를 파닥이며 공항 밖으로 날아간다. 나는 연인과 저녁 식사한다. 연인의 외국 생활 계획



에 관해 묻는다. 나의 홀로 살기 생활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약은 잘 챙겼는지, 수량은 넉넉하게 있는지 연인에게 묻는다.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웃어 보인다. 나도 웃는다. 우리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미래에 대해 밝게 이야기하려 노력하며 밥을 먹는다.

식사를 마치고 출국장 게이트로 걷는다. 잠에서 깨어나 막 활동을 시작하려는 야행성 새들의 울림 있고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게이트 앞은 이별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떠나는 사람과 배웅하는 사람이 있다. 웃는 사람, 우는 사람, 쓸쓸하게 서 있다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 멀리서 한참 손을 흔들며 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소쩍새가 운다. 소쩍, 소쩍. 나는 이번엔 눈물이 조금 올라온다. 참을 수 있다. 코끝이 찡하고 재채기가 나올 듯하지만, 헛기침으로 내려보낸다. 포옹, 입맞춤, 손 인사. 당부의 말 몇 마디가 오고 간다.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밤에 돌아다니면 안 돼, 술 너무 많이 먹지 마, 차 조심해야 해. 걱정과 아쉬움으로 하는 말들이지만 어째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죄다 잔소리 같다. 연인을 믿고 군말 없이 멋지게 보내리라 생각하고 배웅하러 왔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긴 떨어짐의 시간이 시작하는구나, 생각하던 찰나, 그녀가 마침내 울음을 터트린다. 나는 있는 힘껏 그녀를 껴안는다. 그리고 나도 운다.

3. 비행

연인을 보내고 나 또한 한동안 열리고 달히는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쉽사리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라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걱정까지 진심으로 하고 있다. 많은 사람과 새들이 게이트를 통해 나갔다. 나는 이륙하는 비행기를 잘 볼 수 있다는 전망대로 향한다. 공항은 정말 넓다. 안에서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다. 까치 몇 마리가 총총총 뛰어 앞서간다. 그러더니 멈추어 나를 한번 올려다보고 까각 하고 운다. 나는 웃어 보인다. 새들의 눈망울이 맑고 예쁘다고 생각한다. 까치들은 가던 길을 간다. 나도 가던 길을 간다. 전망대에 도착해 음료를 하나 시키고 자리에 앉는다. 항공사 이름은 알고 있지만 비행기의 겉모습만으로 연인이 탄 비행기를 찾는 건 어렵다. 다행히도 노을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붉은 스웨터 실이 한 푸른 비행기로 이어져 있다. 나는 그녀의 이륙을 바라볼 수 있음에 안도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가 타 있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푸른 비행기를 바라본다. 하늘을 날 때는 멋지고 웅장하고 무엇보다 빠르지만, 땅에 있을 땐 후진조차 할 수 없어 다른 차량이 바퀴를 밀어주어야 하는, 덩치 큰 인간의 새가 굼뜨게 움직인다. 나는 칼새에 대해 생각한다. 칼새는 삶의 대부분을 공중에서 비행하며 산다. 그에 맞게 진화한 날개와 깃털은 양력을 잘 받기 위해 크고 넓다. 동시에 다리는 퇴화하여 땅에서는 거의 기어 다니는 수준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다. 대신 그들은 절벽에 매달릴 수 있도록 발가락이 앞으로 변형되었다. 그들은 비행하며 먹고, 자고, 사랑을 나눈다. 절벽에 매달려 집을 짓고 알을 낳는다. 그리고 다시 이륙해 최대 4년까지 땅에 내려앉지 않고 비행한다.

붉은 스웨터 실이 흔들린다. 푸른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나는 좋지 않은 시력으로 비행기 창문을 열심히 본다. 탐조용 망원경을 가져올걸, 하는 생각을 한다. 연

인이 창가 자리인지 통로 자리인지도 확실히 몰랐지만 분명 그녀라면 창가 자리를 선호했을 것이다. 아니다, 어쩌면 아무 데나 상관없다고 하며 웃었을지도 모른다. 푸른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다 추진기에서 뜨거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쪽 뺨은 활주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한다. 마지막 순간 스쳐 지나가는 비행기 창문에서 어렵듯이 그녀의 눈을 본 것 같다. 그 맑은 눈 또한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노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간이 만든 푸르고 거대한 새의 도움닫기. 이어져 한없이 늘어나는 붉은 스웨터 털실. 마침내 푸른 새는 땅에서 구르는 세 발을 들고 공중으로 매끄럽게 뜬다. 우아하다.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궤적이다. 서두르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는다. 그렇게 천천히 연인은 푸른 새에 올라타 아름답게 멀어져 간다. 붉은 스웨터 실이 흔들거리며 그녀와 나를 잇는다. 나는 이번에도 눈물을 참지 못한다. 비행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가에 서 있다가 의자로 돌아와 앉아 조금 더 운다. 작은 연갈색 생물 한 마리가 내 테이블 위로 날아와 앉는다. 황조롱이다. 날렵한 부리와 몸통에 어울리지 않는 크고 맑은 눈망울을 바라본다. 연인을 닮았다. 나는 왜인지 모르게 팔을 내민다. 그 작은 매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내 팔을 바라보더니 사뿐히 올라탄다. 발톱이 날카로워 조금 아프지만, 기분은 한결 좋다.

황조롱이를 팔에 얹은 채로 나는 공항 단기 주차장으로 걸어 나온다. 녀석은 내 팔이 좋은지 날개를 적당히 흔들며 계속 앉아 있다. 노을은 아름답게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서쪽 하늘과 구름을 주홍빛으로 물들고 있다. 그 아련한 빛깔 사이로 이어지는 붉은 스웨터 털실을 바라본다. 공항 주변은 고도 제한 때문에 높은 건물이 없어 수평선 끝까지 시야가 닿는다. 이 뺨 뚫린 한적한 풍경을 나는 아주 좋아한다. 황조롱이의 큰 눈망울에 아름다운 하늘이 담긴다. 오묘한 기분을 느낀다. 연인을 만나고 사랑에 빠진 후 이제껏 한 번도 오래 떨어져 있던 적이 없었다.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가 다였다. 그녀가 막 떠났지만 벌써 허전함이 느껴지는 듯하다. 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주차장에서 내 차를 찾아 기대어 잠시 쉰다. 내 팔에 앉아 있는 연갈색 생물은 그루밍을 하거나 날개를 펼쳐 보기도 하며 여유로워 보인다. 날개를 쪽 펴면 내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데, 그마저도 기분이 좋다. 미소를 띠고 황조롱이를 바라본다. 연인을 닮은 큰 눈망울 안쪽을 깊이 들여다본다. 내 뒤편에는 교감이라 생각되는 녀석과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차 문을 연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어지럽힌다. 황조롱이를 쓰다듬고 이제 날려 보내려 팔을 위로 힘차게 올린다. 황조롱이는 뛰어올라 날개를 크게 펴고 바람을 타더니, 순식간에 공중에서 몸을 반대로 돌리며 날개를 완전히 펼친 채 맞바람을 이용해 가만히 뜬다. 나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 뒤로 한 발짝 물러난다. 날개 안쪽은 회백색에 갈색이 드문드문 섞여 있고 깃털 끝은 검은색이다. 황조롱이의 활공하는 실루엣이 몇 남지 않은 저녁 햇살을 완전히 가린다. 마치 후광처럼 주홍 노을빛이 둥그런 머리와 날카로운 부리를 비춘다. 숨이 멎는 듯한 아름다움에 나는 압도당한다. 가까이서 황조롱이의 펼친 날개를 본 건 처음이다. 황조롱이도 맹금류라는 사실이 새삼 떠오른다. 녀석은 공중에서 머리를 고정하고 가만히 정지 비행하는 광경을 연출하더니 몇 번의 날갯짓 이후 차 지붕에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 봉 위에 유유히 내려앉는다. 날개를 접으니 다시 둥그렇고 조그만 연갈색 생물로 돌아온다. 고



개를 왼쪽으로 까딱하더니 깨럭 하고 운다. 나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한다. 아무래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 황조롱이를 차 옆자리에 태우고 집으로 향한다. 출발 전에 물이라도 좀 줘 보려고 작은 캠핑용 반합 뚜껑에 물을 따라 주었다. 녀석은 곧잘 마셨다. 황조롱이는 먹이로 작은 설치류나 벌레를 먹었기에 당장은 마땅히 줄 것이 없어 아쉬웠다. 딱히 배가 고파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다. 40여 분 정도를 차로 달려 한적한 동네에 있는 나의 집에 도착한다. 황조롱이는 내내 암전히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들고 창 밖의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다. 나도 운전석 창문을 열어두고 지평선 너머까지 이어진 붉은 스웨터 털실을 가끔 바라보며 여유로운 드라이브를 즐겼다. 발톱 때문에 차의 시트는 좀 엉망이 되었지만, 난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팔을 내민다. 역시나 사뿐하게 올라타는 녀석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본다.

내 집은 공항에서 꽤 가까운 곳에 있다. 항공 물류업을 하는 회사 사무실이 공항 근처에 있었고 그에 따라 나도 출퇴근이 편한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공항 근처에 거주하면 항공기 소음 때문에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활주로 양 끝단과 그 연장선 부근에서만 소리가 크고, 좌우로는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소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황조롱이를 쳐다본다. 그 맑은 눈동자의 날짐승은 여전히 내 곁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나는 내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피식 웃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선다. 내 집은 4층 건물의 꼭대기 층에 자리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낮은 현관문을 연다. 잘 정돈된 나의 아늑한 집이 모습을 드러낸다. 침실 겸 거실, 그리고 서재. 이렇게 두 개의 공간으로 된 집이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갑작스레 룸메이트가 된 황조롱이가 쉴 수 있는 햇대같은 구조물이 내 집 안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리저리 둘러보던 차에 작은 매는 훌쩍 뛰어내려 침대 아래쪽에 쌓인 미처 정리하지 못한 연인의 옷 무더기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간다. 그러더니 발톱과 부리로 자리를 다듬은 다음 제 둥지인 양 앉는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순한 눈망울과 그 천연덕스러운 행동에 또 웃음을 터트린다. 그러다 낮은 천장에 그만 뒤통수를 부딪친다. 집값이 저렴한 대신 천장이 사선으로 지어진 곳이다. 그래서 주방 쪽으로 갈수록 천장이 높고, 현관문은 낮고 고개를 좀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옷장은 천장이 가장 낮은 곳에 딱 맞게 들어가도록 배치했고 침대도 그 사선 아래에 있어 누우면 참 아늑하다. 뭐 지금처럼 머리를 자주 찡긴 하지만. 얼얼한 뒤통수를 문지르며 옷을 벗고 씻는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황조롱이는 작은 연갈색 뭉치가 되어 곧히 자고 있다. 연인의 옷가지가 폭신한가 보다. 나는 새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물기를 닦고 편한 옷을 입은 후 서재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는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인테리어 소품들과 작은 책상용 서랍장, 그리고 벽에 붙인 연인과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온다. 간식거리로 견과류를 챙기고 텀블러에 물을 채워 돌아온다. 내 의자 옆의 빈 의자를 바라본다. 허전하다. 일기장을 꺼내 견과류를 먹으며 고적하다가 이내 의욕이 생기지 않아 양치하고 침대로 향한다. 연인을 태운 푸른 비행기는 지금쯤 잘 가고 있을까. 기내에서 심심할 텐데 그녀는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새끼손가락의 붉은 스웨터 실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긴다. 털실은 지붕 중간에 난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가로질러 멀리 어딘가로 이어진다. 거실 한가운데, 비스듬한 천장 중간에 갑자기 높아진 천장과 함께 큰 창문이

하나 있다. 문득 자는 황조롱이가 아침에 배가 고파 밖을 나가고 싶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어 일어나 창문과 방충망을 모두 활짝 열었다. 벌레는 조금 무섭지만 그래도 열어두기로 한다. 휴대폰의 알람이 잘 맞추어 있는지 확인하고, 방의 조명을 은은한 노란빛의 취침 모드로 바꾸고 침대에 눕는다. 하루가 길어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든다. 바람을 맞으며 푸른 하늘을 가로지른다. 주변은 온통 파랗고 아래에는 흰 구름이 지나간다. 붉은 스웨터 실을 따라 한 마리 새가 되어 하늘과 하나가 된다.

4. 깃털

일어나 보니 황조롱이는 가고 없다. 창문을 열어두기 잘했다고 생각한다. 혹시 큰 벌레가 집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불안해하며 찾아본다. 아직 눈에 보이는 건 없어 안도한다. 연인의 옷가지에 황조롱이의 연갈색 깃털이 두어 개 떨어져 있다. 나는 웃으며 그것들을 집어 들어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둔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라 가방에서 흰색 깃털도 꺼내 그 옆에 둔다. 대충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집 앞 편의점으로 향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것이 나의 아침 루틴이다. 까치 몇 마리가 집 앞 벤치에 앉아 있다. “까치들, 좋은 아침이야.” 나는 인사를 걸어본다. 까치들은 서로 까각거리며 수다 떨기 바빠 보인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참새 여럿이 보도블록에 모여 무언가 쪼아먹고 있다. 이 겁 많은 작은 친구들은 뭔가에 놀라 일제히 포르릉 하고 날아갔다 다시 주섬주섬 모여든다.

편의점 사장님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신 인상 좋은 아저씨다. 늘 평일 같은 시간에 와서 커피를 마시다 보니 어느 정도 안면을 텃다. 가끔 말씀도 몇 마디 나누고 응원도 해 주시는 좋은 분이다. 따님과 두 분이 번갈아 가며 편의점에 계신다. 오늘도 어김없이 잘 지내시냐, 날씨가 더워 고생이다, 따님은 잘 계시나요, 등등의 일상적인 작은 대화들이 오간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얼음이 가득 담긴 시원한 커피를 들고 돌아간다. 아까는 없었는데 건물 앞에 세워 둔 내 차 위에 황조롱이가 앉아 있다. 나는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아직 준비 덜 됐어, 좀만 기다려.” 집에 다시 들어가 빠르게 출근을 준비한다. 단정한 복장을 하고 나온다. 여전히 황조롱이는 큰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며 차 지붕에 올라가 있다. 팔을 내밀자 올라탄다. 녀석을 조수석에 넣어준 뒤에 차의 시동을 걸고 음악을 고른다. 황조롱이는 신나는 내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암전히 있다.

사무실에 도착해 가방을 두고 자리에 앉는다. 황조롱이는 내 책상에 그냥 멀뚱히 선다. 나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황조롱이의 생태에 대해 조금 검색해 본다. 자연환경에 가까운 등지 질감의 심터를 제공해야 할지 아니면 편안하고 폭신한 소재의 심터를 제공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한다. 그러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내 캐비닛에 지난 겨울부터 있는 연인의 목도리를 꺼낸다. 그녀에게 빌리고 까먹고 안 돌려준 털목도리다. 아직 은은하게 이름 모를 보라색 들꽃 향이 난다. 코에 대고 숨을 깊이 들이쉬다. 행복하다가 이내 조금 슬프다. 나는 작은 연갈색 날짐승을 쳐다보고 책상 위에 목도리를 올려 본다. 황조롱이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책상 위를 걸어가 목도리를 부리와 발톱으로 좀 바로잡더니 중앙에 꼭 하고 앉는다. 맑은 눈으로 날 올려다본다. 역시 그녀를 닮았다.



업무를 시작한다. 업무에서 보람은 느끼지만, 솔직히 그 과정은 좀 지루하다. 구성원이 많지 않은 회사이고 협업이 필요한 업무도 아니라서 대부분의 근무 시간은 혼자 보낸다. 회사 동료들은 주로 점심시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내 사무실은 10평쯤 되는 공간이고, 어찌다 보니 나 혼자 사용하게 된 공간이라 내 자리 이외에는 다른 사무용 책상은 없다. 가끔 동료들이나 계약 대상자가 찾아오면 앉아 차를 마시는 둥근 테이블과 의자 두 개가 있다. 간단한 싱크대와 커피 머신, 정수기 같은 물건들도 벽을 따라 배치해 두었다. 반대쪽 벽에는 목재 캐비닛이 하나 있고, 그 위에는 작년에 겨울 철새가 사무실에 찾아와 동지를 틀고 새끼를 부화시킨 뒤 떠난 흔적들도 있다. 정리 정돈은 좋아하지만 새끼들이 모두 떠난 빈 동지를 차마 청소하진 못했다. 그래서 그냥 냄새가 날 만한 오염만 치우고 동지들은 그 자리에 두었다.

점심시간이다. 딱히 약속이 없어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사무실에서 먹는다. 황조롱이는 열린 창문을 통해 한참 전에 나갔다. 밥을 먹는 동안 해오라기 한 마리가 사무실에 날아 들어와 낮잠을 잤다. 해가 떠 있을 때도 자주 보여서 잊고 있었는데 해오라기는 야행성이다. 점심 식사를 마무리하고 커피를 한잔 마시는 도중 연인에게 잘 도착했다고 메시지가 온다. 긴 비행을 마친 것이다. 반가운 마음에 답장한다. 연락이 닿으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 비행기 안에서 도중에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좀 가빠졌지만, 그 외에는 별 탈 없이 잘 도착했다고 한다. 나는 다행이라고 말하며 입국 심사로 정신이 없을 테니 편할 때 또 연락 달라고 답장을 보낸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붉은 스웨터 털실을 바라보고 있으니 멀리서부터 황조롱이가 이쪽으로 날아오는 것이 보인다. 우아한 비행이다. 날개를 가만히 둔 채 활공해 오다가 요란하게 날갯짓하더니 가볍게 창틀에 착륙한다. 꾸벅꾸벅 졸던 해오라기가 이 작은 연갈색 소란에 눈을 슬며시 뜬다. 고등어를 닮은 그 회색 새는 황조롱이보다 덩치가 커서 자신에게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다리를 들어 몸을 몇 번 뱅뱅 굴고는 다시 즐기 시작하는 해오라기를 바라본다.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한다. 창밖에선 방울새가 맑게 운다.

오늘 오후에는 입고된 화물을 확인해야 한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회사원들이 몇몇 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걷는다. 황조롱이는 어느새 짧은 다리로 열심히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친한 지인을 마주친다. 지금 회사에 입사하기 전, 공장에서 잠시 일하는 동안 알게 된 형이다. 잘 지내는지, 요즘 무얼 하는지, 나의 연인은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가 오간다. 화물 관련 업무차 방문했다고 한다. 지인은 어제 우리 회사에서 출고된 화물 중 도착지에 입고되지 않은 화물이 하나 있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잘못된 항공편에 실려 엉뚱한 경로로 비행한 모양이다. 나는 오늘이나 내일 공항에 가서 화물 출고 리스트를 검토해 그 화물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확인하겠다고 한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지인이 다음에 밥 한번 먹자며 내린다. 나는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지인을 보낸다. 나는 지하의 화물 집하장으로 향한다.

5. 미조

“어제 제가 실수한 화물이 하나 있었나 봐요, 제리.” 문을 열고 들어가며 제리의 뒷모습을 보고 말한다. 제리는 느리게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본다. 황조롱이가 내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날개를 펴고 화물 집하장의 높은 천장을 빙글 한 바퀴 날고 철제 크레인 위에 앉는다. 나는 서둘러 아래로 내려가 화물 태고 기록을 살핀다. L21-345, 346, 347... 찾았다. 길을 잃은 화물 컨테이너는 L21-350이다. 바다를 건너 날아가야 할 것이 도착하지 않았다. 이 화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하려면 화물 터미널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그쪽에 확인을 요청해도 되지만 이 경우 거쳐야 하는 중간 과정이 좀 길어서 일 처리가 늦다. 시계를 확인한다. 2시를 조금 넘었다. 터미널까지 차로 이동하면 얼마 걸리지 않는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내일로 미룰 필요는 없지, 생각하며 다시 플랫폼 위로 올라온다. 하지만 다녀와서 다시 여기 내려와 입고된 화물을 확인하면 야근은 확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갈등한다. 어쨌든, 마음을 먹는다.

제리가 느린 걸음으로 내 쪽으로 온다. “화물 터미널 좀 다녀올게요. 엉뚱한 곳에 도착한 화물이 동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나는 제리를 내려다보며 안전모를 벗는다. 놀린 머리를 이리저리 만진다. “맞아요, 길 잃은 철새 같죠. 새든 화물이든 집으로 돌려보내려면 일단 어디 불시착했는지 찾아야 해요.” 제리는 크게 기지개를 켜다. 좁은 화물 집하장 복도가 흰색과 옅은 검은색으로 가득 찬다. 까만 눈을 반짝인다. 늙은 나이에도 총기가 넘치고 유순한 두 눈을 나는 멋지다고 생각하며 본다. “어쨌든,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화물 집하장에서 주차장으로 바로 이어진 문으로 향한다. 문을 열자 황조롱이는 부드럽게 날아 내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간다. 두 번 타 본 차라고 기억하고 있는지 내 차의 자전거 거치대 봉에 내려앉는다. 차 문을 열고 안에 녀석을 넣어 준다. 화물 터미널로 출발한다. 출근길에 들던 마지막 노래가 이어 나온다. 흥얼거리며 리듬에 맞춰 고개를 까딱이는 내 모습을 황조롱이가 신기하단 듯 바라본다.

터미널에 도착한다. 많은 대형 트럭들과 항공기가 탁 트인 지평선을 배경으로 죽 늘어져 있는 모습은 언제나 장관이다. 나는 서둘러 내 회사의 화물을 담당하는 사무실로 향한다. 황조롱이는 차의 지붕 위에 앉아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여 혼자 빠른 걸음으로 간다. 담당자님은 50대 정도의 남성분이다. 업무 관련해 자주 얼굴을 뵈었다. 인사를 건네자 담당자님이 장난스레 안녕하지 못하다고 하신다. 나는 그의 유머러스함에 웃는다. 담당자님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화물 스캔 기록을 확인한다. L21-350번 화물이 어떤 화물기에 실렸는지 확인한다. 엑셀 시트의 행과 열이 눈으로 잘 따라가지 않아 끔뻑인다. 이상해서 몇 번 더 확인한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닌 것 같다. 오분류라고? 나는 모니터를 보느라 굵혔던 허리를 편다. 우리 회사에서 처리하는 화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화물기 용과 여객기용이다. 오분류된 화물은 화물기용이 아니라고 인식되어 여객 터미널로 보내진 것이다. 그런 큰 실수가 생길 리가 없는데. 물론 이 350번 화물이 크기가 중형인 컨테이너인 만큼 시스템상에서 인식이 잘못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다. 보통 대형 화물이 화물기에 실리니 말이다. 오분류되어 여객 터미널로 운송되었다면 여객기의 화물칸에 실려 도착 공항의 수화물 처리 시설 어딘가를 지금도 맴돌고 있다는 거다. 나는 다른 창을 띄워 350번 화물이 어떤 항공편을 타고 어느 나라에 도착했는지 본다. 또 한 번 내가 잘못 본 건 아닌지



눈을 꿈벅이며 여러 차례 확인한다.

담당자님이 회한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올린다. 내가 슬며시 나오는 미소를 참다가 너털웃음을 터트렸기 때문이다. 그 길 잃은 철새 같은 350번 화물은 나의 연인이 탑승한 바로 그 비행기에 실려 함께 하늘을 날았다.

영문을 몰라 하는 담당자님께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잘 처리하겠다고 말한 뒤 건물을 빠져나왔다. 붉은 스웨터 털실이 지평선 저 멀리 이어진다. 이곳 터미널 근처에서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소리가 꽤 크다. 이 굉음 또한 나름의 운치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며 차로 걸어간다. 황조롱이가 나를 보고 꺅꺅 하고 운다. 어디서 사냥에 성공해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건지 부리와 발톱, 그리고 깃털 군데군데 피가 묻어 있다. 당황해 트렁크에서 수건을 꺼내 녀석의 몸 곳곳을 닦는 동안 그 연갈색 생물은 싫어하는 내색 않고 양전하다. 내가 차 시트를 아무리 신경 안 써도 죽은 야생동물의 피가 묻는 건 싫다. 이리저리 확인해 보고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 황조롱이를 차에 태운다. 다시 회사로 출발한다.

이런 기막힌 우연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운전하며 웃는다.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 근데 재밌긴 한데 오분류 화물은 앞으로의 사후 처리가 좀 골치 아프긴 해…”

나는 옆자리에서 부리로 깃털을 다듬고 있는 황조롱이에게 말을 건다. 껌 하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말이야. 하필 둘이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을 줄이야.” 나는 황조롱이의 목깃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내린다. “너를 닮은 친구야.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멀리 다른 나라에 갔어. 벌써 엄청 보고 싶은데, 금방 익숙해지겠지?”

뜨거운 여름 햇살이 새파란 하늘을 데운다.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쨍한 날이다. 밖에서 조금만 걸으면 땀이 나는 그런 찜통 날씨다. 시내에서 차가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춘다. 까마귀 두 마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그 뒤로 공작 한 마리가 긴 허리깃을 드레스처럼 뒤로 한 채 우아한 걸음으로 걸어간다. 이어서 외국인 여행객 몇 명이 캐리어를 끌고 길 건너의 호텔로 향해 가는 모습을 본다. 나는 이마가 가려워 굵다가 붉은 스웨터 털실에 내 코를 간지럽히고 재채기를 한다. 옆자리의 황조롱이가 놀라 푸드덕 날갯짓을 하고 나는 미안하다고 녀석을 진정시키는데 애를 먹는다.

회사로 돌아와 밀린 오후 업무를 시작한다. 정신없이 일을 마무리 지으니 저녁 7시 30분이다. 연노랑색 머리를 위아래로 꾸벅꾸벅 움직이며 졸고 있는 제리에게 조용히 인사를 한다. 마침내 퇴근이다! 식사 시간을 좀 놓쳤지만 나는 끼니를 거를 생각은 없다. 사무실을 대충 정리하고 나와 차를 몰고 근처 바닷가에 있는 자주 가는 식당으로 향한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황조롱이는 피곤한지 내가 사무실에서 챙겨 온 연인의 목도리 위에서 고개를 날개 사이에 파묻고 잠들어 있다. 나는 식당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조심스레 내린다.

연인과도 자주 왔던 맛있는 식당이다. 바다가 잘 보이는 곳임에도 인지도가 적어 한적하다. 사람이 붐비는 곳을 싫어하는 탓에 나는 여기 종종 와서 밥을 먹는다. 안에 들어가니 두 세 테이블쯤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볶음밥을 시킨다. 음식을 기다리며 밤바다를 물고려미 본다. 썰물 때라 갯벌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다. 물떼새들은 이미 유수지나 얇은 물가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야행성 물새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떠오르는 새가 없어 이내 그만둔다. 볶음밥이 나왔다.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밥을 먹으며 주말

에 무얼 할지 생각한다. 내일은 금요일이다. 연인과 함께 보내지 않는 주말이 정말 오랜만이다. 탐조도 같이 다녔고 쇼핑도, 식사도 늘 함께였다. 집에서 책을 읽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뭔가 하루쯤은 바깥 공기를 마시며 보내고 싶다. 하루는 탐조 겸 산책을 나가고, 하루는 집에서 쉬자. 혼자 노는 법을 까먹은 모양인데, 다시 익숙해질 때가 온 거다.

볶음밥을 맛있게 먹고, 나와서 옆에 있는 카페에서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 산책하며 마신다. 여름이 가면 갈수록 더워져서 해가 저도 덩다. 8월 말인데도 한여름같이 더운 밤공기가 주위를 감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눈을 가늘게 뜬다. 째깍한 이 바람은 그래도 좀 시원한 듯하다. 커피를 마시며 칠혹 같은 갯벌을 보고 운치를 즐긴다. 어두워져 붉은 스웨터 털실은 내 손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제외하고 먼 쪽은 잘 보이지 않는다. 가로등 불빛을 가리고 무언가 재빠르게 날아와 나에게서 조금 떨어진 앞쪽에 내려앉는다. 흑갈색 몸치가 부리에 나방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물고 산책로 길 위에 우두커니 서 있다. 가로등이 조금만 어두웠으면 굵은 나뭇가지로 착각했을 만큼 위장 색이 뛰어나다. 크기는 남자 신발만 하고 앞뒤로 길게 날렵하게 생겼다. 짙은 갈색 깃털에 선명한 얼룩무늬가 나 있고 목깃과 날개, 꼬리깃 끝에 열은 흰색 반점이 보인다. 짧지만 날렵하게 굽어 있는 부리를 움직여 나방을 맛있게 먹더니 나를 보고 쑥쑥-쑥쑥 물어보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야행성 여름새를 바라본다. 여름을 맞아 먼 길을 날아와 쉬면서 영양을 보충하고 있는 모양이다. 쑥독새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캄캄한 나무 사이로 사라진다. 나는 잘 가라고 손을 흔든다.

좀 더 건다가 덥고 차로 돌아갈 거리도 생각해 방향을 돌려 반대로 걷는다. 왼편으로는 갯벌이, 오른편으로는 숲이 있어 공기 중에 다양한 냄새가 섞인다. 풀 냄새, 바다 냄새, 흙 냄새, 나무 냄새. 이번엔 귀를 기울여 본다. 멀리서 들리는 바닷소리, 가까이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 여름 매미 소리. 아까 날아간 쑥독새의 울음소리도 희미하게 들리는 듯하다. 평온함을 즐긴다. 커피의 얼음은 순식간에 녹아 얼마 없다. 공기 중의 습기가 컵에 달라붙어 물방울이 잔뜩 맺혀 있다. 자연스레 컵을 든 손에 물이 묻는다.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차로 돌아온다. 땀이 꽤 나서 이마를 팔로 한번 닦는다. 황조롱이는 여전히 자고 있다. 나는 녀석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듯 운전해 집으로 향한다. 집 앞에 도착한 뒤, 자는 황조롱이를 어떻게 옮길지, 애초에 옮겨야 할지 고민한다. 이 녀석, 얼마나 잘 자는지 집에 가는 도중 한 번도 깨지 않았다. 나는 고민 끝에 목도리 껌로 황조롱이를 들어 올려 조심하듯 안고 간다. 내 품의 작은 연갈색 생물은 졸린 눈을 반쯤 뜨고 뒤척이지만 편안해 보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연인의 옷가지 위에 녀석을 내려놓는다. 잠깐 갯 녀석이 다시 잠들기 좋은 자세를 잡더니 새근새근 숨을 쉬는 깃털 뭉치가 된다.

개운하게 씻고 나오니 9시다. 서재 의자에 털썩 하고 앉아 기분 좋은 한숨을 내쉰다. 오늘은 술을 마시면 좋을 것 같은 날이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한 캔 꺼내 마신다. 일기를 쓰며 350번 화물에 대해 생각한다. 어떤 일련의 실수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화물은 내가 전망대에서 눈물과 함께 바라본 푸른 비행기에 실려 지평선 너머로 날아갔다. 본래 한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철새들이 길을 잃거나, 태풍을 만나거나, 체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갑작스런 요인으로 인해 그 지역에 도착해 머무르는 경우 이들을 ‘미조’라 부른다. 미조가



된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선 먼저 해당 공항에 연락해 화물의 확보를 부탁하고, 반송을 진행해 다시 국내로 오게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 목적지로 보낸다. 이렇게 나열하니 간단해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서류 작업과 화물 검사 과정, 그리고 대기 시간과 운송료를 생각하면 까마득한 것이다. 나는 일에 관한 생각은 사무실 안에서만 하고, 지금은 그냥 쉬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음악을 듣다. 잔잔한 재즈를 들으며 일기를 다 쓴 뒤 책을 읽다가 하루를 마무리한다. 침대에 누워 황조롱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창문을 통해 밤하늘로 향하는 붉은 스웨터 털실을 바라본다. 이내 잠이 든다. 푸른 하늘과 사방의 구름이 보인다. 눈송이가 훑날려 내 뺨을 적신다. 바람은 분명 시리게 차갑지만 어쩐지 상쾌하게 느껴진다. 운동을 마친 뒤처럼 심장이 쿵쿵대는 것이 관자놀이 아래에 느껴진다. 햇살이 잔잔하다. 시야 저 멀리 어딘가 이동 중인 철새 무리가 보인다.

6. 탐조

금요일은 일에 치여 지나갔다. 미조 화물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회사에 물류가 많은 기간이 겹친 것이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에 돌아온다. 대충 씻고 누워서 연인과 길게 통화를 하고 휴대폰을 만지다 잔다. 황조롱이도 일찍 잠에 들었다.

토요일이다.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춰 두었다. 일어나 보니 황조롱이는 가고 없다. 나는 오랜만에 아침을 만들어 먹기로 한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를 준비하고 간단한 샐러드도 그릇에 담는다. 분위기를 내기 위해 핑크 플로이드의 'Alan's Psychedelic Breakfast'를 듣는다. 앨런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아침을 만들어 먹는 소리와 잔잔한 기타 선율을 들으며 나도 아침을 먹는다. 설거지하기 귀찮아 미룬다. 씻고 탐조를 나갈 채비를 한다. 자전거를 챙겨 밖으로 나왔지만 황조롱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좀 더 기다려 보다가, 알아서 잘 들어와서 쉬겠지 싶어 그냥 출발하기로 한다.

산을 걸으며 새를 볼까, 갯벌에 나가 자전거를 타며 새를 볼까 고민한다. 날이 더우니 좀 시원한 산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전거를 타고 집 근처 낮은 산으로 향한다. 자전거길과 양옆으로 탁 트인 들판에 속이 땀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 유수지를 지난다. 저어새 세 마리가 머리 위를 우아하게 날아 물가에 내려앉는다. 나는 가까이 가서 자전거를 잠시 세우고 멈춰 그들의 자태를 사진에 담는다. 새하얀 몸통과 검은 다리와 주걱 모양의 독특하고 넓은 검은 부리를 본다. 목 아래쪽의 옅은 주황색 얼룩이 귀엽다고 생각한다. 걸음 걸음에 얇은 물이 물결치는 모습을 찍는다. 백발의 머리칼 같은 부드러운 머리깃이 흔들린다. 부리를 물속에 넣고 이리저리 저으며 먹이를 찾는 모습을 사진에 담는다. 몇 분 동안 그렇게 찍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길을 떠난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해 자전거를 묶는다. 산은 확실히 더 시원하다. 여름이 한창이라 나무들은 강렬한 초록빛으로 싱그럽고 매미 소리가 사방에 가득하다. 나는 나무뿌리와 돌이 듬성듬성 있는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걷는다. 나무 구멍에 쑥 들어가 졸고 있는 금눈쇠물뺨미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는다. 귀여운 길은 갈색의 자그만 덩치가 매력적인 친구다. 산을 오른다. 비교적 시원하긴 하지만 오르막을 걸으며 몸이 데워지니 금세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다. 나무 틈 사이에서 작은 사슴이 풀을 뜯다가 나와 눈을 마주친다. 날벌레들이 땀 난 열

굴 주변을 날아다니다가 얼굴에 붙거나 하며 귀찮게 한다. 손을 휘휘 저으며 산을 오른다. 방울새 한 마리가 누군가 산 중턱에 설치해 놓은 모이통에서 먹이를 먹는 모습을 지켜본다. 카메라에 담는다. 맑은 방울 같은 울음소리가 잔잔하고 정겹다. 사무실에서 졸고 있으면 종종 들려오는 소리라 더 반갑게 느껴진다.

산은 그렇게 높지 않아 1시간가량의 등산을 마치니 어느새 정상 부근이다. 정상을 못 미치는 높이, 조금 넓고 평평한 곳에 정자와 운동 기구 몇개가 있는 공간이 있다. 사람이 없어 한적하다. 나는 정자에 앉아 가방을 뒤적거려 집에서 만들어 온 유부초밥을 꺼내 먹는다. 어느 날 연인과 함께 갔던 공원 나들이를 떠올린다. 그때도 유부초밥을 만들어 와서 맛있게 먹었었지. 오목눈이 한 무리가 쪼로롱 날아 정자 난간에 웅기종기 앉는다. 여름 산에는 벌레가 많으니 이 친구들도 배불리 점심을 먹었을 것이다. 몇몇은 편평한 정자 바닥으로 통통 튀어 내려와 귀엽게 돌아다닌다. 지저귀는 소리가 수다스러운 말소리 같아 재미있다.

점심을 가볍게 먹고 정상으로 마저 걸어간다. 한눈에 섬 전체가 들어오진 않지만 건물이 낮아 멀리까지 보인다. 회사 건물도 보이고,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도 보인다. 나는 망원경을 눈에 대고 풍경을 감상한다. 막 이륙하는 비행기를 따라가며 관찰하기도 한다. 넓게 펼쳐진 갯벌도, 그 위를 가로지르며 건너편 내륙과 섬을 잇는 길고 긴 다리도 신기해 하며 본다. 하늘에서는 무리 지어 날아가는 제비들도 보인다. 고개를 조금 아래쪽으로 돌려 산 아래의 풍경도 바라본다. 사람들이 왜 산에 오르면 야호- 하고 소리를 치는지 이해되는 그런 기분을 느낀다. 행복한 여유로움과 한적함에 미소를 짓는다.

올라온 길과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올라온 등산로에 비해 내려가는 길은 거리는 비슷하지만 더 편한 길이라 45분 정도가 걸린다. 하산하며 풍경을 감상한다. 새들도 몇몇 보여 사진을 찍는다. 만족스러운 산행이었다고 생각하며 흐뭇하다. 절반쯤 넘는 거리를 내려왔을 때, 저 멀리 갈대 언덕이 모습을 드러낸다. 산 아래에는 갈대가 많고 잔디가 무성한 넓은 언덕 평원 지형이 있다. 경치가 좋아 가끔 차를 몰고 가서 산책하며 쉬는 한적한 곳이다. 나는 흙과 나무뿌리와 풀이 적당히 섞인 등산로를 내려가다 멈추어 망원경을 눈에 대고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언덕의 풍경을 본다.

익숙한 회고 검은 실루엣을 발견하고 멈춰선다. 나는 의아함에 고개를 갸우뚱하다, 이내 놀라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바람에 물결치는 갈대밭이 있고 푸른 언덕이 펼쳐져 있으며 작은 수로가 있는 그곳에서 서성이는 제리의 모습은, 무언가 위태롭고 어색해 보인다. 문득 나는 제리를 처음 만난 날을 생각한다.

7. 제리

제리는 3년 전에 회사에 나타났다. 태풍이 기세를 떨쳐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연달아 결항하는 그런 날이었다. 하늘은 어두운 구름이 가득하고 바람 때문에 나무들은 제대로 서있지 못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 적치장에서 화물을 트럭에 싣는 동안 건물 안으로 비가 잔뜩 들어찼다. 정신없이 컨테이너를 옮기는 직원들이 외치는 소리, 빗소리, 바람 소리, 몇 분마다 한 번씩 쿠르릉, 쿵 하는 천둥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 혼란 속에서 아무도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리는 적치장 안에서 비에 젖은 채 힘없이 있었



다. 내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제리를 발견했고 이어 몸에 흥건하게 묻은 피를 보았다. 태풍 속에서 크게 다친 모양이었다. 서둘러 동료들과 함께 회사 안의 의료실로 향했다. 제리는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혀 상처가 깊고 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급한 대로 응급 처치를 하고, 태풍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렸다가 내 차에 태우고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하러 병원에 데려갔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후로 몸이 불편한지 이 곳에 머물며 느린 걸음걸이로 회사 안을 돌아다니거나 어정쩡한 자세로 기지개를 켜고는 했다.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비가 세차게 차 앞 유리를 두드리던 그 날 태풍 속을 운전하며 느꼈던 걱정과 긴박함을 기억한다. 제리가 갈대밭 언덕에서 무얼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억 속 제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혹시나 하는 불안함에 발걸음이 급해진다. 예고 없이 위험한 길을 떠나려는 친구를 붙잡기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산을 내려가는 것은 오르는 것보다 편할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해서 체력 소모는 비슷하다. 급하게 하산하는 것은 더 위험하므로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정신없이 등산로를 내려간다. 마침내 발밑의 땅이 완만해지고 나무들이 사라진다. 시야가 트이자마자 나는 정상에서 제리를 발견한 갈대밭 부근을 열심히 본다. 숨기기 힘든 그녀의 흰색에 검은색이 섞인 큰 덩치가 흔들리는 갈대들 사이로 보이자 나는 안도한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거의 다 젖은 티셔츠를 펴럭이며 나의 기묘한 회사 동료를 향해 달려간다.

제리가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먼 곳까지 나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나이도 나이가거니와, 느린 걸음으로 여기까지 오려면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나서야 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그녀가 내 분주한 발걸음 소리를 들은 건지 고개를 돌려 나를 본다. 유순하고 새카만 눈망울이 나를 알아본 듯 반짝인다. 제리가 딱딱거리는 소리를 낸다. 나는 지쳐 크게 숨쉬며 듣는다. “아이고, 제리. 이렇게 멀리까지 어떤 일로 나왔어요.” 나는 그녀 옆에 털썩 앉는다. 제리는 고개를 까딱거리는 인사로 나를 반긴다. 그녀도 천천히 부드러운 잔디 위에 앉는다. 바깥에서 그녀를 본 건 나도 참 오랜만인것 같다. 제리는 늘 적적장 안쪽에 머물며 적당히 높은 책상이나 의자에 배를 깔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특유의 미소를 띤 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화물이 출고되는 날에는 가끔 직원들과 함께 건물 바깥에 서서 멀어져 가는 트럭을 지켜보기도 한다. 나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킨다. 제리가 자신도 원하는 듯 물병을 든 손을 툭 건드려서 캠핑용 반합에 물을 넉넉하게 따라준다. 우리는 그렇게 잠시 말없이 갈대밭 사이 푸른 언덕에 앉아 쉰다. 바람에 갈대가 썩아 썩아 흔들리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 간간히 들리는 비행기 소리가 우리를 에워싼다. 예고 없는 급한 운동에 쿵광이던 심장이 차분히 뛰고 가쁜 숨소리도 잦아든다. 갈대 언덕에서는 바다가 잘 보인다. 밀물 시간인 듯 갯벌이 모습을 감추고 짙푸른 바다가 수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다. 새끼손가락의 붉은 스웨터 털실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우리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녹아들어 있다. 잠시 뒤 내가 제리에게 말한다. “제리, 배우자가 많이 보고 싶지…?”

제리는 끝부분이 푸른 분홍빛 부리를 내 팔에 부비적거린다. 나는 연노란 꽃물이 목깃까지 흘러 물든 듯한 제리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녀의 날개는 몸통에 가까운 부분이 희고 끝은

검다. 앉아 있는 나와 같은 키를 가지고 새 중 윙스팬이 가장 긴 종의 그녀. 크고 유순한 바다새. 구름 흐르는 먼바다를 바라보는 새카만 눈망울에 그리움이 가득하다. 나는 슬픔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제리를 두 팔로 안아 준다.

알바트로스는 60년을 넘게 살고, 평생 한 배우자만을 갖는다. 제리는 3년 전 남편과 함께 태평양을 건너다 태풍을 만나고 다쳐 우리나라에 홀로 불시착한 미조이다.

제리는 내 팔 아래에서 잠전하다. 워낙 커서 어정쩡하게 안긴다. 나는 팔을 내리고 제리를 마주 본다. 까만 눈망울을 보며 이야기한다. “바람 한번 타보려고 나온 거야?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아직 날개가 불편해 보여서 걱정이 돼. 괜찮을까?” 제리는 내 말을 이해라도 한 듯 날개를 활짝 펴며 기지개를 켜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비켜 준다. 최대한 편 알바트로스의 날개는 몇 번을 보아도 놀랍다. 3m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큰 날개를 가진 탓에 이들은 지상에서 하늘로 날아오를 때도 자력만으로는 어렵고, 상승기류를 타고 패러글라이더처럼 활공하듯 난다. 원래 국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새라서 그 모습을 직접 관찰하진 못했지만, 알바트로스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그 아름다운 비행을 본 기억이 있다.

나는 제리의 날갯죽지 근처에 있는 선명한 흉터를 보고 마음이 아파온다. 상처는 한두 달이 지나니 아물었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만 해도 기지개를 켤 때마다 한쪽 날개를 완전히 펴지 못해 불편해 보였었다. 지금은 조금 어색하지만 가동 범위는 많이 넓어진 것 같다. 많이 나아진 듯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늘을 날기에는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다.

그녀가 날개를 펼친 채 자리에서 일어나 회색 물갈퀴 달린 두 발로 잔디밭에 선다. 나는 잠시 놀라 뒤로 물러나 선다. 멀리서부터 갈대가 파도를 타듯 썩아아 하는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가까워진다. 큰 바람이 언덕 저 아래에서부터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 나는 눈앞의 제리를 보며 걱정이 앞서지만, 그녀의 눈망울에서 느낀 그리움이 마음에 남아 어쩔 줄 모르고 두 걸음 떨어져 그녀의 모습을 바라본다. 생각해 보니 올해 들어 제리가 화물 적적장 바깥에서 날개를 펴고 조금씩 파닥이는 모습을 본 동료들이 많았다. 알바트로스의 재할 운동이었을까? 제리는 이미 준비가 된 상태일지도 모른다. 다시 날기 위해선 용기를 내야 하고, 시도해야 한다. 그녀의 도전을 단지 걱정된다고 막아설 마음은 절대 없다. 바람 소리가 거세진다. 갈대들이 눕는다. 활짝 편 희고 검은 날개가 습하고 선선한 바닷바람을 한껏 품는다. 나는 바람에 눈꺼풀이 가려워 눈을 찡그리며 뜬다. 그러면서 제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흰 깃털들이 바람 부는 걸을 따라 가지런히 누워 있다. 그녀가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 한 발, 두 발, 언덕을 따라 내려간다. 처음엔 머뭇거리는 발걸음이지만, 이내 내달린다. 길을 잃은 알바트로스의 도움닫기를 숨죽인 채 본다.

갑자기 강한 바람에 날린 먼지가 눈에 들어가 눈을 질끈 감았다. 손가락으로 눈을 몇 번 문지르고 다시 눈을 뜬다. 제리의 물갈퀴 달린 두 발이 공중에 떠 있다. 제리가 날고 있다. 수평으로 펼친 거대한 날개가 바람에 조금씩 각도를 달리하며 중심을 잡는다. 잠시 공중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던 제리가 날개를 힘차게 한번 퍼덕인다. 그런데 다쳤던 날개 쪽의 힘이 부족했는지 잠깐 위로 올라가다 이내 중심을 잃고 옆으로 크게 선회한다. 나는 놀라 그 방향으로 뛰어간다. 내리막이 있는 언덕이라 다행이지 조금만 경사가 완만했다면 제리가 그대



로 땅으로 고꾸라질 각도였다. 그녀의 검은 날개 끝이 갈대를 스치듯 낮게 지나간다. 몸의 각도를 틀어 방향을 내리막 쪽으로 바꾸면서 고도를 높이려 한다. 다행히 그녀가 바람을 다시 타고 경사와 같은 방향으로 균형을 잡는다. 몇 초간 다시 공중에 떠 있다. 이번에는 조금 안정적이다. 그리고는 착지를 시도하는 듯 날개를 퍼덕거리며 내려온다. 조금은 어설피게 땅에 내려앉는다. 나는 그 과정을 마음 졸이며 보다가, 그녀가 안전하게 착지한 것을 보고 달려간다.

제리는 분홍색 부리를 벌리고 숨을 헐떡이고 있다. 날개가 아직 조금 아픈 모양인지 다쳤던 쪽을 완전히 접지 못하고 있다. 나는 반함에 물을 더 따라서 제리 옆에 둔다. “고생했어, 제리! 너무 멋있었어. 엄청 잘하는데?” 제리는 날개를 풀어주듯 조금씩 움직이다가 천천히 접는다. 물을 마신다. 제리는 지쳤지만 행복해 보인다. “아직 좀 연습이 더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힘을 계속 기르고 노력하다 보면 완전히 날 수 있을 것 같은 걸.” 나는 그녀 옆에 앉는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 볼게.” 제리는 연노란 얼굴에 박힌 보석같은 유순한 까만 눈을 꿈뻑이고는 특유의 웃는 표정을 짓는다.

우리는 잠시 앉아 쉬다가 천천히 회사로 걸어 갔다. 제리의 속도에 맞추어 가느라 한 시간이 걸렸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니 회사 건물 근처에 도착해 있었다. 제리가 주로 잠을 자고 쉬는 화물 적치장 휴게실에 그녀를 데려다 주고, 나는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도착해서야 내가 자전거를 산 입구에 세워두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낸다. 누가 가져가진 않겠지 하며 내버려 두기로 한다. 집 안에 들어와 보니 황조롱이가 꺾꺾 하며 나를 반긴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화장실로 향해 후딱 씻고 나온다. 서재에 앉아 찍은 새 사진들을 대충 정리하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포장해 와서 밥을 먹는다.

식사를 마치고 황조롱이에게 넌지시 말을 건다. “오늘 제리가 비행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어. 아직은 비행이 서툴러서 오래 날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남편과 고향으로 돌아가게 도와주고 싶더라.” 작은 매는 고개를 갸웃갸웃거린다. 나는 연인을 닮은 눈망울을 보며 웃는다. “나도 그런 제리를 보면서 연인이 많이 그립더라. 인간이든 동물이든, 사랑하는 이를 그리는 마음은 같은 것 같아. 그 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나는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많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연인의 근황을 묻는다. 연인이 적응은 잘하고 있지만 낯선 곳에서 지내다 보니 불안증세가 좀 심해진 것 같다고 한다. 불면증도 다시 찾아와 늦게 잠드는 날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걱정한다.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원래 그랬으니까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씩씩하게 말한다. 전화를 마치고 나는 서재 의자에 기대에 생각에 잠긴다. 제리의 비행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유순하고 새까만 눈망울에 가득 찬 그리움이 잊히지 않는다. 나는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알바트로스에 대해 생각한다. 연인에 대해 생각하며 새끼 손가락의 붉은 스웨터 실을 만지작거린다. 이별에 대해, 그 아픔과 기다림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움에 대해 생각한다. 서재 의자에 한창을 앉아 있다가 술을 찾는다. 마침 반병쯤 남은 위스키가 있어 얼음을 담아 마신다. 한두 잔에서 멈추려 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술이 계속 들어간다. 결국 위스키병을 모두 비운 뒤에 취해서 서재 책상에 머리를 기대어 잠든다.

8. 가을

9월이 거의 끝나간다. 이상한 일이지만 9월 내내 더웠다. 그리고 새들도 이를 느끼는지 여름새들이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변에 보인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나는 화물을 처리하고, 터미널을 종종 방문하고, 주말에는 제리가 비행하는 걸 도왔다. 아, 제리는 내 집에서 머문다. 어느 날 제리와 언덕에서 시간을 보내고 영양 보충 겸 좋은 생선을 먹이고 싶어 차에 태워 집에 돌아왔었는데, 내 집이 편한지 계속 머무는 중이다. 운이 좋게도 조류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지인 한 명과 연락이 닿아 그의 도움을 받아 제리를 보살피고 있다. 황조롱이도 건강하게 엉뚱한 표정을 종종 지으며 잘 있다. 그리고 전에 문제가 생겼던 미조 화물의 반송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화물 태그가 계속 인식이 안되어 반송 과정을 밟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규정과 프로토콜에 따라 분류가 되지 않은 화물은 항공기에 실을 수 없다며 반송하지 않고 있다. 이것 때문에 계속 골머리를 앓는다.

목요일이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먹지 않고 부랴부랴 나왔다. 황조롱이는 어깨 위에, 제리는 내 옆에서 뒤둥거리며 걸어 차로 향한다. 제리는 내 차의 뒷좌석이 넓고 편해서 그쪽을 선호한다. 나는 두 마리 날짐승과 함께 회사로 출근한다.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다. 이제 슬슬 여름새들이 남쪽으로 떠날 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제리는 화물 적치장에 데려다주었다. 그곳이 회사 건물에서 가장 활기 넘치고 구경거리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 제리가 줄곧 거기서 지내왔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이다. 종종 내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붉은 눈의 해오라기가 오늘도 어김없이 창틀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연인의 목도리 위에서 서서 부리로 깃털을 정리하던 황조롱이가 그 모습을 보고 깨객 하고 울지만 거슬려 하는 눈치는 아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다시 자리로 돌아온다. 메일함을 확인해 보니 오늘 오후에 예의 미분류 화물에 대해 상사가 회수 방안 수립을 위한 미팅을 하자고 제안한다. 나는 알겠다고 답장하고 한숨을 쉰다. 나의 상사는 잔소리나 쓴소리로 후임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의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웬지 모르게 이번 사태에 내 책임이 다분한 것 같아 죄책감에 상사와 대면하는 것이 곱고럽게 느껴진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으로는 나가서 회사 건물 맞은편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는다. 돌아오는 길에 후투티 한 마리가 나무 밑 흙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본다. 이 친구도 여름새인데, 최근 들어 날씨가 계속 따뜻해서 이동하지 않고 텃새가 되어 간다고 들은 적이 있다. 후투티의 이질적인 생김새에 눈길을 돌리지 못하고 멀찍이서 멈추어 선 채 바라본다. 검정색과 흰색의 넓은 줄무늬가 있는 날개와 꼬리, 긴 검정색 꼬리 끝, 주황빛 갈색의 몸, 그리고 머리에 난 길고 아름다운 깃털 관모를 본다. 주변에서 큰 소리가 나자 놀란 후투티의 관모가 부채처럼 위로 곧게 퍼진다. 카메라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에 아쉬워하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고는 사무실로 돌아간다.

내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상사와의 미팅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일반 수화물로 부칠 수 있는 크기여서 직접 해당 나라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여객기를 타고 돌아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나는 겉으로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



로 연인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만으로 몹시 기뻐하고 있었다. 연인에게 이야기하면 공항으로 와서 얼굴을 보고 어쩌면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지 모른다. 나는 나의 기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사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무슨 이유에 서인지 모르겠지만 해외로 출장을 가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갖가지 근거를 들어가며 내가 가야만 한다는 걸 피력했지만, 상사는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이라며 단칼에 거절해 버렸다.

사무실에 돌아온 나는 아쉬운 마음에 한참을 방 안에서 서성였다. 그런 내 모습을 황조롱이와 주고 있는 해오라기가 물끄러미 보고 있다. 나는 투덜대며 몇 분간 더 그러고 있다가 답답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밖으로 나간다. 회사 건물에서 화물 적치장 방향으로 나가 조금만 걸으면 산책하기 좋은 풀 덮힌 공터가 있다. 나는 제리와 황조롱이를 데리고 나간다. 제리는 이제 날개가 많이 좋아져 알맞은 상승기류를 타면 편안하게 이착륙 할 수 있다. 물론 장거리 비행은 시도해 본 적이 없지만 최근 그녀의 비행을 바라보며 나는 성공할 것이라는 즐거운 희망에 차 있다.

나는 두 날짐승과 함께 천천히 산책하며 생각에 잠긴다. 사비를 들여 내가 가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그건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욕구가 더 커 보이는 행동일 테다. 그리고 그만한 금전적 여유도 없다. 연휴를 앞두고 있어 항공편에 자리가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제리의 유순한 눈을 본다. 제리는 뒤뚱거리며 느긋하게 풀밭을 걷고 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를 한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서재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다. 그러다 책을 좀 읽고 일기를 쓴 뒤 자러 간다.

바람. 푸른색. 흰색. 또 그 꿈이다. 나는 주변을 둘러본다. 고요하다. 아래로 드넓은 남색 바다가 보인다. 끝없이 펼쳐진 질푸른 바다가 온 사방을 덮는다. 수평선 저 끝까지 넘실대는 푸른색은 얇은 선으로 하늘과 만나 하나가 된다. 그 위로 장엄한 구름이 하늘 위 도시처럼 드리워 있다. 햇빛을 받아 입체적인 구름의 모양이 그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한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내 몸을 휘감고, 그 기류를 타고 나는 나아간다. 붉은 스웨터 털실만이 내가 향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가슴 어딘가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진다. 기대감인지,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지 못한다.

금요일이다. 일어나 출근한다. 오늘따라 몸이 몹시 찌뿌둥하고 피곤하다. 사무실에서 사정 없이 꾸벅거리며 졸다가 일을 하는 등 마는 등 한다. 해오라기는 오늘도 사무실 한 칸에서 나와 함께 즐겼다. 점심으로 따뜻한 국물 요리를 먹고, 또 졸다가 퇴근 시간이 되어 회사 건물을 빠져나온다. 날씨가 꽤나 쌀쌀해 긴 팔 겹옷을 챙긴다.

제리는 내 오른편 발 옆에, 황조롱이는 어깨의 가방 끈 위에, 그리고 해오라기가 왼편에 멀뚱히 서 있다. 나는 집으로 향하지 않고 무언가 훌린 듯 산 아래의 갈대 언덕으로 향한다.

9월 말의 기온은 올랐지만 그 원인이 천문학적인 변화로 인한 건 아니라서 낮의 길이는 정상적으로 짧아졌다. 갈대 언덕에 도착하자 노을이 갯벌과 바다를 비추며 펼쳐져 있다. 나는 언덕 꼭대기에 앉아 노을지는 풍경을 감상한다. 서로 부딪히며 바람에 부드럽게 춤추는 갈대들의 소리가 음악처럼 들린다. 황조롱이가 꺅꺅 하고 운다. 해오라기는 조용하고, 제리는 부리를 딱딱 부딪치며 캐스터네츠와 흡사한 소리를 낸다. 제리의 연노랑빛 머리를 쓰다듬

는다. 해는 뉘엿뉘엿 탁 트인 서쪽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하늘은 주홍빛으로 물들어 간다. 나는 어느 여름날 연인을 보내고 황조롱이를 처음 만난 그 날의 노을을 떠올린다. 그렇게 나와 세 마리 날짐승은 저무는 해를 보며 바람을 느낀다.

지저귀는 소리가 저 멀리 뒤쪽 하늘로부터 들려온다. 우리는 고개를 돌려 본다. 수많은 작고 검은 형체들이 바람을 타고 재빠르게 날아온다. 유선형의 짧은 몸통에 비해 넓고 긴 날개와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 작은 생물들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린다. 칼새다. 남쪽으로 일제히 비행한다. 하늘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 수가 많다. 드디어 여름새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제리를 본다. 제리는 특유의 웃는 표정으로 나를 마주 본다. 그 맑은 눈 속에서 나는 그동안 꿈에서 느꼈던 그 벅차오르는 감정을 다시 느낀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한다. 그것은 인간과 새가 공감하는 강렬한 감정이고, 하나의 단어로 종종 표현되고는 하지만 한 단어로는 그 온전한 깊이를 모두 담을 수 없다. 나는 새끼손가락의 붉은 스웨터 털실을 풀어, 왼손 약지에 묶는다. 저 멀리 남쪽 하늘로 뻗어 나가는 붉은 실이 노을을 받아 반짝인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갈대밭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알바트로스, 해오라기, 황조롱이와 인간이 하늘을 가득 메운 칼새 무리의 비행을 보며, 주황빛의 타오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갈대밭 꼭대기에 선다. 언덕 저 아래에서부터, 저무는 태양 빛을 받은 갈대들이 한 방향으로 눕는다. 황조롱이가 내 허벅지에 이마를 톹 하고 갖다 댈다. 황조롱이는 텃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연인을 닮은 그 맑은 눈망울을 마지막으로 깊게 바라본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서,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바람에 온몸을 맡긴다. 칼새 무리가 우리 주위를 가득 채운다.

제리는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고 목을 하늘로 치켜올리며 길게 운다. 해오라기가 먼저 훌쩍 날아오른다. 그다음 제리와 내가 갈대밭을 내달린다. 내리막을 힘차게 달린다. 바람이 등을 떠밀어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지만 온 몸의 아드레날린이 내 중심을 잡아준다. 심장이 터질 듯 뚫다. 마침내 발 밑의 감각이 사라지고, 나와 제리는 상승기류를 타고 하늘로 솟아오른다. 나는 멀어져가는 발아래를 내려다본다. 황조롱이는 어느새 가고 없다. 바람 소리와 여름새들의 날갯짓 소리가 규칙적이고 편안하다. 공기 중에 감도는 행복을 느낀다. 선선한 바람과 주변의 칼새들과 해오라기, 그리고 제리의 존재를 느낀다. 제리의 눈을 본다. 그녀는 그 무엇보다 행복해 보인다. 우리는 한없이 올라가며 주변에 하나둘 가까워지는 구름을 본다.

여름새들과 두 마리 미조가 남쪽 하늘을 향해 위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다. 붉은 스웨터 털실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가리킨다. 그 끝만을 바라본 채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녀의 혼수품 1호를 아시나요

일반부 우수상
시 / 연지윤

그녀가 몽골에서 시집을 때
친정에서 혼수품으로 부쳐준 밤하늘,
이천여 개의 별들이 항공 택배로 왔다

낮설고 말 설은 도심 언덕배기 집에서
저녁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면
검은 상자에서 별들이 달칵거려며
우수수 쏟아졌다
한 집에 별 하나씩 들어차 반짝였다

지상의 별들은 새벽녘이 돼서야
하나둘 꺼져갔지만
내일 또 배송된다는 것을 그녀는 안다

그 택배 안 간격 좁힌 별들 사이에 끼워진
분첩 하나, 딸애 떠나보낼 때
넣어준 것인지 탁탁 두드리면
몽골의 고운 햇별이 날렸다

분갑 같은 게르*를 박차고 동두렷
마을이 떠올랐다 광활한 초원이
달무리로 아른거렸다 이제 도시도
푸른 호수를 유목하여야 한다

저 멀리 항공장애 표시등에서는
또 누구의 그리움을 유도하는지
불이 깜박거렸다

* 몽골인들의 이동식 천막집

휠체어와 비행기의 공통점

일반부 우수상
수필 / 유동현

휠체어와 비행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다. 휠체어는 단단한 땅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그마저도 울퉁불퉁한 길이나 높은 턱에 부딪히면 멈춰버린다. 장애인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 작은 계단도 넘을 수 없다. 반면, 비행기는 하늘을 자유롭게 가로지르며 어디든 날아갈 수 있다. 한계 없는 자유의 상징인 비행기와 끊임없이 제약을 마주하는 휠체어는 대조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황덕현 씨를 만났을 때,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그가 인터넷에 올린 글 덕분이었다.

“장애인과 세계여행을 같이 할 분을 모십니다.”

세계여행이 꿈이었던 덕현 씨는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렸다. 이상하게도 글의 시작은 “죄송합니다.”였다. 장애인은 꿈꾸는 것조차 죄송할 일이 되어버린 것일까? 안타까움과 호기심을 안고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은 교통비와 식비를 본인이 부담할 테니, 자신을 보호하고 보조하며 세계여행을 함께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글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무언가에 이토록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며 삶을 돌아보기도 했다.

스크롤을 내리니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미 글은 인터넷에서는 꽤 유명해진 듯했다. 하지만 댓글은 예상외로 차가웠다.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도 있었고, 그냥 가족과 가라며 비아냥대는 목소리도 있었다. 어떤 이는 장애인 요양사의 최저임금을 계산해 글쓴이가 내야 할 돈이 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에 읽었던 문구가 머릿속을 스쳤다.

“보통의 사람은 계획을 하지만, 좋지 못한 사람은 계산을 한다.”

나는 계산하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의 꿈은 절대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내가 글을 읽은 것은 그 글이 올라온 지 6개월 후였기 때문이다. 글이 10만 회 이상 조회되고 1,700개의 추천을 받았다는 건, 그가 이미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 여정을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였다.



둘째, 내가 읽었던 악성 댓글들 때문이었다. 풍선처럼 부푼 그의 마음에 모진 댓글이 바느질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일단 메일을 보내 보기로 했다. 답장을 받을 수 없더라도, 나에게 올림을 선물해준 그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가슴을 뛰게 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와 함께 왜 여행을 함께하고 싶은지를 간단히 적었다.

슬픈 예감은 좀처럼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 안타깝게도 메일에 대한 답장은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고민 끝에 연락처를 실수로 못 적었다면서 연락처를 넣어 두 번째 메일을 보냈다. 사실 전하고 싶은 말은 많았다. 어떻게든 용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의 상황도 모르는 채 힘을 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설레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차분하게 메일을 읽었다. 하지만 내용은 역시 거절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글을 올린 지 3개월 뒤 패혈증 추가진단을 받았고, 오랜 투병 생활로 몸이 아위어 갔으며 평생의 소원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도 모두 지출해야 했다. 몸과 마음이 앞다투어 망가지는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 소원을 포기해야 했다.

얼마 뒤, 덕현 씨와 약속역에 있는 허름한 중식집에서 만났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마지막으로 식사 제안 메일을 드렸고, 그는 승낙했다. 만나서 여행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인생,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전에 만났던 연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중국집을 나와 포옹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한 팀이 되었다. 감사하게도 덕현 씨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주시기로 했다.

그의 눈 속에 가득했던 희망과 의지가 잊히지 않는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외출조차 어려운 그의 삶 속에서, 비행기를 타고 세상을 누비겠다는 꿈은 무모해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덕현 씨는 죽기 전에 꼭 소원을 이루고 싶다고 했다. 그의 눈빛을 보며, 나는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그의 꿈은 나의 꿈이 되었다.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 일용직부터 고액 과외, 심지어 여성용 속옷과 레깅스를 파는 일까지 뭐든지 했다. 그러나 대학생이 두 사람의 여행 경비를 혼자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다. 돈은 쌓이지 않았고, 버거운 일정에 몸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덕현 씨가 전화가 왔다.

“동현님, 저는 이번 여행이 저의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까짓 돈 때문에 마지막 소원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덕현 씨의 전화 한 통이 꽤 큰 힘이 되었는지, 한동안은 또 열심히 일할 수 있

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주말,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다.

“대한민국 청년 꿈 공모전”

청년들이 각자의 꿈을 겨루는 공모전이였다.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우승을 하면 5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간절함이 통했는지, 서류를 무난히 통과했다. 또, 평소에 발표 연습을 많이 한 덕분에 쟁쟁한 60개 팀 중에서 만장일치로 우승을 할 수 있었다. 그 상금은 우리에게 항공권을 선물했다. 우리가 세계를 향해 내디딘 첫걸음이었다.

우승 상금을 받고 신나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로 가보고 싶었던 나라를 꼽았는데, 다행히 꽤 많은 나라가 교집합에 있었다. 덕현 씨의 건강상 기간이 긴 여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오랜 상의 끝에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3개국을 여행하기로 했다.

출국 당일, 그의 표정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덕현 씨가 휠체어에서 해방되어 하늘을 나는 순간,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비행기 안에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방향으로 날아갔다. 하늘길은 공평했고, 울퉁불퉁한 땅과 달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여행 도중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공항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현지에도 도착해서는 무더운 날씨와 최악의 도로 상태로 고통받았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덕현 씨는 행복해 보였다. 하늘을 누비며 자유로움을 느끼고 무한한 가능성을 얻고 난 뒤, 그에겐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덕현 씨에게 아껴둔 질문을 던졌다.

“덕현 씨.”

“네?”

“왜 세계여행을 하고 싶으셨어요? 이동도 힘드시고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동안 조심스러워서 묻지 못했지만, 필리핀의 기분 좋은 밤공기와 생맥주의 취기가 용기를 더해주었다.

“자유를 느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다른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의 대답은 비행기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수단이며 하늘은 편견 없는 평등한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덕현 씨와의 여행을 통해 휠체어와 비행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바뀌었다. 두 이동 수단은 겉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덕현 씨에게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유'였다.

휠체어는 익숙한 곳에서 그를 움직이게 했고, 비행기는 그가 가보지 못한 곳을 마음껏 누비게 해주었다. 휠체어가 과거의 고난을 이겨냈던 힘이라면, 비행기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넓히며 새로운 자유를 선물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덕현 씨가 입을 열었다.

“동현 씨.”

“네?”

“저는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늘을 날면서 느낀 자유로움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또 떠나고 싶습니다.”

덕현 씨의 눈빛에는 어느새 새로운 희망과 의지가 가득했다. 그 눈빛을 바라보며,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하늘을 지탱하는 책임감

일반부 우수상

수필 / 윤정래

이따금씩 내 업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마라톤처럼 느껴진다. 매일이 바쁘게 돌아가고, 과정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어깨는 항상 무겁다. 그 무게감이 단순히 서류 더미나 시간에 쫓기는 데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크고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결국 하늘 위의 수많은 목숨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나는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지도, 부품을 손수 만들지도 않는다. 하지만 내가 담당하는 서류들이 하나씩 모이다 보면 마침내 거대한 항공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 작은 글자들이 주는 책임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나는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닌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비행기라고 하면 그저 하늘을 나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 쇳덩이가 중력을 거스르고 공중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했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던 막연한 두려움은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면 금세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직접 항공기 부품 제조에 참여하면서, 비행기는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니게 됐다. 이제 그것은 생명을 담은 존재였다. 내가 담당하는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그 거대한 기계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느새 어깨에 얹어진 책임감은 한층 무거워졌다.

내 책상 위에는 두 개의 모니터가 놓여 있다. 그 안에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개발 계획과 현황, 보고서, 그리고 수많은 고객의 요구 메일이 가득하다. 지금은 1달 전에 납품했던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되어 고객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류가 내 책상에 가득하다.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나는 문서에 알 수 없는 그림, 기호, 그리고 수많은 선과 숫자들이 단순한 데이터 이상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 하나하나가 하늘을 나는 기계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그 부품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비행기는 그저 무겁기만 한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 사실은 항상 나를 긴장시키지만, 동시에 내가 맡은 일의 가치를 더 깊이 느끼게 한다.

항공기 부품산업에서 내 위치의 책임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른 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과는 달리, 항공기는 수백 명의 생명과 직결된 기계다. 우리는 항상 100%를 넘어 그 이상의 안전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나의 작은 결함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실수조차도 사치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계산해도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일에서 느끼는 자부심에 의지한다. 내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주로 좌석이나 창문, 기내 서비스에 주목한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작은 부품들이 있다. 그 부품들이 제자리에 있고, 정확하게 작동할 때 비로소 비행기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나에게 항상 큰 자부심을 안겨준다.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지 않지만, 그 비행이 가능하게 만드는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 일은 결코 작지 않다.

지금은 화물기 개조사업의 사업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작업은 단순한 구조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내부 구조를 바꾸고, 무게 분산을 재설계하여 기체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팀과 함께 노력하며, 우리가 만든 부품들이 새로운 구조에서 정확히 맞물리도록 관리한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올해, 운이 좋게도 해외 고객사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개조 중인 항공기,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부품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 비행기는 한때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날던 여객기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사람 대신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기로 개조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개조 작업을 지켜보며, 나는 비행기라는 존재의 복잡함을 새삼 실감했다. 수백 개의 부품과 케이블이 얹혀 있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비행기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 일을 하면서 나는 무엇보다 책임의 무게를 배웠다. 하나의 작은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그 실수는 하늘 위를 비행하는 수많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 압박감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나는 그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책임감이 나를 더 정밀하고 신중하게 만든다.

내가 맡은 작은 부품 하나, 혹은 개조 작업의 한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항공기라는 작품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그 항공기는 하늘을 가로질러 국경을 넘고, 사람과 물건을 이어준다. 비록 내가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지는 않지만, 비록 내가 직접 그 비행기의 부품을 만들지도 않지만, 그 비행에 내가 업무가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나에게 큰 동기를 부여한다.

비행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안전과 꿈을 실어 나른다. 내가 맡은 부품들이 이 거대한 연결망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사

실을 깨달을 때, 더욱 뿌듯함을 느낀다. 책임감과 자부심은 나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면, 그 일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없다면, 이 책임을 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내가 매일 일터로 나아가는 이유다.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의 책임감과 자부심 덕분에 그곳을 날고 있다. 나는 오늘도 크고 작은 우리 회사가 만든 부품 하나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한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늘을 지탱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스무 살의 나를 만나다

일반부 우수상
수필 / 최옥숙

베트남으로 은퇴 기념여행을 떠나기 위해 아들 내외와 함께 인천공항에 들어섰다. 그간 친구나 자녀들의 제안으로 비행기를 탈 일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과거에 생긴 비행 올렁증으로 번번이 고사하다 이번에 큰 용기를 내보았다.

처음 본 인천공항은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보다 더 크고 웅장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내는 웅성거림이 하나로 합주되어 마치 타종 치듯 귓전을 때렸다. 정신없이 입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게이트에 앉아 한숨 돌리니 비로소 우리가 타고 갈 비행기가 눈에 들어왔다. 아득히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미끈하게 쭉 빠진 동체 아래로 사람들이 부지런히 오가고, 비행기 위로는 가을 하늘이 황홀하게 일렁였다. 어느덧 눈앞의 비행기는 오십여 년 전 비행기를 처음 타던 그날로 나를 데려다 놓는다. 기억 깊은 곳에 잠들어있던 빛나는 젊은 시절이 물결치듯 머릿속에 펼쳐진다.

가수가 되어 베트남으로 가기까지

어린 시절 내 꿈은 가수였다. 수업 중 선생님께서 질문을 받으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입술만 달싹거리던 수줍음 많은 소녀였지만, 장기자랑 시간만 되면 180도 돌변해 학우들 앞에서 두 눈을 반짝이며 노래를 부르곤 했다.

가난이 젊음의 윤기마저 바삭 말려 버리던 그 시절,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당시 나는 화성학을 비롯해 피아노와 기타 등 각종 악기들을 배웠는데, 내 학원비를 벌기 위해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을 나갔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성공하고 싶어 열심히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 내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기획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다. 내가 속한 팀은 메인 싱어인 나를 비롯해 오르간 1명, 기타 2명, 드럼 1명으로 구성된 5인조 여성 보컬밴드였다.

부푼 꿈을 안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국내의 연예산업이 태동기에 들어선 때라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았다. 처음 1년은 변변한 무대 위에 한번 서보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며 시간만 보냈다.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다. 당시 전쟁 중이었던 베트남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파병 온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위문공연팀을 모집했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해외로 나가 제대로 꿈을 한번 펼쳐보기로 뜻을 모은 우리 팀은 오디션을 봐서 당당히 베트

남 위문공연팀에 뽑히게 되었다.

나와 우리 팀원들은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약 한 달 동안 모처에서 반공 교육을 받았고, 전쟁터에서 공연하다 사망해도 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썼다.

비행기를 타고 꿈을 향해 날아오르다

베트남으로 떠나던 날, 나는 극도로 긴장한 탓에 밤을 꼬박 새워 허영게 뜬 얼굴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다른 팀원들도 사정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긴장을 누르고 비행기에 오르자 지금까지 불안정했던 나의 꿈과 미래가 조금은 선명해진 느낌이었다. 마침내 우리를 태운 비행기가 지상에서 벗어나 바퀴를 거둬들이고 하늘을 향해 비상했다. 그 순간 나 역시 한 마리 고고한 새가 되어 날개를 펴고 꿈을 향해 날아올랐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간다는 건 꿈을 향해 달리는 일이었다. 나는 비행기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려 지난 이십년간 내가 살아온 세상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머지않아 빛나는 별이 되어 금의환향할 내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비행기가 각도를 높이자, 드럼을 치는 친구가 아랫배가 간질거리는 것 같으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잠시 후 짜릿한 통증이 귀로 밀려들자 친구는 손을 더 거세게 움켜쥐었다.

지상에서 발을 댄 비행기는 어느덧 최대한 높이 오를 수 있는 고도까지 날아올랐고, 끝이 없을 것만 같은 새하얀 구름을 발판 삼아 앞을 향해 나아갔다.

가수의 꿈을 위해 전쟁터에 오다

당시엔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어 먼저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홍콩을 거쳐 베트남으로 가게 됐다. 현재는 호치민으로 불리는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에 도착하자,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후텁지근한 온도와 습도 덕분에 비로소 베트남에 왔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대절버스를 타고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 숙소로 이동했다. 우리가 묵게 될 숙소는 규모가 큰 2층집이었는데, 큰방 하나에 팀원 5명과 무용수 1명 등 총 6명이 쓸 침대 여섯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곳에는 우리 팀 외에도 총 열개가 넘는 팀들이 위문공연을 와 있었다.

다음날 새벽녘, 나는 어딘가에서 울려 퍼진 포탄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머나먼 타국 땅으로 날아왔지만, 내가 꿈을 펼칠 이곳이 전쟁터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당시 베트남에는 이십대 초반의 아가씨들로 구성된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게 두 가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바나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나나가 아주 귀한 시절이었다. 우리는 시장에서 바나나를 뭉텅이로 사서 한풀이라도 하듯 앉은 자리에서 각자 4~5개씩을 먹어치우곤 했다.

특히 팀원 중 한 명은 아예 밥도 먹지 않고 바나나만 십 수개씩 먹다가 심한 설사병이 나기도 했다. 매니저가 병원으로 데려가 링거를 맞고 난 후에야 간신히 진정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귀걸이였다. 그 시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귀를 뚫는 경우가 없었다. 베트남의



젊은 여성들이 귀를 뚫은 것을 보고 우리는 다섯 명 모두 귀를 뚫었다. 옥수수대를 냉동실에 넣어 얼렸다가 컷볼 뒤에 대고 귀를 뚫었는데, 다음날 귀가 꿈아 땀땀 붓고 통증이 심했지만 모두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 했다.

감동적인 첫 공연과 비행 트라우마

첫 공연을 하던 날, 우리는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헬기에 올라탔다. 막상 탑승을 하고 보니 헬기에 문이 없었다. 헬기가 하늘을 향해 떠오르자, 거센 바람에 몸이 밖으로 튕겨져 나갈 것 같아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다. 30분 정도 이동을 하는데 너무 무서워 너나 할 것 없이 헬기 기동을 붙잡고 울었다. 덕분에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화장을 다시 해야만 했다.

나는 미니원피스와 롱부츠에 걸맞은 화려한 화장을 하고, 긴 머리 가발을 쓴 채 무대 위에 올랐다. 엄청난 환호성을 받으며 팀 전체가 함께 인사한 후 공연을 시작했다.

그간 연습해온 대로 밴드의 연주에 맞춰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If You Love Me', 'Love Me Tender' 등을 연이어 불렀다. 귀가 찢렁찢렁하게 울려 퍼지는 합성과 박수소리 들으니 베트남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성공적인 첫 무대를 끝마쳤다.

공연이 모두 끝난 후 우리 팀은 미군 장교 클럽에 가서 식사를 했다. 한국에서는 구경조차 해본 적 없던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준비돼 있었다. 우리는 극구 만류하는 매니저를 외면한 채 식판에 갖 구운 빵과 치킨 다리, 피자 등을 가득 쌓아놓고 먹었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가수였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맛있는 음식을 보고 참지 못하는 여느 평범한 소녀들과 같았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코코넛 열매를 파는 가게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아자수에서 직접 따주는 코코넛 열매가 너무 맛있어 수시로 사 먹었는데, 코코넛을 많이 먹어서인지 푸석푸석하던 머리카락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비단결처럼 윤기가 흘러넘쳤다.

커져만 가는 전쟁의 공포와 고향에 대한 향수

우리가 있는 곳은 전후방이 따로 없었다. 공연을 하는 도중에도 수시로 포탄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날인가는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내 귀에는 엉뚱하게도 팝콘이 튀는 소리로 들렸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탄 헬기를 향해 적이 총을 쏘던 것이다.

원래의 숙소를 벗어나 임시 숙소에서 묵을 때 숙소 밖에서 총알이 날아온 적도 있었다. 한 참을 안에서 벌벌 떨다가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보니 땅바닥에는 탄피가 잔뜩 나뒹굴고 있고, 대문이 떨어져나가 있었다. 꼼짝없이 이렇게 죽는구나 싶어 여섯 명이 꼭 끌어안고 울면서 꿀떡 밤을 새기도 했다.

합성소리가 울려 퍼지는 화려한 무대, 엄청난 갈채와 환호, 갖가지 진기한 음식들이 쌓여있는 미군 장교 클럽 ... 고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웅숭한 대접과 생활에 흠뻑 취해 1년이 훌쩍 지나갔다. 회사 측과 1년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우리의 급여는 우리나

라 공무원의 5배가 넘는 아주 큰 액수였다.

하지만 그와 함께 전쟁에 대한 공포와 고향에 대한 향수도 커져만 갔다. 그렇게 가수 생활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자부심은 시간의 축적 속에 매일 조금씩 희석되어갔다.

어느덧 현지에 있는 '아리랑'이라는 한국음식점을 찾아 김치찌개를 먹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고, 너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기 어디쯤에 내 나라, 내 가족이 있을지 가능해보는 게 습관이 되고 말았다.

어느 날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던 중에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다. 한국과 베트남의 물리적 거리는 3600km. 그 거리가 현생과 전생의 거리보다 더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순간 눈물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그림과 서러운 마음에 흐느끼며 노래를 이어갔는데, 그 광경이 마치 가수가 노래에 심취한 모습으로 보였는지 엄청난 화제가 되며 수많은 앙코르 세례를 받았다.

한 갑 라이~(다시 또 만나요!)

드디어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났다. 다시 재계약을 하나 마나를 놓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거듭하던 나는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번만 더 계약을 연장하자는 회사의 거듭된 만류에도 내 결심은 바뀌지 않았다. 당시 나는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 있었다. 결국 회사에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싱어를 다시 구해 팀을 재결성하기로 했다.

얼마 후 나는 "한 갑 라이~(다시 또 만나요!)"를 외치며 비행기에 올랐다. 베트남을 출발해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신자, 처음 올 때와는 달리 속이 울렁거리고 불안했다. 문이 없는 헬기를 탄 것도 모자라, 아래에서 날아드는 총탄을 눈으로 직접 본 트라우마로 인해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던 것이다.

너무 무서워 눈을 꼭 감고 잠을 청했다. 쉽사리 잠이 올 리가 없었다. 이번에는 고국에 있는 엄마를 떠올려 보았다. 시간이 흐르자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홍콩에서 내린 나는 플라자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저녁 무렵,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들이 모여 있는 홍콩의 쇼핑가로 향했다. 일반적인 백화점이라니 생각하고 한곳을 찾아 들어갔는데, 눈앞에 모택동 사진이 붙어있었다. 당시 철저하게 반공교육을 받았던 나는 그곳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다른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홍콩을 떠나 일본을 경유해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기쁨에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밀리는 통로를 따라 내딛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과 새로운 도전

번아웃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나는 한동안 집에서 쉬며 치킨 몸과 마음을 충전했다. 그리고 그 사이 우연히 알게 된 청년의 구애를 받아들여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다. 결혼 후에도 몇 번이나 무대 위에 다시 서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달아 아이를 갖게 되면서 점차 가수의 꿈은 멀어져갔다.

아이들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와중에도 나는 이따금씩 비행기를 타고 다시 베트남으로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가수의 꿈을 펼치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하는 스무 살 때로 돌아가 있었다. 그렇게 어느 날은 비행기를 타고 푸른 창공 위를 날아가는 꿈을 꿔고, 또 어떤 날에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커다란 환호 소리를 들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내가 스스로 내려놓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이 컸기 때문일까. 간간히 밴드 동료들의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다. 내가 비행기에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미미한 존재가 된 것 같아 허무함이 밀려왔다.

다행히 내 곁에는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들과 등직한 남편이 있어 큰 위로가 됐다. 가수라는 꿈은 내려놓았지만,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평범한 삶도 충분히 보람되고 행복했다.

그렇게 약 20여년을 전업주부로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같은 밴드에서 드럼을 치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그 친구는 노래강사로서 한창 입지를 다지고 있었는데, 나에게도 노래강사를 한번 해보라고 진지하게 권유했다.

고민 끝에 그 친구에게 소개받은 문화센터에서 정식으로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하면서 나 역시 노래강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비록 무대 위에 선 것은 아니지만, 수강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보람은 다시 한 번 나를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올려주었다.

나는 희미해진 가수의 꿈을 다시 펼치듯 노래강사 일에 몰두했고, 그 후 무려 25년 동안 노래를 배우려는 수강생들 앞에 섰다.

얼마 전 나는 은퇴를 했다. 50년 음악 인생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던 날, 아들 내외가 문화센터에 와 주었다. 며느리가 꽃다발과 함께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속에 들어있던 건 다른 아닌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이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던 내게 며느리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의 50년 음악 인생이 시작된 곳으로 다함께 여행 가요! 제가 손 꼭 잡아드릴 테니까, 비행기 타는 건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라고 말했다. 며느리의 따스한 말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 붉어졌다.

Hello Vietnam!

탑승하라는 안내 방송이 들려온다. 이제는 일본과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도 바로 베트남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돌며 비상하기 시작한다. 두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아 주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눈을 떠보니 건물들 사이로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자그맣게 보였다. 땅도 집도 마을도 깨알처럼 보였다 사라진다. 어느새 푸른 바다 위에 점처럼 박혀 있는 섬들만 보인다. 하얀 구름위에 비행기가 내려앉아 멈춘 듯 평온해졌다. 허공에 떠 있다는 두려움도 잠시, 그 언제인가처럼 가슴이 다시 설렘으로 차오른다.

스무 살 그 시절, 비행기를 타고 꿈을 향해 날아오르던 그 날이 떠오른다. 베트남에서 가수의 꿈을 이루고, 고국으로 돌아와 결혼이라는 항로에 들어서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노래강

사가 되어 제2의 여행을 해온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추억을 곱씹는 사이 4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기내에서는 ‘Hello Vietnam’이 흘러나온다. 창밖으로 베트남 호치민의 모습이 내려다보인다. 그곳에서 스무 살의 내가 환히 웃으며 손짓하고 있다.

구름 위의 평온

일반부 우수상
시 / 최항석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며
구름을 헤치고 올라섭니다.
그 아래엔 어제의 걱정,
지상의 무거운 짐들이
점처럼 작아져만 갑니다.

둥근 창 너머로
세상이 액자가 되어
구름 위 푸른 물감을 뿌려 놓은 듯,
내 마음 속 무거움도
조용히 색을 바꿔갑니다.

엔진의 소음은
차츰 내게서 멀어지고,
구름 위에서 나는
평온의 숨결을 느낍니다.
하늘은 푸르게 열려 있고
바람은 나직이 속삭입니다.
“잠시 쉬어가도 좋다”고.

창밖을 내다보니
수평선 위로
새하얀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그 위에 내려앉고 싶은 마음이
나를 휘감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런 소란도 없고,
오직 고요만이
마음 깊숙이 스며듭니다.

잠시나마 내게 허락된

이 고요한 공간에서,
나는 구름 위를 유영하며
하늘의 넓은 품에 안깁니다.
지상에서 가졌던 모든 불안이
한날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순간,
비행기의 작은 창문은
내 인생의 렌즈가 되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착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들리면
이 마법 같은 시간이 끝나고
액자 속 세상은 다시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늘에 머무는 동안
나는 잠시나마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구름 위에 깃든 고요를 마음에 담습니다.
비행이 끝나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도
이 순간의 평온은 내 안에 남아,
내가 걸어갈 길을
부드럽게 비춰줄 것입니다.



중·고등부

최우수상	시	한여름 비행(최지우)
우수상	시	진로불시착(서혜승)
	소설	하늘 위 이방인(손민성)
	수필	비행의 목적지(손유정)
	소설	Flight to my spring(신에서)
	수필	인간의 동경(이유림)
	시	하늘에서 만나다(이윤희)
	수필	시간의 문을 넘어 하늘에서 펼친 항일활동(이효재)
	소설	비행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한다.(조우령)



최우수상

중·고등부

한여름 비행

시 / 최지우



한여름 비행

중·고등부 최우수상
시 / 최지우

공항 속에서 비상하는 여름의 목소리가 술렁이고
항공기가 날아오르자 날개에 고여있던 빛의 가루가 흘러내린다

여름의 초입에서 떠다니는 빛을 구경한다
창밖에는 활주로를 달리는 빛줄기가 가득하고
비행기의 날개마다 바람의 숨결이 가득 고여있다

어딘가로 떠나려는 발자국엔 녹음이 가득 고여있고
공항 곳곳에서 푸른 잎사귀가 돌아난다

무성하게 자란 여름 속에서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
잎맥마다 흐르는 햇빛이 공항을 가득 채우고
무엇이든 준비가 필요한 곳에서 길을 잃곤 한다

이제 막 날아오른 여름의 맥박이 요동치고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의 먹먹함
덜 익은 과일을 깨물었을 때의 시큼한 맛

온 공기가 귓속 가득 들어찰 때면 눈을 질끈 감는다 종착지를 상상하면 몸 속 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한여름 공기의 입자들

비행기가 날아오른 길마다 바람의 굳어있던 근육이 풀려나고
날개 끝에선 구름이 하얀 실처럼 풀려나온다

한 번 날아오른 비행기는 끝도 없이 날아오르고
빛의 궤도를 따라 유유히 헤엄치기 시작할 때

창공에는 이제 막 날아오른 빛들의 지문이 가득하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여 비행을 완성하고
여름이 활주로를 따라 날아오르는 장면

여름의 종착지에는 잘 익은 열매가 가득할지도 몰라
나무마다 싱그럽게 튀어오른 마음을 따내면 손 안에 고이는 빛의 행렬들



우수상

중·고등부

진로불시착 시/서혜승

하늘 위 이방인 소설/손민성

비행의 목적지 수필/손유정

Flight to my spring 소설/신예서

인간의 동경 수필/이유림

하늘에서 만나다 시/이윤희

시간의 문을 넘어 하늘에서 펼친 항일활동 수필/이효재

비행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한다. 소설/조우령



진로불시착

중·고등부 우수상
시 / 권수진

나는 미래의 적정고도를 찾고 있다

내 방 창 밖으로 손톱보다 작은 비행기가
푸르스름한 새벽 하늘을 사선으로 날아간다
새벽 하늘을 한 줄 씩 끊어 읽었다
비행운은 하늘 위를 가로지르다가
끝자락부터 흐릿해진다

나는 수학 모의고사 문제집 위로 빨간 펜을 휘두른다
펜촉은 수식 위에서 저공비행을 한다
세 번째 선지 뒤에서 선회하다가
다시 여백 위에 수식을 적는다
볼펜이 선지 사이를 헤매고 있다
나는 착륙할 지점을 모르고
미지수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다

비행기는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한다
나는 목적 없는 비행을 하고 있다
파일럿은 철새에 올라타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가 사막에 불시착할 때
아주 작은 몸집을 가지게 되었다는 풍문

이십 사 번 문제는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한다
그 밑에 강조선이 그어져 있다
나는 거기에 동그라미를 덧그린다

반장이 진로상담 용지를 걷어가고 난 후
선생님은 교무실로 나를 호출했다

선생님은 비행 고글을 썼고

교무실이 너무 좁아서 우리는 사막에서 만났다

나는 노란 목도리를 변명처럼 돌렸다
믹스 커피 속 카페인
내 왼 가슴에 초조함을 퍼트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흰 종이 위에 상자를 하나 그려주고
이 안에 꿈을 산출하는 함수가 쓰여 있다고 말했다

내 방 창문 바깥으로 내다보이는 비행기는
창문의 프레임만큼만 뻗어나갈 수 있는 미래였으므로
나는 창문의 프레임만큼만 뻗어나갈 수 있는 미래였으므로
나는 창문 만한 꿈을 동경하고 있었다

비행기는 창틀의 가장자리로 날아간다
붉은 십자가가 지붕 위에서 반짝거린다



하늘 위 이방인

중·고등부 우수상

소설 / 손민성

내일은 방학식이었다. 내가 떠나는 날이기도 했다.

차츰차츰 해가 저물었다. 일자로 나열된 분홍색 아파트에 새까만 그늘이 늘어졌다. 한여름의 뭉게구름은 살구색을 띤 채 멀고도 높이 떠 있었다. 선명한 윤곽, 사소한 결마저 다 보였다. 나는 팔을 뻗었다. 허공에서 가느다란 손가락이 허우적댔다. 손가락 사이로 새가 빠르게 날아갔다. 내일이면 나도 저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몸속이 근질근질했다. 하고 중이던, 같은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얼굴이 달아오른 나는 아차, 하며 손을 내렸다. 주목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나의 첫 번째 원칙이었다. 하지만 생소한 내 얼굴은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유 없이, 혹은 아주 명확한 이유로 한 번씩 보게 만들었다. 그것이 신기해하는 눈길이던 배척과 약간의 자부심이 섞인 시선이던, 나에겐 무섭고 답답했다. 베트남어 해 줘, 너 눈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눈 같아 등의 말처럼 직접적이진 않았어도 말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늘 그렇듯 걸음을 계속했다. 생활복 틈새로 들어온 미지근한 바람에 등에 땀이 주르륵 흘렀다. 베트남도 덥겠지. 햇빛이 더 강할지도. 주위에 풀벌레 소리와 매미 소리가 가득했다.

뭉게구름 앞으로 비행기가 그림자처럼 지나갔다. 이어 공기를 찢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풀벌레 울음이 들리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내일이면 느끼게 될 비행기가 이륙하는 기분을 상상했다. 붕 뜨는 기분이 들었지만 발은 여전히 땅 위였다. 멀어져 가는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비행기가 정면에서 비행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늘 비행기의 측면 아니면 아래부분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 제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비행기가 좋았다. 딱히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건 아니었다. 내가 가는 곳이 나를 반겨줄지도 모르겠고. 어렸을 적 엄마의 고향 베트남에 가본 게 내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이었다. 사실 해외여행이라 할 것도 없었다. 그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뵙고 엄마와 외할머니가 살았던 동네에 이주 일 정도 머물다 온 게 다였다. 저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제주도일까, 베트남일까, 미국, 아니면 뉴욕일 수도 있었다. 비행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나는 남색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얼굴을 훑었다. 석양을 받아 얼굴이 새빨개진 아이들은 다들 피곤해 보였다. 보풀이 잔뜩 일어난 가방끈 끝부분이 불어오는 바람에 너풀거렸다. 문득 궁금해졌다.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

26번, 마지막 번호였던 나는 6월 모의고사가 끝난 지 한참 지나서 선생님과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담임은 체구가 큰 편이신 지구과학 선생님이셨다. 컴퓨터에 1학년 때부터의 내 성적이 띄어져 있었다. 비행기 좌석처럼 정갈한 네모 칸 안, 내 등급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속으로 그것들을 읽어 내렸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애매한 성적이었다. 고2가 되도록 꿈이 없던 나는 선생님의 눈과 마주치자마자 죄송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이제는 지망하는 학과가 생겼어?”

선생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나는 힘없이 좌우로 고개를 흔들었다. 선생님이 물었다. 음, 그러면 대략적인 계열은? 나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 이셨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얼른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진학의 목표는 대학이라고. 안 그러면 고등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고졸로 끝나고 싶냐고.

“그래, 저번에 네가 말했던 애들은 요새는 어머니? 선생님이 계속 주의 깊게 보긴 했는데 아직도 놀리고 그래? 너희 어머니가 베트남 분이라 해서 기죽을 것 없어.”

선생님은 대화 주제를 바꿔 물으셨다.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교무실 창밖으로 정문 앞에 세워진 노란색 입간판이 보였다.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빨간색 경고의 말이 쓰여있는 입간판이었다.

“...아,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사실 그 애들은 더 교묘하게, 여전했다. 웃긴 건 베트남에서도 그랬다.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나를 밀어내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선생님은 책상 위 망고 젤리를 내 쪽으로 밀며, 내쉬는 숨과 함께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족한 과목에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주글주글한 젤리의 뒷면을 확인했다. Made In Vietnam. 베트남에서 만든 망고 젤리였다.

오늘따라 아파트 계단이 작고 많게 느껴졌다. 코로 숨을 들이쉬자, 습기를 잔뜩 머금은 공기가 들어왔다. 뻑뻑한 현관문을 힘겹게 열고 집에 도착했다. 더위를 먹었는지 좀처럼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통통 튀는 게임 배경음이 들렸다. 익숙한 냄새도 풍겼다. 초등학교 6학년 동생은 나보다 학교가 2시간 정도 일찍 끝났다. 뭐 해? 나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이 찜찜했다. 너 바닥 청소 안 했어? 진한 다색의 바닥이었는데도 길고 짧은 머리카락은 너무나 잘 보였다. 동생 방문을 열었다. 여전히 묵묵무답인 동생의 책상에는 과자가 잔뜩 남아있는 봉지가 있었다.

“아, 언니 왔어? 근데 언니 비행기 모드 알아? 애들이 비행기 모드 누르면 핸드폰이 난다고 했어. 근데 내건 안 날아. 언니 폰도 그래?”

비행기 모드를 누르면 핸드폰이 난다니. 그냥 장난일까. 아니면 수회도 나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걸까. 물론 전자기질 바랬다. 하지만 예감은, 둔하고 미련한 내 동생 수회도 후자일 거라고 했다.

“응. 내 폰도 못 날아.”

나는 유리 그릇을 들고나와 싱크대 안에 넣었다. 싱크대 안에 오늘 아침 설거지가 들어있었다. 무광과 유광 사이의 재질로 말라 있는 싱크대를 보니 엄마가 떠올랐다. 엄마가 있을 땐 싱크대는 늘 물로 빛나 있었다. 부엌에서 집의 구조를 훤히 볼 수 있었다. 집에 있을 땐 거의 부엌에 있던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뒷집 아줌마는 빈정거리며 우리 집이 은행집이라고 했다. 빚내어 산 집이라는 뜻이었다. 아빠는 그래도 내 방과 안방은 은행 집이 아니



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했지만, 그 말을 들은 뒤 얼마 안 돼서 엄마는 집을 나갔다. 그리고 윗집 아줌마의 말은 어쨌선지 내 가슴 속에 깊은 곳에 뿌리만 긴 나무처럼 안착해 버렸다. 벌써 1년 전 일이다. 엄마가 떠난 뒤 동생은 집에서 게임만 해댔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였기에 구역구역 학원에 다니긴 했지만, 집에 있을 때는 연신 경쾌한 게임 배경음만 울어댔다.

설거지를 마친 후, 균형을 잃은 무릎이 빠걱뚱했다. 파리를 잡으려고 설치한 끈끈이 위에 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 집은 은행집이야. 집에서 마저 엄마는 이방인이었다. 나와 수희야, 아빠도. 우리 가족 모두 이방인이었다.

엄마는 20년 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엄마는 아프셨던 외할머니를 혼자 두기 싫었을 것이다. 세상엔 어쩔 수 없는 게 많아. 사람이니까. 엄마는 서투른 한국어 발음으로 덧붙였다. 엄마가 다른 베트남 여자들과 한국 땅 위에 도착했을 때, 그때 비행기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고 했다. 딱딱한 투명창 너머로 내다본 하늘은 하늘색이 아니었다고.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빛나는 주황색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지옥으로 가는 입구가 생각났다.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여전히 한국일까. 아니면 베트남으로 돌아갔을까. 나보다 작은 엄마가 갈 곳이 있을까. 엄마가 집을 나가던 날, 나는 엄마가 떠나는 걸 알았는데도 붙잡지 않았다. 사실 엄마가 집을 떠나는 것 보다 엄마가 수희와 함께 가는 것이 더 무서웠다. 수희가 엄마를 더 닮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수희가 눈을 떴다. 우리 자매는 서로를 마주 본 채 엄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엄마가 그저 쓰레기를 버리러 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지금이라도 나가서 엄마에게 가지 말라고 할까,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밝은 어둠 속에서 수희의 시선이 느껴졌다. 눈물이 흘렀다. 그 뒤, 엄마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엄마는 다시 돌아올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5시쯤 아빠가 집에 왔다. 아빠는 공사장에서 철근을 옮기는 일을 했다. 공사장에 따라 일하는 곳이 달랐다. 어떤 공사는 6개월만, 어떤 공사는 자그마치 5년 동안 이어졌다. 또, 지금 같은 한여름은 열사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작업했다. 그러면 아빠는 3시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들어온 걸까. 이 더운 날 초과근무를 한 걸까. 오 늘뿐만 아니라 아빠는 자주 늦게 들어오곤 했다. 아빠의 이상한 점은 더 있었다. 안 어울리게 누군가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내거나 안방에서 오랫동안 통화하곤 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빠가 덤다면서 회색 카라티를 벗었다. 아빠의 등이 시장가판대에 진열된 족발처럼 반질 반질했다. 엄마의 얼굴도 땀에 젖으면 아빠의 등처럼 땀과 기름에 빛났었다. 그렇지만 힘든 티 내지 않고, 오목조목 예쁜 얼굴로 웃고 있을 것이다. 19년 전, 아빠가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일할 때 엄마를 만났다. 그때도 한여름이었다고 했다. 엄마는 돌아갈 수 없는 한 시절을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물걸레 붓을 두 손에 짊어지고 말해줬다. 그러나 그 눈빛은 금세 사라졌다. 입술을 깨물고 힘을 줘서 바닥을 닦기 위해 힘주는 모습만 남았을 뿐.

씻고 나온 아빠의 얼굴은, 여전히 열기가 가시지 않은 채 새빨갰다. 아빠는 소파 끝에 등을

걸치고 바닥에 앉았다.

“일주일 뒤 베트남 갈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그날이…… 수인이 방학식이지?”

아빠는 태연하게 나에게 물었다. 나는 어안이 병병해져 아빠를 보았다. 베트남? 베트남! 소파에 반쯤 누워 폰을 보고 있던 수희가 그 위로 올라가 방방 뛰며 좋아했다. 핸드폰이 소파 위에서 떨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소파는 잇따라 계속 들썩었다.

“야호! 완전 좋아요!”

“……수희야 소파 위에서 뛰지 마. 갑자기 베트남을요? 왜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고, 얇은 입술로 미소를 지었다. 아빠의 미소에 이마에 주름이 두드러졌다. 나는 무언가에 쫓기듯 급박한 기분이 들었다. 엄마를 찾으러 가는 걸까. 엄마가 살았던 흔적을 보러 가는 걸까. 손마디가 저렸다. 손끝이 기분 나쁘게 근질거렸다.

“엄마 보러.”

“야호! 엄마! 거짓말 아니죠?”

수희는 이번에는 거실 바닥 위에서 뛰어다녔다. 내 눈치를 보더니 땀박질을 멈췄다. 나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다. 화도 났다. 엄마는 집을 나간 것 아니었다. 1년 동안 엄마 이야기는 암묵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엄마를 보러 베트남에 가자니. 나와 수희뿐만 아니라 살갑게 지내던 아파트 주민들 모두 엄마가 떠났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가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아줌마들이 상처를 들썩시킨 했지만, 그것 빼고 엄마는 애초에 없던 사람처럼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모두 알고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게 엄마였고 엄마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엄마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아빠가 될 줄은 몰랐다.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베트남. 외할머니 집에 있어.”

아빠는 이상할 정도로 태연했다. 아빠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그리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지고 그 집은 계속 비어있던 건가. 나는 7년 전에 갔던 외할머니 집을 떠올렸다. 땅의 열기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위해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고상 가옥의 형태였다. 흙먼지를 뒤집어쓴 검정색 지붕, 낡고 색바랜 나무집이었다. 마냥 푸르지 않던 커다란 나무 한 그루도 있었다.

“근데 왜 지금 와서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약간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이해되질 않았다.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다. 세상엔 어쩔 수 없는 게 많아.

“이제 1년 정도 됐지……. 1년 전 네 엄마가 베트남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 지금은 베트남에서 잘 지내고 있네. 거기서 일하고, 익숙한 언어가 들리고, 고향의 냄새를 맡고 있겠지. 그리고 어제 비행기 티켓을 보냈어.”

“왜요?”

“너희들이 보고 싶대. 놀러 오래.”

수희는 엄마가 사준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신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애초에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다. 그리고 아빠는 사람 좋은 미소를 띄고 있었다. 나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수희



에게도 배신감이 들었다. 아빠는 떠난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고, 엄마는 그 사실을 아빠에게만 말했다. 전화도 안 되던 엄마. 그런 엄마가 나와 수희가 보고 싶다니. 사실 엄마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가난을 되돌려 받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간 엄마를 찾아가려 했다. 그렇지 못하면 영영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책상 위 놓인 웃고 있는 엄마와 나, 수희의 사진이 보였다. 유채꽃밭에서 아빠가 찍어준 사진이었다. 이때는 내가 엄마보다 작았었네. 가족이 맞다는 듯, 세 모녀 모두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쌍꺼풀이 진한 반짝이는 반달 모양 눈을.

내일 학교는 12시에 끝난다. 바로 집에 와 청주 공항으로 간다. 비행기는 오후 2시 50분에 출발한다. 나는 잠을 자기 위해 얇은 이불을 깐 바닥 위에 누웠다. 예상했던 대로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엄마를 보면 무슨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엄마는 능청스러운 얼굴로, 그렇지만 여전히 미숙한 한국어 발음으로 오랜만이라며 그런데 키는 그대로라며 웃어 보일 것 같았다. 방충망 너머에서 벌레가 찌르르 울었다. 그 소리들은 귓바퀴를 맴돌 뿐 귓속에 들어가진 않았다. 하도 많이 들어서, 용량이 꽉 찬 핸드폰처럼 더 이상 당도할 곳이 없었다.

이윽고 아랫집 할아버지의 덜컹거리는 트럭 소리가 들렸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지금 들어오신 거였다. 곧이어 아랫집 할머니가 비싼 대리비에 대해 화내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야간 항공 중인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집중했다. 내일이면 내가 낼 소리였다. 온몸에 전해지는 소리, 하늘 위를 보게 만드는 소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속되어 내는 커다란 심장 박동 소리.

또 다른 비행기의 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다. 나는 같은 기분을 한 번 더 느꼈다. 언젠가 내가 올라다 본 비행기 중에 엄마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있었을까. 그럴 확률은 별로 없었지만 말이다. 나는 눈을 감고 있는 수희를 보았다. 수희는 설레어 주체 못 하다가 어느새 미세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팔을 올려 수희의 머리를 부드럽게 만졌다. 그리고 땀에 붙어있는 잔머리를 떼주었다.

“헤헤, 언니....”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응. 기뻐서.... 언니가 울지 않고 웃으니까 좋다.”

공항에는 사람이 많았다. 집에선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시원했고, 사람들의 들뜬 공기가 느껴졌다. 아빠는 발급받은 비행기표를 나와 수희에게 건네주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티켓을 크로스백에 넣는 순간까지 주의했다. 땀에 젖은 손 덕분에 티켓 모서리가 주글쭉글해졌다. 수희는 신난 얼굴로 연신 사진을 찍었다.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배경으로. 그 배경에는 나와 아빠도, 거대한 가방과 캐리어를 끌고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도 있었다.

아빠와 나는 수희를 의자에 앉히고 사람이 몰려 있는 곳으로 가 수화물을 전달했다. 수화

물이 서서히 사라지자,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것과 엄마에게 간다는 게 실감 났다. 커피를 마신 듯 심장이 아릿하며 떨렸다. 엄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놀러 오라는 건 무슨 의미였을까. 엄마도 나처럼 떨릴까.

“아빠, 저 비행기가 우리가 탈 비행기예요?”

아빠는 수희의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깨끗한 통창을 통해 비행기의 앞부분이 보였다. 아빠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5시간 17분 비행이었다. 도착하면 밤 8시쯤 됐고, 엄마는 마중을 나와 있을 것이다. 할머니네 댁은 공항에서 가까운 편이었기에 그럴 것 같았다. 집이 아니라 공항에서 우리 가족을 기다리는 엄마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엄마의 모습이 잘 상상되질 않았다. 그때 어디서 익숙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봤다. 금발의 외국인 남자가 단상 위에서 피아노 연주하고 있었다. 제목은 모르지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부드러운 멜로디였다. 그 소리는 떠나가는 사람과 도착한 사람들이 만나는 공항에서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안녕을,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건넸다.

비행기에 타는 입구 앞에서 줄을 섰다. 차례대로 티켓 검사가 진행되었다. 엄마는 아픈 무릎으로 어떻게 5시간 동안 앉아있었던 건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무릎을 두드리는 엄마가 그려졌다. 티켓을 확인받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갈 때 한 곳에 서서 인사 중이던 승무원 언니와 눈이 마주쳤다. 승무원 언니가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부자연스럽게 고개를 내렸다. 더위 때문인지 얼굴이 달아올랐다. 비행기 안은 쾌적하고 시원했다. 옷을 얇게 입은 수희는 들어서자마자 춤다며 몸을 웅크렸다. 창가 자리에 나, 수희, 아빠가 앉았다. 나는 밖을 보았다. 하얀 공항과 맑은 날의 하늘을 닮은 푸른 창이 보였다. 이윽고 비행기가 달리는 느낌이 들더니 붕 뜨는 느낌과 함께 점점 지표면에서 멀어졌다. 부풀어 오른 뭉게구름에 다가갈 수 있고, 하늘하늘한 하늘 위로 날 수 있는, 드디어 비행이었다.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승무원 언니 2명이 기내식 카트를 끌고 왔다. 나는 앞좌석 뒷부분에 붙어있는 작은 모니터로 보고 있던 영화를 잠시 멈추고 기내식을 골랐다. 치킨 요리, 하늘에서 먹으니 더 맛있었다. 기내식을 다 먹고 나니 술술 잠이 왔다. 나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빨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시야가 미치는 가장 맨 끝엔 붉게 물든 구름이 마침표처럼 찍혀있었다. 저 구름 또한 끝이 아닐 거다. 말 그대로 무궁무진한 하늘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니까 말이다. 저 구름은 썬표인 셈이었다. 엄마 말이 맞았다. 해질녘 비행은 아름다웠다. 눈부시게 붉고, 아득하게 가까웠다.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어디서든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으로서 비행을 떠나는 것이다. 승무원이 돼서 몇 번이라도 나를 기다려 줄, 좋아해 줄 사람들을 만나고, 태평양처럼 넓은 엄마의 품에 안기듯 그곳으로 날아가고 싶다. 머리카락이 에어컨 바람에 날려 입꼬리를 간지럽혔다. 나는 한결 편안한 기분으로 눈을 감았다.

그래, 일단 이 비행의 끝에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우리 가족을.



비행의 목적지

중·고등부 우수상
수필 / 손윤희

내가 어렸을 때 일이다. 정확히는 초등학교 5학년 그때 방학 숙제에서 여행 사진을 찍어 오라는 말에 급하게 여수로 가 가족들끼리 여행을 즐겼다. 엄마는 나와 동생에게 특별한 경험을 알려주고 싶어서 인터넷을 보던 중에 패러글라이딩을 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갑작스럽게 숙소에서 패러글라이딩하러 갔다. 그때의 나는 패러글라이딩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라는 엄마의 말에 이끌려서 갔다. 어렸을 때의 난 무서운 것도 겁도 없었기에 능글하게 산꼭대기를 향해 어른들도 제치고 걸어갔다. 산꼭대기에 도착하자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에서부터 시원한 느낌을 받으며 천천히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얼른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순간 내 동생이 나보다 먼저 뛰어내렸는데 순간이지만 동생이 소리를 지르며 우는 모습에 나 또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이미 울지 않고 탈 수 있다며 큰소리를 치고 온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강사님에 품에 안겨 눈을 꼭 감고 하늘을 향해 뛰어갔다. 그렇게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고

눈을 떠보니 난 하늘을 날고 있었다. 여수의 푸른 바다 아래에 마치 하늘을 나는 갈매기처럼 손을 뻗으면 구름도 잡을 수 있는 것만 같았다. 시원한 바람을 따라 내 몸 또한 바람에 몸을 맡겼고, 추운 겨울이었지만 따뜻했던 햇살에 비쳐 찰랑거리던 바다에 반짝이는 윤슬이 청하 하계 비치서 난 그 아름다운 그날에 추억이 잊힐 리가 없다. 그때부터 난 하늘을 나는 것을 좋아한 것 같다. 처음 중학교에서 항공고등학교의 포스터를 봤을 때 나는 그날 온종일 학교의 이름이 아른거렸다. 이 학교에 가면 가족들에게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을 것 같았고, 매번 바뀌는 나의 꿈을 단단히 잡을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난 기계과에 대한 멋진 타이틀에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와류 현상을 마주한 듯 이 나의 꿈이 다른 기체를 만난 느낌이었다. 그 현상이 그때의 나를 만들었고 난 이 비행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난 항공고등학교에 원서를 접수했다. 원서접수를 한 후 몇 개월이 지났으려나? 학교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소리에 나는 신나서 가족들에게 자랑을 했다. 난 면접을 보러 갈 때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지역을 처음 갔다. 하지만 이상하게 학교 가는 길이 익숙했던 나는 금방 이 지역에 적응했고 학교 정문에 항공기를 보며 이 학교의 매력에 빠져 버렸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F-5 항공기가 나를 맞이해 주었다. 처음에는 이 항공기의 이름도 몰랐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또렷하다. 하얗게 도색 되어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F-5 항공기는 자유로워 보였다. 나중에 항공기 일반 선생님에게 F-5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들었는데 선생님 또한 나와 같은 기분을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의 선생님 말씀은 이러했다. "내가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F-5를 보고 정말 놀라웠어.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자격으로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님 앞에서 이 F-5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이 학교에 확신이 들었어." 선생님에 말씀에 나는 다시 한번 F-5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해봤다. 이 항공기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서 하늘을 날던 전투기가 이 학교에 왔는지, 내가 이 전투기를 물면 기본이 어떨까? 다른 사람도 저 항공기를 보며 나처럼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면접을 보러 강당으로 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지! !

항공기계과 자리에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다. 솔직히 당황했지만, 집에서부터 연습한 자기소개를 연습하며 내 면접 차례를 기다렸다. 그때 앞에서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서류를 주셨고 나는 곧장 면접장으로 갔다. 거기서 지금의 담임선생님과 기계과 선생님들에게 면접을 봤는데 나의 첫 질문은 "너는 왜 이 학교에 지원했니?"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었고 미리 생각한 대답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 미리 준비한 답 대신 진짜 이 학교에 들어와서 느낀 마음을 알려 드리고 싶었다. 그리하여 난 "전 이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학교에서 저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면접이 언제 끝났을까? 난 계속 생각에 잠겼다. 학교는 내 생각보다 처음 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정비사과정은 여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비행이고 나는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온 힘을 다해서 면접을 보고 집에 가는 시간 동안 내가 학교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왜 이 학교에 가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 봤다. 결국, 그렇게 하다 생각난 건 학교에서 나를 반겨 준 항공기가 생각이 났다. 또다시 생각해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 또한 나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학교에서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 문자를 받고 내 첫 이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온종일 기본이 들떠있었다. 시간이 지나 학교에 가는 날이 다가왔다. 나는 처음 기숙사를 쓰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런가 기숙사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설레면서 떨린 지 모르겠다. 설레는 마음을 감추며 경력을 끌면서 방문을 처음 연 순간 4명의 사람이 있었고 나 빼고 모두가 친해 보였다. 나는 그 사이에서 짐을 놓고 용기를 내 작게 "안녕!" 이라고 인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었다. 그 공기가 너무 어색해지고 괜히 어색해져 아무렇지도 않게 방에서 나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 떠나는 뒷모습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렇게 가족들이 떠나고 다시 마주하기는 싫었지만, 방문을 다시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분위기가 아까와는 다르게 한 친구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또 다른 친구는 나에게 자리도 양보 해줬다. 순식간에 바람의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나는 그곳에 적응했고 어색함에 잠 못 이뤘을 밤 소중히 친구들이 생겨 밤새 수다를 떠다고 새벽 3시에 잠이 들어버리는 외롭지 않은 기숙사에 첫날밤을 보냈다.

기숙사에서의 첫날이 끝나고 첫 등교 날을 맞이했다.

반에는 예상했듯이 여자가 나 혼자밖에 없었고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나서도 우리 반은 정적만이 이어졌다. 어스내 7교시가 다가왔고, 7교시는 항공기 일반 수업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나와서 다들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한지 앞에서 쭈뼛거리며 나가서 자기소개를 마쳤고 드디어 내 차례가 와서 난 "안녕 나는 순천에서 왔어. 잘 부탁해" 라는 인사를 건넸다. 그때부터 다행히 우리 반은 긴장이 풀렸는지 서로 말을 하



기 시작했고 나에게도 말을 걸어주었다. 자기소개가 모두 끝이 나고 선생님도 자신을 소개 하셨다. 선생님은 공군 조종사 출신이셨고 항공기에 관한 재미있고 신기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또 우리 학교 항공 관에 비행기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 내 귀를 사로잡은 이름은 세스나였다. 선생님은 시간이 된다면 꼭! 항공 관에 항공기를 타보라고 하셨고 그 말이 잊힐 때쯤 야자때 도면 작업을 하러 항공 관에 처음 간 적이 있다. 그때 선생님이 말씀이 생각나서 정비사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세 스나에 타보았다. F-5와 달리 날렵하지는 않지만 두툼한 몸체와 넓고 긴 날개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그때 난 처음으로 경비행기를 타봤는데 처음 항공기 일반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 갔다. 선생님은 하늘을 나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하늘을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어릴 적 패러글라이딩을 한 추억이 생각났다. 하늘을 올려 보지 않고 정면에 보이는 끝나지 않는 하늘을 보는 것이 다시 생각해도 얼마나 황홀한지 그때 내가 타고 있던 세 스나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얼마나 예뻐지 생각했다. 세스나에서 내려 도면 작업을 하러 갔을 때도 세스나에 탄 그 경험이 정말 재미있고 뜻깊은 경험이 되어서 세스나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계속 연구해 보았다.

그러하여 그 뒤로도 비행기에 대해 검색하고 찾아보는 것이 나의 취미가 되었고 항공기 일반 시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과 수업이 되었다. 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항공기 종류와 부품, 항공기가 비행할 동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상황을 배워 나가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다. 그리고 중간마다 항공기 일반 선생님이 조종사 시절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은 시간이 빨리 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빨리 가는 시간처럼 벌써 1년 중 반이 흘렀고 항공고에서도 적응한 지 오래다. 난 이곳에서 나의 꿈인 기계식공무원이라는 꿈과 항공기 계열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두 가지 꿈을 꾸고 있다.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둘 중 하나 나 다른 꿈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6개월에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나의 선택을 난 믿고 있다 이 학교에서 힘든 날도 좋은 날도 가끔은 슬픈 날도 정말 많은 날을 보냈다. 이곳에서 난 너무나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 우리 학교는 하늘이 아름다운 걸로 유명하데 학교 본관에서 석식을 먹고 나서 보는 경치는 정말 아름답고 가끔 전투기가 그 하늘 속을 지나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오색 빛으로 수채화처럼 번지는 노을에 지나가는 전투기를 친구들과 보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다. 이렇게 좋은 추억들이 있어서 내가 버텨줄 수 있었고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에 하늘이라는 존재는 항상 빠지지 않았다. 나에게는 큰 선물이고 이곳에서 남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난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된다.

또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느끼지만 난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나의 선택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난 언제까지나 이런 나를 믿고 응원해 줄 것이다.

Flight to my spring

중·고등부 우수상

소설 / 신예서

Gate 0-The rain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긴 장마철 끝자락에 나는 벤을 만났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며 불평하던 내가 골목길에서 벤을 만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벤을 보자마자 느꼈던 그 강한 끌림 (그건 아마도 비맞은 벤의 모습에서 나를 보았기 때문인걸까?)을 아직도 잊을 수 가 없다. 설명하기엔 어려운 감정이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런 감정은 처음이었다는 것이다. 벤은 나의 삶의 빛이고 유일한 내 편이었다. 지금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의 기나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벤을 위한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한 이야기.

열일곱의 나는 혼자 산다. 엄마는 긴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고,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괴로워하시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 건지, 감정은 어떻게 다스리는지, 넥타이는 어떻게 매는지 (아니 내가 왜 그걸 배워야 했는진 모르겠지만) 같은 것들 말이다. 심적인 부분도 혼자 해결해야 했지만 금전적인 것도 스스로 해야만 했다.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해야만 했다. 어렸을 때 일을 시작했으니 받아주는 곳이 많이 없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면 다했다. 나는 내가 꽤나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나와는 시작부터 다른 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 같은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완전한 가족이 있는 아이들, 원하는 걸 자기 힘으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 학교가 끝나면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다. 몇몇 사람들은 돈과 부모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라 말하지만 결국 이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사회다.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도 사실 마음속으론 다 알 것이다. 모른 척하고 싶을 뿐이지.

어느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던 날이었다. 그저 일이 끝나고 지친 상태로 집에 들어온 나에게 이렇게까지 크나큰 재앙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들어오자마자 벤을 찾으려고 둘러보았다. 원래는 방방 뛰며 나를 반겨줬을 아이가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아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다. 한참을 찾던 중 부엌 구석에서 벤을 발견했다. 비정상적으로 헐떡거리며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다.

나는 벤을 안고 뛰었다.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뛰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한 뒤 의사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해주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심장질환이 이제서야 발견된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벤에



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의 최선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듣자마자 심장이 쿵하고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순간 더욱 더 챙겨주지 못한 것에 너무나도 큰 죄책감이 들었다. 그 다음 주부터 일하던 것을 한두 개 빼고 모두 정리했다. 매일 벤과 산책도 나가고 같이 놀아주며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최선을 다했다.

10월의 어느 날, 유독 날씨가 안 좋았다. 벤을 만난 날처럼 비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옷이 다 젖어 축축했고 신발이 다 젖는 것도 모자라서 양말까지 물에 담갔다 뻥 것처럼 폭 젖었다. 나는 비를 정말 싫어한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빗물로 적신다. 그 날은 가을이었는데도 비가 많이 왔다. 하지만 산책에는 예외가 없었다. 나는 벤이 집에 있고 싶어하길 바랐지만, 벤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다. 벤은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비를 좋아했다. 물론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봐왔을 때 그런 것 같다. 비가 오는 날이면 산책을 더욱 더 가고 싶어했다.

우린 비가 그칠 때쯤 산책을 나갔다. 벤은 그날따라 신나 보였다.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한 1시간쯤 걸었을 때 갑자기 벤이 어딘가를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벤의 뒤를 따라갔다. 한 10분쯤 뛰었나? 공항 앞에 (어? 우리 집 앞엔 공항이 없는데) 도착했다. 뭔가 꺼림칙한 기분에 나는 빨리 벤을 데리고 이곳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벤의 생각은 달라 보였다. “벤! 어디가!!”

소리도 질러보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게이트 앞까지 오게 되었다. 공항 내부의 공기는 차가웠다. 늘상 사람들로 붐비던 공항이 이리도 고요했던 것은 처음이었다. 적막으로 가득한 공항 대기실, 그 낯선 조용함이 나의 마음속에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그 순간 공항의 모든 문이 닫혔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 벤은 내 맘을 모르는지 그저 이곳저곳을 탐색하느라 바빴다. 핸드폰은 또 먹통이었다. 순간 좌절감이 확 몰려왔다. 벤이 원망스러웠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걸터앉았다. 그때 어디선가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갑자기 째깍했던 머릿속이 환해졌다. 나는 내가 드디어 미친 줄 알았다.

종이 울리자마자 왼쪽 벽 위쪽에 있던 창문이 불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속으로 ‘뭐지’ 하던 중 정체불명의 반딧불이 같은 것들이 하나둘씩 들어왔다. 그러더니 결국 공항 전체를 채웠다. 그러다 갑자기 여러 방면으로 움직이고 반짝이더니 괴생명체들로 변했다. 당황할 틈도 없이 게이트 앞쪽으로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었다. 순간 병 써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비행기가 게이트 앞에서 멈추자 몇몇 괴생명체들이 내려가서 게이트와 비행기 사이의 통로를 설치하고 몇몇은 게이트 앞에서 괴물들의 탑승권과 여권을 확인하고 있었다.

게이트 주변과 항공기 입구를 천천히 둘러보던 중 탑승구 쪽에서 익숙한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는 걸 보았다. 벤! 벤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어떡하지, 비행기표도 없는데). 그 순간 내 왼손 위에 꼬깃꼬깃한 비행기표가 하나 생겨났다.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둘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을 보아 누군가 나에게 주고 간 것 같진 않았다. 어찌저찌 해서 비행기를 타자 비행기는 바로 출발했다.

다행히 비행기에 타자마자 벤을 찾아서 자리에 같이 앉았다. 이륙 후 창문 밖의 풍경은 내 이목을 끄는 데 충분했다. 내 밑으로는 건물들의 반짝이는 빛들과 달빛에 일렁이는 바다의 물결이, 내 옆으로 펼쳐져 있는 밤하늘과 수놓은 듯한 별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마치 꿈속을 걸어다니는 느낌이었다. 천천히 풍경을 둘러보던 중 비행기가 곧 착륙한다는 소리가 들렸고 내 무릎 위에서 자고 있던 벤을 깨워서 안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Gate 1 - The Forest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친 것은 뻘뻘하게 나무로 짠 차있고 초록색으로 가득한 정글이었다. 나는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다. 벤은 내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난만하게 수풀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야자수, 바오밥, 소나무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의 나무들이 한곳에서 모여 자라고 있었다. 나무 위에 새들이 지저귀고 멀리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다. 신기한 것은 꽃이 한 송이도 없고 열매도 없었다는 것이다. 갈색 흙이어야 할 땅도 초록색의 물질이었다. 다시 이곳의 이름을 생각해보니 초록 어찌꾸였던 것 같다. 벤을 따라 들어가 보니 장터가 있었다. 어릴 때 부모님 손을 한 손씩 꼭 잡고 갔던 시장과 똑같았다.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파는 물건부터 파라솔 색까지 똑같았다. 돌아다니며 구경하던 중 저 멀리서 보이는 한 여자를 보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다. 내 엄마, 엄마와 너무나도 닮은 사람이었다. 엄마의 아픈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너무나도 건강하고 젊은 엄마의 모습이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나를 보며 ‘괜찮아요?’ 하며 일으켜 주셨다. 순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분은 날 알 리가 없기에 일으켜 주시고 휴지를 손에 꼭 쥐어 주신 후 발걸음을 옮기셨다. 옆 벤치에 걸터앉아서 벤을 꼭 끌어안으며 몇 시간을 울었다. 나는 이제 내가 괜찮아진 줄 알았다. 분명 이제는 무더진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무더진 게 아닌 그저 마음속 깊이 어딘가에 묻어뒀을 뿐이었다.



인간의 동경

중·고등부 우수상
수필 / 이윤희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 나는 책을 유독 좋아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었으면 하셨던 것일까, 우리집에는 어린이가 읽을 수 있는 책이 한 벽을 채우는 책장 가득 꽂혀있었고 나는 그 바람대로 집안 가득 꽂힌 책을 모두 읽으며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로 자랐다. 어린 시절 집안 책장 중 한 공간을 꽉 채우며 꽂혀있던 위인전들은 어린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읽을거리였다. 그중 특히 좋아하는 위인과 위인전의 내용이 재밌는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골라 책장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다. 그중 가장 좋아했던 위인전을 꼽으라면 빼놓을 수 없는 위인전이 권기옥 위인전이다.

하늘을 나는 것은 그 옛적부터 인간의 욕망이라, 어린 나에게도 그 욕망은 뇌리 속 유전자에 깊이 새겨져 있던 건지 집안의 위인전을 읽을 때도 유독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꿈을 이뤄 너른 하늘을 걷고 커다란 비행기를 타고 날아 꿈을 이뤘다는 권기옥 열사님의 위인전을 오래, 많이 들여다보았던 기억이 난다. 나라가 어려웠던 시기, 성차별이 당연했던 그 시기에 여성의 몸으로 하늘을 날았다는 권기옥 열사님은 내가 존경하는 위인중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나의 어릴 적 수많은 꿈 중에는 하늘을 날며 사는 직업인 비행기 조종사와 승무원이 당당히 한 자리씩을 차지할 수 있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는 조금 머리가 커 금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다.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때의 기억은 친구들 사이에 섞여 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 단순히 내가 사회성이 부족하고 유독 내향적이었던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유가 은근히 날 따돌리는 무리가 있어 그랬던 것이었음을 중학교 때 안 이후로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욱더 꺼려지는 기억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그 시절의 기억 중 유일하게 행복했던 순간으로 추억하는 기억이 가족들과의 여행이다. 부모님께서는 어린 우리 남매에게 방학 혹은 날씨가 좋을 때 틈틈이 여행을 가셨고 그것은 우리 남매에게 지금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때의 나는 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도 좋아했지만 역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 더욱 여행이라는 느낌을 줬서일까, 나는 비행기를 타는 것을 더 좋아했다. 아버지께서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여행을 하고자 하는 나에게

“유림아, 모든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자기가 직접 계획한 여행인 법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네가 직접 찾아보고 그렇게 고심해서 하는 여행은 앞으로의 너한테도 도움

이 되고 잘 잊히지도 않아.”

라 하시며 내게 가족여행 1, 2일 차의 일정을 맡기셨다. 난 그 말대로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가며 일정을 짰고 마침내 여행하는 날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간 그곳에서 내가 짠 계획으로 우리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즐기는 것을 보고 성취감을 느꼈으며 속소 또한 만족스럽게 즐겨 내가 직접 계획을 짰 그 여행은 내 인생 최고의 여행이라 부를 수 있는 여행인 동시에 아버지의 말대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었다. 이렇게 나의 그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다시 하늘을 날아 집에 가던 그 시간,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만족스러웠던 순간이 되었다.

또 몇 년이 지난 후 중학교에 입학한 나는 한창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냈다. 소년, 소녀에서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사춘기, 난 으레 내 나이대의 아이들이 그렇듯 나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주변인들과 괜히 싸우게 되는, 불안정한 나날들을 보냈다. 게다가 위의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조차도 한창 불안할 그 때에 알아버리고 말았으니 아마 보통의 또래보다 배는 심란한 사춘기를 보냈을 것이다. 그런 불안한 시기를 지나며 깨지고 다쳐 모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나는 책을 읽으며 그 불안을 달랬다. 중학교 때는 정말 책이라는 단어를 놓지 않으면 도저히 그 시기를 설명할 방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책과 밀접한 생활을 했다. 그리고 어느 한 책에서 그 마음을 달랠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하늘을 보는 것이었다.

바쁘고 지루한 일상 속,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하루 1번도 안 되던 그때의 나에게 하루에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이, 그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되냐는 책 속 주인공의 말은 나의 가슴 깊이 와 닿았고, 그렇게 나는 하루에 적어도 1분 이상, 걷다가도 중간중간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다 종종 푸른 하늘에 긴 비행기구름을 남기며 지나가는 비행기와 무리 지어 날아가는 새들을 오래도록 쳐다보면서 잠 시간 마음의 안정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혼자 가만히 앉아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면 자연히 하늘로 생각이 옮겨갔다. 그래서 나의 중학교 시절 꿈은 사서와 여행 에세이 작가였다. 거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책을 사랑한 나는 책과 평생을 함께 하고싶다는 마음으로 사서를, 세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랑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행 에세이 작가를 꿈꿨다. 그때의 내가 꾸었던 조금은 허무맹랑하다 할 수 있을 이 꿈은 여러 가지 상상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하늘 위를 꿈꿨다. 오로라를 쫓아 비행하며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고, 뜨거운 열정을 찾아 동남아를 여행한다거나 비행기 안에서 내가 지금껏 밟고 살아온 땅과는 전혀 다른 정경을 바라보는 등의 가슴 뛰는 상상들은 불안정했던 시기 내가 가진 꿈이고 동경이었다.

하늘을 날았던 인물을 동경하고 날아가는 새를 좋아하던 어린이는 커서 새보다는 고래를 좋아하게 되었고 하늘을 향한 동경은 어린 꿈속에 묻어둔 채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것이 지금, 17의 나 자신이다.

사실 그 입학한 고등학교의 이름조차도 항공고였으니 아직 미련을 묻지 못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늘을 날고자 항공 고등학교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옆에서 하늘을 날고자 이 학교에 들어와 그 꿈을 꾸는 친구들을 보고 있다면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생경하게 빛나는 그 열정에 대한 감탄이기도 했고 어릴 적 접어둔 꿈을 꾸고 있는 이들에게로 향하는 동경이기도 했다. 친구들에게 넌지시 넌 왜 이 꿈을 꾸었냐 물으면 친구들은 장난스레 돈 때문이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

라는 말로 귀결되곤 했다. 물론 모든 이들이 어릴 적부터 곧 꿈을 좇진 않지만 내 주변의 몇몇 친구들은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려 이곳으로 온 것이다. 평소에는 친근하게 지내며 볼 꼴 못 볼 꼴 다 보는 친구들이지만 그렇게 말할 때만큼은 동경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

비록 지금의 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하늘을 향한 나의 꿈은 어린 시절에 잠시 묻어두었지만 사실 아직 놓지 못했다. 난 아직도 책을, 그 활자들이 만드는 세계를 사랑하고 여전히 인간이 가지는 너른 하늘로 향하는 욕망을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살고 있다. 때문에 언젠가 중학교 때 꾸었던 여행 에세이 작가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잡고 싶다. 그렇게 난 여전히 가슴속에 하늘과 그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를 품고 살아간다.

오늘날엔 여러 사람이 각자의 여러 사연을 품고 비행기를 타지만 내가 지금까지 비행기를 탄 목적은 오직 여행이었다. 사실 그조차도 몇 번 되지도 않는 데다 해외까지 갔던 것도 아니고 그저 제주도만 몇 번 가본 것이지만 그조차도 평범한 나날들에서의 일탈이라 또 제주도니 뭐니 하며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내심 설레는 마음은 주체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나의 항공에 대한 기억은 과정이자 수많은 연결점이었다. 평범한 일상과 꿈같은 여행, 그 정반대의 절단 되어있는 두 세계를 잇는 연결점이 비행기였고 이륙과 착륙의 순간이 곧 여행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이륙하는 순간 비행기뿐만 아닌 내 몸까지 흥 떠오르는 듯한 이질감을 느낄 때 비로소 원래의 세계를 떠나 여행의 세계의 시작임을 알았고 착륙하는 순간 덜컹덜컹거리는 기체에서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때 집으로, 나의 일상의 세계로 되돌아왔음을 느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꼭 그 과정을 좋아하고 있다. 나의 어린 시절이 꿈이자 여전히 사랑하는 꿈인 비행, 항공은 사람을 하늘로 데려다주는 기술이자 내가 사랑하는 단절된 여러 세상의 연결점이고 과정이다. 내가 인간으로서 숨 쉬며 살아가는 한 내가 항공을, 하늘을 동경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 과거에서부터 문명이 훨씬 발달한 지금까지도 인간은 하늘을 동경하고 나 또한 그러하다. 앞으로도 여러 인간이 하늘을 동경할 것이다. 그 하늘을 향하는 동경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항공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일 것이다. 항공은 사람을 하늘로 데려다주는 기술이기에, 그리고 나 또한 하나의 인간이기에 난 아직까지 하늘을, 항공을 마음속에 품

고 산다.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도,

하늘은 인간의 영원한 동경이다.

하늘에서 만나다

중·고등부 우수상
시 / 이윤희

젊은 시절 먼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사진이 들려 있었다

충청남도 병천에서 태어나신 우리 외할머니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으시단다
외할아버지와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외할아버지 집성촌
돌아가신 시부모님 묘를 찾아 인사하고
시냇가에 들려 발을 담갔다고 했던가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했다

엄마와 외삼촌을 낳고 열심히 살아
엄마와 외삼촌이 보내드리는 효도여행
우리 외할머니의 볼이 소녀처럼 발그레하다

신발 벗고 타면 안된다는 걸 알고 왔다면 웃으시고
그래도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무섭고
병원에서 건강진료 받는 것보다 떨린다는 외할머니
이륙할 때는 손녀인 내 손을 꼬옥 잡으셨다

구름 위를 나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살아 생전 비행기도 타보는구나
연신 감탄사에 엄마는 몸 둘 바를 모르고
나는 뿌듯함을 느끼며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잠이 깰 때
외할머니 혼자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왔어요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요
저기 어디선가 나 보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나지막이 하는 말
그런 외할머니 가슴 두 손엔



시간의 문을 넘어 하늘에서 펼친 항일활동

중·고등부 우수상
수필 / 이호재

여행이 자유로운 초등학교 생활을 코로나로 지내고 공부와 사춘기로 여름을 보내면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만났던 여성 조종사를 만나보기로 했다.

권기옥 선생은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아 1923년 4월에 운남육군항공학교에 제 1기생으로 입학한다. 임시정부가 조종사를 양성하는 공군 창군에 목적을 두고 항공학교 지원했기 때문이다. 입학한 후에는 “비행기 조종을 공부 하여 일본으로 폭탄을 안고 날아가리라”는 각오를 했다. 운남육군항공학교에서는 프랑스에서 구입한 20대의 비행기에 2명의 프랑스 교관을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맹훈련을 했고, 인내를 갖고 열심히 노력한 권기옥 선생은 마침내 1925년 3월에 운남육군항공학교의 제1기 졸업생으로 학교를 졸업한다.

창공을 누비는 ‘비행’은 구속받지 않는 온전한 ‘자유행위’였고 시대에 구겨진 나의 숨통을 송두리째 꿰뚫어버렸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나는 여자였고, 나라를 잃은 오리였다. 비행은 허상이자 비현실이었지만 그렇다고 나라를 잃은 자가 사사로운 절망감에 사로잡혀 넋을 놓고 있을 순 없었다.

간악한 짐승들은 여전히 내 나라에서 날뛰며 살아남은 자들을 더욱 고립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권기옥 선생은 더욱 3.1운동을 성공시켜야 했다. 그리고 역사적인 그날, 대한민국의 후손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울부짖었다. 대한의 독립을! 대한의 만세를! 그러나 그 열기가 끝나기도 전에 일본 순사들은 나를 포박하여 평양 경찰서에 처박아 버렸고 치열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1928년 5월에 일본 경찰에 잡혔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대가는 아주 가혹했다. 일본 경찰들의 방망이질에 온몸이 터져 비릿한 피비린내가 고문실에 진동했고, 인두의 탄내는 육체를 통해 곧 영혼까지 파고들었다. 증거가 없었던 그들에게 내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였으니 내가 입을 다물수록 조급해지는 것은 일본 순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서둘러 고문의 강도를 높였다. 그들이 내 몸과 마음을 억압할수록 나의 내면에선 본능 같은 욕망이 결렬하게 들끓었다. 그건 ‘자유’를 향한 누를 수 없는 순수한 나의 욕망이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나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다. 억울한 재판으로 6개월의 실형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비록 몸은 갇혔지만 ‘비행’을 상상하기엔 제약이 없었다. 비행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내 조국 역시 같은 이유로 비행이 필요했다. 그렇게 한 걸 같이 비행을 갈구해왔다.

잠시 과거에 젖어있던 나는 현실로 돌아와 얼른 고글이 달린 군모를 꼭 조여 댔다. 훈련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딜 때마다 허상은 실상이 되었고 비현실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침착해야 하는데 가슴이 자꾸 뜨거워졌다. 난 심호흡을 하고 조종석에 앉은 후

꼼꼼히 계기판과 장치들을 점검하고 동그란 안경 위로 고글을 썼다. 내가 손을 들어 신호를 하자 곧 훈련기에 시동이 걸리고, ‘웅웅’거리는 프로펠러의 소리가 비행장에 울려 퍼졌다. 꽤 청해진 날씨만큼 참 상쾌해지는 심장박동소리였다.

교관의 이륙허가가 떨어지고, 훈련기가 활주로에 들어섰다. 아, 얼마나 기다렸고 원했던 순간인가. 내가 가속을 시도하자, 훈련기는 활주로 위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훈련기는 자신을 얹매던 중력을 넘어서기 위해 가속에 박차를 가했다. 대지와 공기의 마지막 저항을 이겨내며 기체의 발이 지면에서 서서히 떨어지자, 나는 핸들을 당겨 고도를 높였다. 훈련기는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창공으로 쭉 뻗어나갔다. 이륙은 안정적이면서도 순조로웠다.

바다에 바닷길이 있듯 창공에도 하늘길이 있었다. 훈련기는 기류에 무난히 진입했다. 그러나 무더운 한여름의 상공만큼 번덕스러운 것이 있을까. 고지대에 우기였던 운남의 여름 날씨는 매우 변화무쌍했다. 커다란 구름이 순식간에 형성되자 대기가 휘몰아쳤다. 거친 바람이 두 뺨을 핏치고, 기체는 좌우로 휘청거렸다. 시커멓게 응집된 구름은 피할 새도 없이 소용돌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훈련기를 집어삼킬 기세로 다가왔다.

권기옥 선생의 뜨거운 자유에 대한 갈망과 염원이 최초의 여성 조종사를 만들었고, 여성이라는 사회적 많은 제약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을 만들었다. 나는 권기옥 선생이 여성으로써 비행사가 될 때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북한과 여러 갈등이 있더라도 통일이라는 꿈을 위해서 권기옥 선생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평화 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 깊은 염원을 훑힐 창공을 날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여성 독립운동가 권기옥 선생의 강한 염원과 애국심, 희생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43년에는 한국애국부인회를 재조직하고, 사고부장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 여성들을 모아 독립운동 전열에 참가시켰고 대한민국이 광복된 후, 1948년 8월에 귀국한 권기옥 선생은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1968년에 대통령 표창과 1977년에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권기옥 선생은 1988년에 사망하여 국립묘지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었다. 권기옥 선생이 여성으로써 비행사가 될 때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이념들이 섞여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양한 갈등이 있더라도 통일이라는 꿈을 위해서 권기옥 선생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평화 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시골집 할아버지덕에 몇 년 전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를 생각하면 통일을 못 보신 할아버지의 아쉬운 마음이 느껴진다.

할아버지의 옛이야기

시골집 낡은 신발장
가장 오른쪽 낡은 고무신 한 짝
아무도 신지 않는 현 고무신 하나

젊은 청년의 약속은 할아버지 젊었을 적
할머니께 신겨 주겠다고 약속한 구두
하지만 구두 대신 고무신 한 짝만 남아 있다

평평 울리는 대포소리와 함께 놓쳐버린
어린 부부의 손
그 자리엔 고무신 한 짝만이 남아 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무신을 매만지며
구두 신겨주겠다는 그 약속 지킬 때까지
주름진 얼굴 속엔 시간을 아우르는 눈물이 흐른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딪혀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힘든 일이 닥쳐오더라도 서로 힘을 모아 자유의 소중한 가치로 만들어진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물론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통일이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거나 통일이 될 거라고 믿고 영원하면 평화통일은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행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한다.

중·고등부 우수상
소설 / 조우령

그날의 여름을 난 아직 기억한다.

그 아이가 꿈꿨던 비행과
그 아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그 아이가 표현하고 싶었던 구름이

그 아이가 나에게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너는 꿈이 뭐야?”
순수했던 아이가 너에게 물을 때 항상 밝아 보였지
아이가 살던 곳은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항공기가 많이 날아 다녔으니까

어떤 비행기는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어떤 비행기는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담고
어떤 비행기는 사람들에게 기회와 경험, 또한 그리움을 담고 날아가
사람들에게 데려가 주곤 해

아이는 너를 한 손으로 네 손을 잡아 들판으로 뛰어 들때도
그 아이의 행복을 빌었을거야
불쌍한 아가
지금은 네가 좋아하던 비행기가 너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구나
잘 자렴

“○○○ 공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공항은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더욱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행 1시간 전 나는 훌쩍 자라 승무원이 되었다.
그 아이의 꿈인 ‘비행’을 대신 이루어 주고자 했다.



“언니 이제 비행기 타셔야 해요.”

“바로 갈게”

이번 항공기는 유럽 프랑스를 향해 날아 갈 것이다.

“너는 비행기 타면 어디로 가고 싶어?나는 구름 나라로 가고 싶어!

거기는 구름으로 가득 차서 맨 바닥에 넘어져도 아프지 않다. 나도 아픈 거 다 나으면 넘어져도 좋으니까 계속 뛰어 놀고싶어!”

순수했던 아이 캐서린이 남긴 말이다.

고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아이가 비행기 피규어로 날고 있는 시늉을 하며 했던 말이다.

같은 또래였던 나 또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였다.

구름 나라라니 너무 웃기지 않던가

이제 그것에 웃기에는 나 자신은 너무나 많이 늙어버렸다.

“마지막으로 비행 전 승객 분들의 안전 벨트 착용 방법과 산소마스크 착용 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반응이 다르다.

누구는 웃고, 누구는 걱정하며, 누구는 기대하며 창밖만 바라본다.

캐서린이 아프지 않았다면 기대하며 창가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봤겠지

페이스를 유지하던 나는 이내 진짜 웃음을 지었다.

“언니 왜요? 뭐 재밌는거 봤어요?”

승무원 전용 좌석에서 에밀리는 나에게 의문을 표한다.

그닥 재밌는걸 본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비웃은 것도 아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면 나이가 몇이든 하나같이 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밝게 웃고있으니 누가 안 웃겠는가

“에밀리, 살면서 다른 사람의 꿈을 대신해보려 한적 있니?”

곰곰이 생각하던 에밀리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이 여러 번 오간다.

이내 생각을 정리한 에밀리는

“어릴 때 부모님 기대에 부흥하려고 의사 하려고 했던 날이 있었어요.

뭐 고3까지 노력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다른 직업 알아보다가 승무원 하시는 분 인터뷰 보고 훌쩍 반해버려서 어느샌가 승무원이 되었지만요~ 난 그래도 후회 안해요!”

씩씩한 아이 에밀리

“프랑스 도착하면 면세점 잠깐 다녀올래요? 저는 이번에 아빠 만년필 하나 선물 하려구요!”

푸드 카트에 주스와 물, 커피나 홍차를 싣던 사수 승무원 선배가

눈치를 주자 담당이던 에밀리는 사과하며 돌아선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해요 언니!”

역시 일은 일이다.

약 18시간이나 되는 매우 긴 비행시간은 금방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지치기 쉽게 만든다.

누구는 설렘으로 시작되었다가 지치기도 하고, 어쩔 땐 예민해지기도 한다.

비행 중 사람의 미각은 무뎈진다. 그래서 기내식의 음식은 대부분 간이 썬 편인데

이것 때문일까 기내식은 매우 맛이 없다.

안전상의 이유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컵라면 조차 제대로 익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식이 이게 뭐예요? 우리는 뭐 이코노미 석이라고 차별하는 건가?”

평범한 승객의 짜증 섞인 한 마디다.

그래 승객에게는 평범할진 몰라도 우리에게겐 아니다. 항공 서비스의 꿈을 가지고 뛰어든 새내기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그 한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겐 환멸감을 가져다 주곤 한다. 내가 이러려고 이 직업을 가졌던가

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지

울고 싶어도 객실 승무원은 항공사의 얼굴이자 마스코트이다.

여기서 울어버리면 마스코트가 항공사의 이미지를 망쳐버리는 꼴이 되겠지.

한바탕 소란이 멈추고 겨우 숨을 돌릴 때 나는 간혹 캐서린을 생각하곤 한다.

캐서린..캐서린..

그 아이의 고질병으로 발작할 때가 나는 너무 무서웠다.

발작하며 의사와 간호사 사이로 공허한 눈이 창밖을 향 할 때
항상 구름 너머 무언가를 기다리곤 했다.

그리고 캐서린의 마지막은 창문 넘어

비행기가 캐서린의 눈으로 들어올 때

쇼크로 인한 발작으로 날아왔다.

그 날은 비행기가 캐서린에게 죽음으로 다가온 것이다.

불쌍한 아이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승객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누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



누구는 안도감으로 힘없이 걸어나가는 모습
누구는 익숙한 듯 게이트를 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다채롭다.

에밀리는 마치 당연한 듯 면세점에 들어갔다. 여러 물품을 보던 중
마음에 드는 품목이 없었는지 다른 사수 승무원들에게 만년필 전문점을 찾는 듯 하였다.
프랑스 파리는 낭만이 넘치는 도시이지만 안타깝게도 위생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의 발자취가 넘나드는 곳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더러운 행적 또한
많이 남겨지기 때문이다.

“언니! 같이 가요!! 나 언니 주려고 호두 타르트 사왔단 말이에요!”
익숙한 캐리어와 그 위에 쌓인 쇼핑백, 그리고 항공 승무원의 제복을 입은 여성의 모습은
많은 소녀들의 우상이 되곤 한다. 특유의 카리스마와 친절함, 특히나
어여쁜 모습이 소녀들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모습의 ‘나’이기 때문이다.

에밀리와 같은 방을 쓰는 나는 18시간이나 되는 비행시간과 시차 적응은 정말 힘들다.
이미 고풍아 떨어진 에밀리와 피곤한 몸을 이끄는 나는 이를 뒤에 있는 튀르키예 편 비행기에
승선 해야하는 스케줄이 있다. 그때까진 에밀리와 다닐 생각이다.

나는 주로 상젤리제 거리를 좋아하는 편이다. 워 베르사유 궁전같은 명소도 좋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줄 지어 운영 중인 명소.
무슨 이리 사람 많은 곳만 골라가냐며 투덜거리는 에밀리가 웃기기도 하면서도
가끔은 짜증이 나기도 한다.

큰 길가엔 비둘기와 사람, 가끔가다 볼 수 있는 길 고양이,
그 사이에서 바람개비를 들고 뛰어노는 아이들
힐끗 힐끗 판매용 작은 물고기를 노리는 고양이를 보며 호통치는 가게 주인
참으로 낭만의 도시라 여겨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 파리이다.

빵집에서 나오는 에밀리는 이미 빵 한 개를 입에 물고 나오며
나에게 휘낭시에 하나를 건넸다.
참 다정하면서 정이 많은 아이이다.
그런 만큼 마음도 약한 아이니까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하루가 지나며 튀르키예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다가왔
다.
튀르키예로 가는 비행을 한 건 총 4번 가량 된다.
사람들이 자주 가는 행선지로 유명하다.

보통 당연히 여행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많으나 종교적 이유로 가는 이유 또한 많은 편이
다.

튀르키예의 성지는 세계 3대 성지중 하나이다. 그런 만큼 필수 성지로 여겨지고 있어
많은 나라들의 중심지인 만큼 길가다가 기도를 드리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을 보 수 있다.
종교 또한 여러 인종들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며 이것은 일종의
경험이기도 하다.

비행기 출입구 게이트를 지나며 비행 준비를 한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항공편 비행기 탑승 승객들의 짐을 짐칸 위로 올려드리며
안전 벨트 착용법과 산소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한다.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필수 과정이다.
비행기의 안전 벨트는 구조가 참 신기하게 생겼다.
처음 탑승하는 승객이라면 당연히 당황할만 하다는 것이다.

배행하기 1분 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비행기를 아이들은 창가만을 바라보며 신기해한
다.

누구는 ‘왜 비행기는 바로 날지 않는 거야?’라며 물어보는 아이를
달래며 설명해주기도 하고
처음 비행기를 타는 일행에게 비행기 탑승 시 신발을 벗어야 한다며
장난을 쳤었는지 투닥 거리는 승객 또한 존재 하였다.
파리에서 튀르키예까지 비행 시간은 평균 5시간이다.
이 짧은 시간은 승객들을 케어 하는게 그리 어려운건 아니다.
예외는 있지만

잠시 좌석들을 살피며 승객들 사이로 확인하던 중
갑자기 한 승객이 도움을 요청했다.
“도와주세요! 제 일행이 상태가 이상해요!”

울음 섞인 목소리와 발작 중인 승객은 충분히 나의 상처를 건들기에는
충분했다.
캐서린 같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 또한 저 승객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이다.

“이 분 혹시 병 같은 거 가지고 계실까요?”
입 안에 거품이 가득하다.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할 선내 안은 이미
두려움과 걱정이 난무하고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신입 승무원들에게 공포를 선사하기 충분했다.

“가서 의사분 있는지 찾아서 와 에밀리 괜찮아 내가 대응하고 있을게”

의사를 찾는 에밀리..

내 머릿속은 이미 백지장이었다. 비행기, 발작, 비행기, 발작
캐서린 넌 나에게 뭘 말하고 싶은거니?

거품을 물며 발작하는 승객은 나도 처음이다. 하지만 괜찮다.
난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입의 거품을 걷고, 냅킨으로 기도도 거품이 가지 않게
땀아낸 후 우리가 할 일은 의식을 차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승객분! 승객분 정신 차릴 수 있으세요? 승객분!”
선내를 돌고 온 에밀리 옆에 한 여성분이 있었다.
“이분 내과 의사시라고 하셔서 모셔 왔어요. 이제 저에게 맡기고 들어가서 쉬세요.”
떠밀려서 기내 승무원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또 다시 나는 비행기와 발작을 둘 다 마주한 것이다.

피곤하다. 고작 5시간 비행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은 전혀 몰랐다.
패닉만 가득한 선내는 조용해지고 이제 안정된 승객은
사과를 하며 좌석으로 돌아간다. 이제 다 끝난 것이다.

튀르키예 도착 까지 약 3시간 가량 남았다.
물 한 컵과 함께 창밖을 향해 눈을 돌렸을 때

새 하얀 구름이 땅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구름 나라처럼
너는 여기에 있을까?
아직도 비행을 하는 지금 가끔가다 나는 이 구름 사이에서
캐서린이 수줍게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한다.
내가 탄 비행기를 향해 구름 사이를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손을 흔들기도 하는 캐서린을..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 도착 하였다.
수 많은 종교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다국적의 인종들이
오작 종교만을 위해 온 성지의 나라

성지도 좋지만 튀르키예는 음식 또한 맛이 좋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카이막의 고장이기도 하며
카이막은 필수이고 또 다른 음식 또한 맛이 훌륭하다.
향신료는 그리 강하지 않아 익숙해지기 편해서 좋고
맛도 좋은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은 둘이 같이 있으면 그것 만으로도 충분히
여행 올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나 성모마리아의 집 등등 여러 성지가 있다.
에밀리와 나는 성모마리아의 집에 찾아 가보기로 한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성지는 밝으나 엄숙하다.
누가 성지에서 감히 떠들썩 하나 싶지만 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가기 마련이다.
누구는 국가 문화 유산에 낙서나 테러를 하는등 여러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은 그럴 수 없다.
이곳은 성지이기에 함부로 건드렸다간 그건 나라를 넘어 종교를 모독하는 것이기에
어딜 가든 확실히 질타 받을 것이다.

조국으로 돌아가는 항공 편 비행기는 3일 뒤에나 기다려야 한다.
그 전에 튀르키예를 관광할까 생각 중이다.
튀르키예의 넴루트 다의 유적은 낮에도 대단한 경치를 지녔지만
본질은 밤하늘에 있다. 왕의 무덤인지라 밤하늘의 별과, 구름과, 달은 충분히
왕의 마지막 안식소로 쓰이기에는 완벽한 무대이다.

그리스 로마의 건축물이 보고 싶다면 튀르키예에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다.
유적이나 유물이 너무 많아 공사도 함부로 못할 만큼의 양이라
허락을 구해도 공사 중 유물이 나오면 공사를 중지해야 할 정도이다.

유적이나 유물 말고도 특산품 또한 유명하다.
자개나 가죽, 홍차 잎 등등 여러 특산품이 있지만 역 그 지역 특산품은 그 지역에서 사야한
다,
난 개인적으로 잡지류를 사는걸 추천 한다. 그것이 가장 가볍고 검문소에서 문제 되지 않을
물건이기 때문이다.
특산품이라며 함부로 샀다간 돈 낭비와 검문소 강제 재검문 등 그리 좋지 못할 꼴을 볼것이
기 때문이다.

튀르키예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을 때
갑자기 꿀을 탄 우유 한 잔이 마시고 싶어졌다.
캐서린의 어머니는 항상 내가 병문안을 올 때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을 섞어 건내 주시곤 하였다.

맛은 단순하다.
달콤하면서 고소하다. 이걸 삶이 찌기 쉬운 만큼 맛이 좋아
어릴 때만 먹었던 음식이다.

튀르키예의 한 아침 식사가 가능한 식당 하나를 골라
들어 가본다.
식당은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작은 카페 느낌이 나는 식당이다.
내가 주문한 아침 식사용 메뉴는 간단하다.
꿀을 뿌린 카이막과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자른 빵
그리고 꿀을 탄 우유

카이막은 고온의 환경에서 생기는 우유의 지방을 굳혀 크림처럼 만든 음식이다.
꿀을 뿌리지 않는다면 담백한 맛이 약간 숨숨 하다.
하지만 꿀을 뿌린다면 그 숨숨한 맛은 사라진다.
담백한 고소한 맛의 우유 맛과 꿀의 달달함이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내가 먹고 싶었던 건 캐서린이랑 캐서린의 어머니 몰래 나눠 먹었던 꿀을 탄 우유이다.
유당불내증이 있던 캐서린은 항상 내가 그 우유를 마실 때마다 입맛만 다실 뿐이었다.
나는 항상 캐서린의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잠깐 화장실을 가신 틈을 노려 캐서린에게 몇 모금 나눠주곤 했다.
처음엔 강한 복통을 보여 몇 번 걸렸지만
나중엔 익숙해졌는지 몇 모금 정도는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겨우 몇 모금 가지고 밝게 웃었고, 또 아프기도 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웃고

그만 나는 겨우 우유 한 잔으로 물어버렸다.

조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탑승 직전 객실 브리핑 룸에서 에밀리와 튀르키예에서 구매한
잡지들을 돌려보며 각자의 모험담을 풀었다.
“아 언니 다른 선배가 언니 식당 앞에서 음료 마시다가 울었다면서요?
그 선배 자기는 다른 항공편 탄다고 저보고 대신 물어보라던데 왜 울었어요?”

“나 15살 때 엄청 친한 친구 한명 있었는데 개는 고질병이 있었어 근데 우유 한잔 먹고 갑자기
울컥해서 그래서 울었어”
한참 당황하나 싶더니 이내 사과하며

“아이 그런거 였으면 안 물어 봤죠. 난 또 전에 승객 한 분이 전에 짜증 냈던거 생각나서 물어
버린 줄 알았네”

이내 풀어지며 다시 매무새를 고치는 에밀리는 이내 다시 페이스를 유지하며 탑승 준비를
한다.
“언니 우선 비행기 타러 가요. 브리핑 끝났으니까 저희도 비행기 좌석 확인 하러 가야죠”
기내 승무원은 보통 먼저 탑승 후 좌석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안전 벨트에 문제가 있나, 화장실은 정상 작동하는가를 확인 하기 위해
항상 탑승마다 확인 해야한다.

조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 이제 조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원이 된다.
타국에서 오는 여행객도 있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사람 또한 있을 것이다.
나는 돌아가는 사람이고, 안내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조국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공항 메인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두 명 가량 있는걸 발견했다.
“수고 했어 마리트!”
엄마 그리고
“안녕 마리트 오랜만이구나 항상 비행 끝날 때 마다 캐서린의 묘를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네
어머니에게 들었단다.”
캐서린의 어머니다.
캐서린이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항상 비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잡지들을 들고 와서 캐서린의 묘에서 읽어준다고 들었어”
내 꿈은 곧 캐서린의 꿈이기도 하다.
캐서린은 비행기도 좋아했지만 각국의 문화를 보는걸 좋아했다.
병실 벽에 여러 콜라주와 포스터를 걸어들 만큼 애정이 강했고
또한 13번째 생일날 받은 부엉이 인형에게 항공기 이름을 붙였으니 말이다.

“언젠가 플라이어 1호와 비행기를 같이 타고 여행을 가고 말 거야
옆자리엔 너와 그리고 나 사이에 플라이어 1호를 내 옆에 앉혀두고
우리가 기내식으로 나온 오렌지 주스를 훌쩍이며 상공의 경치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말이야”

모비 앞에 후줄근 한 카고 점퍼를 입은 ‘나’는 검은 가방 속 여러 물건들을 캐서린의 모비 앞
에서 꺼내 보였다.
파리의 런웨이 흥보잡지, 파리의 디저트 월간 인기 잡지, 튀르키예의 종교 관련 잡지

그리고 꿀을 탄 우유 한 병

돛자리 위에 앉아 잡지 하나 하나를 읽어 나가고
꿀을 탄 우유 한 병을 다 마셔 갈 때 즈음
다른 사람의 묘비 뒤에 숨어 있는 길고양이 하나가
갑자기 우유 병을 쏟아 버렸다.

다음부터 다신 우유 병을 바닥에 두지 않으리라 약속하고

하늘엔 비행기가 지나간다.



초등부

최우수상	수필	아름다운 여행을 가고 싶어요(진시은)
	수필	마법의 양탄자 비행기(곽희원)
장려상	시	눈빛(김나은)
	소설	내 최애 아이돌, 돌핀(김서경)
	시	드디어 간다(박윤호)
	소설	우리의 우정은 ing(박하람)
	시	인생의 공항(윤재민)
	시	비행기의 손님들(이준상)
	수필	망고향이 가득한 태국여행(이태평)
	시	행복한 꿈을 꾸는 곳(고예진)
	수필	더 이상 비행기 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김민선)
	시	지구 한 바퀴(김요한)
	시	여유(김운성)
	시	착륙(김태희)
	시	별이 빛나는 밤에(나도연)
	시	오늘도 내일도(민동원)
	수필	나의 첫 해외여행(박소울)
	시	하늘과 친구 되기(박재이)
	시	신기하고 놀라운 일(박준우)
	시	비행기에서 본 세상(성지원)
	시	인천국제공항(송현우)
	시	할머니의 첫 비행(오승완)
	시	비행기가 좋은 이유(이서진)
	시	바쁘다 바빠(이서후)
	시	구름조각가(이은호)
	시	비행기는 인생(이지환)
	시	비행기배 타고 가요(이찬희)
	시	비행기가 늦은 이유(이하진)
	시	꿈 비행기(임수혁)
	수필	2050년 슬기로운 UAM 생활(임채원)
	시	새(정서울)
	시	비행기 안에서 내 마음은(차정우)
	시	신나는 비행기(최우진)
	시	비행기에서 보내는 러브레터(현진주)



최우수상

초등부

아름다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수필 / 진시은



아름다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초등부 최우수상
수필 / 진시는

이번 여름 방학 때 우리 가족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다. 처음 비행기를 타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간다는 생각에 몸이 들썩들썩 거렸다. 한편으로는 비행기가 잘못 될까봐 겁이 났다. 혹시 추락하면 위험하니깐 안전벨트를 꼭 해야지 생각했다. 어렸을 때는 비행기가 비행접시 인줄 알아서 비행기가 우리지구를 침략하려고 몰래 계획하는 것 아닐까 싶어서 잠을 설쳤다. 어떨 때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여행하는 걸까 생각해서 외계인들을 위해 눈감아 준적도 있었다. 그렇게 내가 좋게 생각해주었으니 그 대신 우리 가족 여행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었다. 비행기가 조금 높이 뜨니 구름이 내 눈 아래에서 카펫처럼 펼쳐진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온 몸에 전율이 올랐다. 그런데 비행기는 참 궁금하다. 그 무거운 기계가 하늘로 뜨다니 신기하다. 몇 백 톤이 넘는 비행기가 날개로 공중에 뜨면서 제주도까지 도착하니 안 궁금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타는 비행기는 정말 안전하다. 조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조종사 아저씨도 안전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다 받고나서 조종하시는 거라서 마음 놓아도 된다. 스튜어디스 언니들도 다 훈련을 받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여행하게 해준다. 나쁜 사람이 탈 수 있으니까 경찰도 같이 타고 기계가 고장나면 고쳐야 되니까 기술자도 탄다고 아빠가 말해주었다. 그런데 제주도에 다녀오니까 우리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꼭 보라고 추천해준 '아름다운 여행'이 영화를 다시 기억났다. 엄마 아빠 동생, 나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이 영화에는 비행기가 나온다. 이 비행기 조종사는 나 같은 여자인데 13살 언니이다. 비행기도 아예 다르다. 정말 감동적인 영화인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서 더 감동적이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에이미가 탄 비행기는 내가 타고 온 비행기랑 엄청 달랐다. 에이미가 혼자서 아빠가 만든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고 몰고 갔다. 그 이유는 이렇다. 에이미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해서 엄마랑 살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아직 에이미는 어린데 엄마를 잃다니 불쌍했다. 그런데 에이미가 불쌍한 건 또 있었다. 아빠에게 왔는데 아빠한테는 여자 친구가 있었던 거였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비행기만 만들고 있었다. 거기다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아빠의 여친이 있다니 얼마나 배반감이 들고 기분이 나빴을지 내가 에이미였다면 집을 아주 뛰쳐나갔을 것 같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에이미는 아빠와 어색했던 감정이 많이 좋아져 사이도 가까워졌다. 또 아빠 여자 친구가 에이미랑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고 대화도 해주어서 같이 친해지기 시작했다.

어떤 날 에이미는 엄청 많은 기러기 알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와서 부화를 시켜주었다. 기러기들은 부화 되자마자 처음 본 에이미가 엄마인줄 알고 줄줄 따라다녔다. 모두 16마리였

다. 에이미가 기러기들에게 이름을 각각 소중히 붙여주었다. 그런데 한 기러기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잘 못 따라오자 에이미는 그 기러기한테 잘 자라라는 의미로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이고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내가 재미있게 읽은 책에서 따온 이름이라서 더 실감이 났다. 그리고 에이미가 정말 생명을 소중히 다루는 모습에 마음이 쫘뼛했다. 아빠 친구가 기러기들이 날 수 없게 날개 끝을 자르려고 하자 에이미가 난리를 피우며 절대로 못 자르게 해서 결국 기러기를 지켰다.

원래 기러기는 철새이다. 철새들은 추운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에이미와 아빠는 기러기들을 위해 아빠가 직접 만든 비행기를 몰면서 기러기들과 북쪽에 갈 연습을 했다. 그 비행기는 한 명만 탈 수 있는데 기러기들이 에이미만 따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에이미가 조종하기로 했다. 자칫하면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나는 조종사, 부조종사, 승무원, 기술자 분들이 있으셔도 추락 할 까봐 무서운데 에이미는 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기러기들과 비행 연습을 하면서 이고르는 약해서 잘 날지 못했다. 이고르가 잘 날지 못하자 에이미는 조종석 뒤에 이고르를 태우고 갔다. 그 덕분에 이고르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에이미가 기러기를 해방 시켜준 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촬영도 나왔다. 에이미는 동물을 사랑해서 유명해졌다.

에이미가 이고르를 위해 한 행동도 정말 감동이다. 나라면 약해서 못 따라 올 거라고 믿고 집에 그냥 두었을 거 같다. 자신의 힘으로 기러기들을 위해 용기를 낸 에이미가 정말 멋졌다. 이 영화를 보고나서 자꾸 생각이 나고 또 기억이 났다. 우리 선생님이 왜 이 영화를 보라고 하셨는지 비행기를 타고고서야 알았다. 선생님은 에이미가 멋지게 비행기를 타고 용기 내서 기러기를 보내주는 착한 마음씨를 배우라고 그러신 거 같다. 나도 에이미처럼 아름다운 여행을 해보고 싶다. 내가 만약에 나도 기러기를 키우게 된다면 기러기를 데리고 북쪽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 가면서 구름으로 된 웅덩도 보여주고 햇살이 얼마나 밝은지도 보여주고 싶다. 커서 에이미처럼 나 홀로 여행하면 좋겠다. 에이미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우수상

초등부

마법의 양탄자 비행기 수필/곽희원

눈빛 시/김나은

내 최애 아이돌, 돌핀 소설/김서경

드디어 간다 시/박윤호

우리의 우정은 ing 소설/박하람

인생의 공항 시/윤재민

비행기의 손님들 시/이준상

망고향이 가득한 태국여행 수필/이태평



마법의 양탄자 비행기

초등부 우수상
수필 / 곽희원

나는 예전부터 유난히 공항과 비행기들이 신기하고 궁금했다.

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여행 가방 끄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없는 두근거림과 설레임이 느껴졌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저 안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
‘어디로 가는 거지?’
‘무슨 기분일까?’

항상 궁금했다. 비행기가 먼 곳으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꼭 하늘을 나는 마법 양탄자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처음으로 장거리 비행기를 타던 날은 나의 의문들이 다 풀린 날이었다.
공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비행기를 타는지 알 수 있었다.
행복한 얼굴로 여행가방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니 나도 정말 흥분되고 신이 났다.
아,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타면 이런 기분이구나’

공항은 모든 것이 멋졌고, 전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마법의 출입구였다. 우리의 출입구는 말레이시아로 향하고 있었다.
비행기 탈 시간이 되어 줄을 서고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앞에서 있는 커다란 비행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저렇게 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비행기는 정말 마법의 양탄자 같았다.
마법의 힘이 아니라면 저렇게 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로 붕 떠오를 수 있을까...나는 이렇게 비행기와 마법을 연결시키는게 좋다. 더 멋있고 재밌게 느껴진다.

비행기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이성을 잃을 것 같았다.
이번엔 마법의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날 때는 ‘내가 하늘을 난다’라는 생각에 너무 신기해서 내내 창문에 코를 박고 있었다.

예쁘고 친절한 승무원 언니가 기내식을 가져올 때 너무 기대가 됐다.
순진한 10살 소녀가 하늘을 나는 마법의 장치 안에 앉아서 처음으로 기내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환상적이었는지 아무도 모를까다.
나의 일기장에는 이후 그날 날짜로 ‘하늘을 나는 마술을 겪었다’라는 메모가 추가 되었다.

비행기 출발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하고 엄마가 환전하시는 걸 깜박해서 정신이 없었지만 공항과 비행기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모든 일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었다.
말레이시아 여행도 무척 좋았지만 무엇보다 다시 비행기를 탈 날이 너무 기다려진다.
그 판타지 세계로, 환상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 보고 싶다.

눈빛

초등부 우수상
시 / 김나은

우리 가족은 제주도 여행을 갔다
이번에는 우리집 반려견 크림이도 함께였다

우리 가족은 크림이와 함께 하기 위해
강아지 전용 좌석을 끊었다

비행기에 오르니 곳곳에
좌석에 앉아있는 개들이 보였다
기특하게도 크림이도 다른 개들도
짚지 않고 암전히 앉아 있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자
크림이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간식을 봤을 때와 또 다른 눈빛이었다

엄마에게 신기하다고 말하자
엄마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너도 비행기 처음 탔을 때 저랬어”

내 최애 아이돌, 돌핀

초등부 우수상
소설 / 김서경

“엄마 우리 진짜 비행기 타요?”비행기를 처음 타는 나는 너무 신이 났고 기대가 되었다. “그래” 라고 엄마는 대답했다. 나는 “비즈니스 석이지?”라고 물었다. “응”이라고 엄마는 대답했다. 여행을 많이 다녀왔던 엄마는 비즈니스 석에 계속 앉았다고 한다. 엄마 말로는 거기에서 라면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비즈니스 석에서 라면 먹을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엄마와 나는 짐을 열른 싸고 공항버스를 탔다. 나는 기분 좋게 노래를 들으며 창밖을 보며 흥얼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한테 온 ‘야야, 이것 좀 봐봐’라는 문자와 함께 뜬 링크를 보았다. 난 얼른 그 링크를 열어 보았다.

거기에는 “돌핀 더 이상 무대를 못 서다”라는 제목과 함께 멤버 전체가 갑스한 사진이 보였다.

내 최애 아이돌인 돌핀이 이제 더 이상 무대를 서지 못하다니... 심지어 나는 돌핀 팬클럽인 아이핀이다. 여행을 앞둔 나의 기쁨과 설렘은 한 순간에 우울과 슬픔으로 바뀌었다.

나는 슬픈 노래를 틀며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입김을 불어 ‘돌핀...’이라고 적었다. 우리는 몇 분 뒤 공항에 도착해 밥을 먹기로 했다. 평소 같은 나라면 허겁지겁 먹지만 오늘은 달랐다.

난 엄마가 거의 다 먹었을 때 쯤 먹기 시작했고 한 입, 두 입..세 입을 먹고 짐을 챙겨 커리어를 부치고 쇼핑을 했다.

엄마는 나를 보고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하시며 원하는 걸 하나 사주겠다가고 했다.그 말에 기분은 좋았지만 내 얼굴이 확 퍼지지는 않았다.

나는 돌핀 앨범을 골라 샀고 느긋느긋하게 비행기를 타러 갔다.

근데 갑자기 멀리서 “와!!!”라는 소리가 들렸다.

“돌핀이다!”라는 소리와 함께 내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난 고개를 돌려보니 진짜 돌핀 멤버 중 한 명이 내 눈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진짜 실제로 돌핀을 보다니 믿겨지지 않았다. 근데 기분이 나빴다. 돌핀은 아무도 갑스를 하지 않고 있었다. 아까 전에 봤던 기사가 가짜 뉴스였던 것이다. 어떻게 아무 잘못 없는 돌핀한테 이런 가짜기사가?

엄마가 갑자기 내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엄마는 “늦었어 뛰자”라고 하며 급하게 뛰었다.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시간에 맞추어 비행기에 탑승했다.

첫 비행기와의 만남은 예상보다 더 아주 좋았다. 특유의 깔끔한 냄새인 건지 따뜻한 미소가 담긴 목소리까지 내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했다.

돌핀으로 인해 조금은 우울하지만 지금 현재 여행에 집중하자고 생각했을 때 내 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바로 돌핀 중 멤버인 선민이 바로 내 뒷자리에 있었다.
 나의 걱정과 우울함은 한 순간에 녹아 내렸다. 내가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한참 쳐다보았을 때 선민 언니가 나에게 “혹시 아이핀 이예요?”
 라고 물었고 나는 “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고개만 고덕었다.
 “혹시 그럼 내 이름도 알아요?”라고 물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룹 돌핀의 최애 멤버를
 나는 그래서 “네 선민 언니”라고 수줍게 대답했다.
 각자 자리를 정리하고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선민언니는 나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 보았다.
 난 돌핀처럼 무대에 서서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고 선민 언니는 꿈
 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 같은 무대에 서자고 약속했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랐고 흥분 된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한동안 편안한 비행이 계속되었고 언니와 나는 조금 더 가깝게 편안한 기분으로 오늘 있었
 던 가짜 뉴스와 곧 있을 콘서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언니가 이번 앨범을 이야기할 때 마침 공항에서 샀던 앨범이 떠올라 가방에서 꺼냈다.
 그러자, 언니가 “와 , 우리 앨범이다. 진짜 찐 아이핀이 맞네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네, 저
 아이핀 9년차 예요.저 돌핀 노래 중에 ‘또 다른 세계의 나’를 제일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
 다.
 “나도 우리 곡들 중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우린 닮은 점이 참 많네요.
 혹 실례가 아니면 이름 물어봐도 되나요?”
 “네,제 이름은 서경이예요. 김서경”
 언니는 혹시 앨범을 구경해도 되냐고 물었다. 난 흔쾌히 허락한 후 앨범 안 사진 카드를 살
 짝 꺼내 두고 언니에게 앨범을 넘겨주었다.
 언니에게 감짝 메시지를 선물로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짧고 간단하지만 정성을 다해 또박또박 글씨를 써 언니에게 주려는 순간 .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거렸다. 엄마는 괜찮을거라 안심시켜 주었지만
 더욱 요동을 치며 흔들리는 비행기,
 “여러분 지금 현재 태풍이 오고 있어 우리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지만 곧 안정을 되찾을 것
 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주시고 기장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
 다.”“ladies and gentlemen....”
 나는 눈을 감고 애써 침착 하려고 했다.
 ‘지금 내 최애 아이돌 돌핀이 나와 함께 있어. 바로 내 뒤에...’ 속으로 주문을 걸 듯 내 자신
 에게 말하며 우리 모두가 무사하기를 맘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몇 분뒤 비행기는 언제 그
 랐나는 듯 안정을 찾았고 나는 그제서야 눈을 뜨고 선민 언니 쪽을 힐끗 보았다.
 선민 언니도 나를 보며 “드디어 멈추었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했을 때 몰래 쓴 편지와 사진, 카드를 언니에게 선물로 주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다.

여행지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숙소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편안하고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돌핀의 라이브 공연이 시작하기로 한 날 ,공항에서 산 앨범을 소중히 꺼내 보았다.
 그속에는 언니의 예쁜 손글씨가 들어 있었다.
 서경아.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 봐 주어서 정말 고마워, 꼭 꿈을 이루길-
 공연 중간에 선민 언니가 이야기를 했다.
 “아이핀 여러분,오늘 저희 공연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고 싶은게 있는
 데 이 곳 무대를 준비하기위해 며칠 전 탔던 비행기에서 저와 함께한 꼬마 아가씨 한 명을
 만났어요 .9년차 아이핀 이라고 하던데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 응원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요. 지금까지 오래 봐주신 아이핀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성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let's
 go “ 다시 공연이 시작 되었다.
 정말이지 내가 더 여러모로 고마워요 대한민국의 자랑 나의 비타민 돌핀,
 공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별과 만남을 하고 있다.
 비행기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
 나는 늘 동경해왔던 스타를 그것도 하늘 위에서 만날 수 있었던 짜릿하고 행복한 경험을 했
 던 그날이 믿겨지지 않는다.
 아마도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나만의 기억이 될 것이다.

드디어 간다

초등부 우수상
시 / 박윤호

내 생애 첫 해외여행을 간다
친구들은 다 가보고 나만 못 가본 해외여행
친구들은 다 타보고 나만 못 타본 비행기

나는 여행보다 비행기를 타는 것이 더 기대된다

공항에서 너무 설렜다
비행기가 얼마나 큰지 얼른 보고 싶었다
늘어선 비행기 중에 내가 탈 비행기도 찾아 보았다

계속 시계만 보다가 시간이 되어 탑승구로 갔다
티켓을 보여주고 비행기에 올랐다
엄마는 좀 자두라고 했지만
떨려서 그럴 수 없었다

비행기가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했다
두근두근 애들아
나도
드디어 간다

우리의 우정은 ing

초등부 우수상
소설 / 박하람

01. 청천벽력

커다란 창문이 햇살을 받아 유리 표면을 통해 강당에 뿌려진다. 한껏 꾸미고 온 학부모들은 마치 자신의 졸업식이라도 되는 양 설렘과 상기된 표정으로 강당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다. 풍성한 꽃들을 가슴에 한 아름 안고 각 반 의자에 쓰여 있는 아이의 이름을 찾아 앉는다. 그리고 연신 자신의 아이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강당의 좌석이 조금씩 채워질 때쯤 반마다 입장하는 아이들 사이로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 저기서 터진다. 엄마를 발견한 한 여학생은 브이를 취하며 잠시 멈추었다. 갑작스럽게 멈춘 그 학생 뒤로 줄줄이 서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촬영시간 형식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멀리서 한 아저씨의 휘슬 소리에 조용했던 강당의 분위기는 다시 어수선했고 교감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는 잡음이 이어졌다.

“아아, 곧 제13회 빛나래초등학교 졸업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조용히 입장하여 주십시오.”

강당 좌석들 사이로는 엄마들끼리의 담소가 오고 가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반듯하게 아이를 앉히고 있다. 조금씩 신났던 음악은 조용한 분위기의 피아노곡으로 바뀌었다. 천장의 사이드 조명은 하나둘 꺼지고, 아무도 없는 무대에 조명만이 덩그러니 밝혀졌다. 난 그제야 조용히 우리 반 친구들의 얼굴을 쓱 지나쳐 혹시나 나를 찾고 있을 엄마를 향해 학부모가 앉아 있는 자리를 돌아보았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가끔 분홍색 염색을 한 아줌마가 보였고, 또 다른 둥근 얼굴 사이로 비쩍 마른 얼굴이 보였다. 웃음기 없는 아저씨 사이로 키 작은 아이의 웃는 눈과 마주치니 난 멍쩍어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보았다.

‘설마, 화났다고 내 졸업식도 안 온 거야? 아, 왜 문자도 안 하고. 왔으면 왔다고 문자라도 하지.’ 난 불안함에 핸드폰을 켜지만, 카톡이나 문자에 알림 하나 없었다. 그 사이 강당에 스크린이 내려오고 강당 중앙에 5학년 남녀 한 쌍이 인사를 하며 마이크를 입에 대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학년 대표 김서하, 박예은입니다. 오늘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졸업식을 축하하러 오신 학부모님께 작은 선물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선배님들의 지난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나오자 앉아 있던 우리도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스크린 화면에 집중하였다. 1반부터 그동안 교실에서 활동했던 사진들이 나오자 그 모습에 환호하며 웃는 소리가 크게 강당을 울렸다. 뒤이어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환호하는 2반, 교실에서 자유롭게 댄스하는 사진과 선생님의 모습에 환호성을 던지는 3반에 모두 이목이 쏠렸다가 진지한



과학 탐구를 하는 4반 사진에 잠시 조용해지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챌린지 도전에 나선 5반 사진으로 다시 한번 강당은 소란스러워졌다. 반마다 사진이 달라질 때마다 분위기에 맞는 음악이 달라 보는 즐거움을 주었다. 자신의 자녀가 화면 속에 등장할 때마다 부모님들은 큰 박수를 쳐 주었다. 6반의 공연의 모습과 안전골든벨에 우승한 7반의 사진까지. 우리가 보 내왔던 1년이 순식간에 영상으로 만들어져 스쳐 지나갔다.

난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한 번도 이곳을 떠날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다. 그동안 친했던 친구들과도 가족처럼 지냈는데, 엄마는 나에게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이사 얘기를 꺼냈다. 물론, 부모님께 무슨 이야기인지 밤마다 낮은 목소리로 싸우다가 다음날이면 냉랭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며칠을 이어가다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날들이 여럿 있었다. 솔직히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먼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밤마다 아빠랑 싸워?”

엄마는 국을 뜨다 말고 나를 잠시 뵈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엔 이야기할까, 말까 하는 망설임으로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뭔가를 다짐한 듯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듯 한번 문지른 후 식탁에 앉았다.

“너, 졸업 후에 서울로 이사할 거야. 그동안 여기서 편하게 지냈지? 이젠, 그렇게 살 수 없어.”

“뭐? 왜? 왜 이사를 가?”

가만히 있다가 뺨 맞은 격으로 난 어떤 수식어로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너도 아빠랑 똑같이 변화 없이 살 거야? 언제까지 이 주변에서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다른 사람과 경쟁도 해보고 실력도 키워서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살아야지. 엄마는 이 얘기를 2년 전부터 아빠에게 했어. 네 영어 실력 키우려고 동네 학원보다 조금 더 나은 학원 찾으려 다녔고, 다들 수학 학원에 과외까지 2~3개를 한데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야 서울권에 있는 애들하고 수준이 비슷하지. 벌써 차이가 나는데 아빠는 엄마 속도 모르고 그냥 네가 여기서 행복하길 바라네. 속 터지는 소리 하고 있어. 너희 반 몇몇 애 빼고는 다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더라. 그러면 너도 거기에 안주하는 거라고. 이 답답한 것을 왜, 네 아빠는 모르냐고. 다들 4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목동, 대치동에 가려고 하는데 말이야. 지금 가도 늦었어. 아휴.”

엄마의 속사포 같은 말에 내 얼굴은 뜨거워지며 붉어지고 있었다. 긴말을 정리하자면, 내 수준이 여기서 나올 리 없으니 서울로 가서 공부하란 말이다. 지금 가도 늦었다는 엄마 말이 맞다면 왜 가야 하나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결정을 했다는 것인지 끝말을 듣지 않아 다시 물었다.

“그래서 아빠는 뭐래. 이사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거야?”

“네 아빠가 무슨 결정권이 있다고 그래? 이런 교육은 엄마들이 나서는 거지. 졸업식하고 내년 2월 말에 이사야. 집도 내놔고, 새로 갈 집도 알아봤어.”

“엄마! 나 안가! 왜 그걸 엄마 혼자 결정해? 내 친구들은? 나는?”

마치 대규모 재난이 갑작스레 휘몰아치는 것처럼 엄마 말은 강렬했다. 지금까지 함께 보낸 가람이, 지혜, 아람이가 하나둘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졸업하고 같이 갈 중학교 운동장을 바라보며 꿈꿨던 시간과 교복을 맞추며 얼마큼 치맛단을 줄일 것인지까지 얘기했던 우린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의 절망감이 가슴 속에서 솟구쳤다. 갑자기 싸움에서 진 아빠가 야속했다. 엄마에게서 나를 지키지 못한 아빠가 미워졌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아빠와 동맹도 맺지 못하고 각자 엄마에게 시위 중이다. 그런데 도대체 아빠는 어디 있는 거야?

어느덧 졸업식의 마지막 순서, 졸업장 수여식만 남았다. 앞문으로 1반부터 교실로 이동한다. 6학년 먼저 반으로 이동하고 학부모가 따라 이동한다. 마치 개미들이 자기 소굴로 들어가는 행렬처럼 보인다.

교실로 오니 조금 더 엄마 찾기가 편해졌다. 언제부터 내 가까이에 있었던지, 순식간에 옆으로 와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만진다. 얼굴은 무표정인데, 입은 미소를 짓고 있다. 엄마도 억지로 밝은 표정을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남들이 알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매년 느끼지만, 엄마 아빠의 싸움은 조용히 시작되었다가 언제 끝난 지 모를 때가 종종 있었다. 이번에도 기다리면 행복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걸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빠의 얼굴은 내 졸업식에도 보이지 않는 걸 보니 이번 싸움은 아무래도 긴 싸움이 되려나 싶다. 아빠도 엄마의 단독행동으로 큰 상처를 받은 듯싶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길어지신다. 우리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다 이상하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모습을 놓칠 리 없는 찬형이가 “울지 마세요”라고 큰소리치자 여자아이들은 이때다 싶게 너도나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교실은 잠시 울음바다가 되었지만, 곧 민혁이가 일어나서 “야, 야! 졸업식 사진 찍을 건데, 눈 티핑 부은 채로 찍을래? 우는 건 옛날 졸업식 때라고! 봐봐, 뒤에 부모님들 세대라고. 우리는 MZ세대야~” 라며 MZ 발음을 버터 바른 듯 내서 학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울고 있던 여자아이들은 그만 웃고 말았다.

눈물을 조용히 닦고 졸업식 음악에 맞춰 선생님은 한 명씩 졸업장과 상장을 주시며 안아 주었다. 우리는 사진을 찍으며 우리의 졸업을 축하하였다. 야외에서 꽃다발을 들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학교 건물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었다. 내 졸업가운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저 멀리서 가람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꽃다발과 졸업장을 들고 교문에서 기다리는 가람이를 향해 뛰어가려다 잠깐 엄마를 보고 말했다.

“엄마!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밥도 먹고 갈 테니까 엄마, 먼저 집에 가 있어.”

“뭐야, 졸업식에 같이 밥도 안 먹고? 엄마 혼자 가라고?”

옆에 있던 지혜 아줌마와 가람이의 아줌마가 엄마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응, 즐겁게 시간 보내. 엄마들도 차 마시고 있을게. 다들 졸업 축하한다~”

난 엄마 옆에 지혜 아줌마와 가람이 아줌마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했다. 이곳으로 5살 때 이사 오면서 가까운 유치원 자리가 없자 매일같이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놀 때, 가람이 엄마가 한 유치원을 소개해 주었다. 그렇게 가람이를 만나게 되었고, 유치원을 옮긴 지혜와도 만나게 되었다. 초등학교 입학 했을 때, 우린 삼총사처럼 여총사로 불리며 여행도 같이



하고, 캠핑도 하며 가족처럼 보냈다. 그런데, 지금보다 공부를 더 시키겠다고 엄마는 이사를 결정하였다. 아, 답답하고 속상하다.

02. 우리의 우정, 아지트

“너 며칠 전에 수지가 민수에게 고백한 거 알아?”

“뭐? 수지가? 미친 거 아냐?”

“뭐래?”

민수는 우리 반에서 제일 스마트한 아이다. 5학년 때 1반으로 전학 왔을 때부터 얼굴이 하얗고 똑똑한 아이라는 소문이 있어 나도 관심을 보였던 아이다. 그런데, 민수가 다니던 학원으로 옮긴 수지가 민수에게 바나나 우유도 주고 같은 여자아이들에게는 주지 않는 사탕도 주며 접근했다는 게 가람이 얘기다. 그 소문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백했다는 말이 도는 이상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다. 가람이는 소문의 진원지를 찾으려 했다. 그만큼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다. 그래서 일명, 마당발이라고도 불린다. 가람이 주변에 나와 지혜 말고도 여럿, 친구들 무리가 있다. 반 교실의 연애와 선생님들끼리 친한 정도, 하물며 교감, 교감 선생님에 대한 정보까지 알고 있다. 물론, 가람이의 엄마가 학교 일을 해서 그렇다지만 가람이는 반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것들을 그대로 넘기지 않는다.

한편, 지혜는 조용한 편이다.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부모님과 여행도 자주 다녀서 표정이나 행동이 여유롭다. 우리는 어찌 보면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데도 모이면 한나절 수다로 떠들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6동 사이엔 큰 원을 중심으로 정원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 있다. 곳곳에 오두막처럼 그늘막과 아이들의 놀이터, 숲세권이라고 만들어 놓은 중앙정원과 길 사이사이에 테마 숲길을 조성해 놓았다. 우리는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조용하고, 또 우리끼리 놀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 바깥쪽의 4동과 5동 사이 이팝나무로 둘러싸인 곳을 발견하게 되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의 원픽이 되었는데, 그중, 단지 아이들도 우리가 있는 곳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이곳이 최종 우리의 공간이 될 수 있었다. 나무가 주는 이로운 점도 많아 지혜와 가람이를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아지트 곳곳에 심어 놓은 이팝나무는 5~6월에 흰색 꽃이 피고 9~10월에 초록 포도송이처럼 열리다가 검은색으로 익는다. 우린 이팝나무 꽃이 떨어질 때마다 겨울 눈꽃이 떨어지는 상상을 하곤 했다. 손재주가 좋은 지혜는 이곳을 아늑한 우리만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하며 의견을 내었다. 막연했던 난 흙과 나무, 돌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이 가지 않아 한걸음 뒤에서 지켜보았다. 지혜는 판자를 가지고 와 입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도 도움이 되고 싶어 집으로 가 베란다 선반에 쓰지 않는 아빠의 캠핑 도구를 뒤져 쓸만한

물품 등을 하나씩 가방에 챙겼다. 아지트엔 우리가 가지고 온 물건들이 너저분하게 놓여 있었다. 한껏 펼쳐 놓으니 제법 집같이 느껴졌다. 그 사이 가람이가 김장용 비닐을 챙겨 왔다.

“와, 정말 이런 생각을?”

“어때? 기발하지? 아빠가 그랬어. 캠핑할 때 바닥의 찬 기운은 방수포나 에어매트를 깔고 전기매트를 깔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으니 급한 대로 비닐을 챙겨 왔지. 그다음, 요 이불로 씩~”

“가람이 생각을 따라올 사람은 없지.”

나도 한 몫 거들었다. 가람이는 한껏 기분이 좋은 듯 빠른 손놀림으로 바닥에 있던 돌들을 한쪽으로 몰았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 몇몇 아이들이 다가와 “거기서 뭐 해?”라고 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척 탄생을 피우며 돌려보냈다.

“하은아, 거의 다 됐어. 어때?”

난 아지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와~ 여기서 살아도 되겠어!”

이팝나무의 꽃들이 햇빛을 받아 우리가 바닥에 깔 이불에 수를 놓았다. 벽과 벽 사이의 움푹 팬 곳에 돌들을 세워 장식하니 꽤 쓸만한 장소가 되었다.

“지혜야, 우리 여기에 냉장고처럼 간식 창고를 만들까? 언제든 배고프면 와서 하나씩 먹고 쉬다 갈 수 있게. 어때?”

“아... 그런데, 들고양이나 쥐들이 나오면 어찌지? 우리가 간식 가지고 오는 냄새를 맡고 온다면?”

“야! 너무 끔찍하다. 간식 창고는 취소, 취소!”

지혜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아지트는 매일 비명으로 가득할 것 같았다. 그래서 아쉽지만, 간식만은 포기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가끔 보온 통에 뜨거운 물을 받아와 컵라면은 먹자고 약속했다.

아지트의 봄에는 잎들이 초록색으로 덮이며 여린 잎이 우리에게 푸릇함을 주었다. 단지 안에서 피는 꽃들이 주는 싱그러움을 느꼈고, 여름에는 아파트 골목으로 불어오는 통 바람으로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온 손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봄, 여름을 보내던 중,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다. 며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미리 이불과 장비들을 지혜 집 창고에 치워 놓았을 때다.

띠링~

#애들아, 비상이야! 우리 아지트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

가람이가 학원 갔다 혹시나 해서 아지트를 가봤는데 방수포에 물이 차 발목까지 고였다고 했다.

#가람아, 흙이 많이 내려와 있어?

#어. 장난 아니야. 우리 아지트 어찌지?

#장마가 끝나도 햇빛이 나지 않으면 그 물은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럼, 장마가 끝나는 날에 우리 같이 물을 빼자.

#그게 가능해? 우리 학원 스케줄도 있고, 시간이 어딴다는 거야.

#야, 시간은 내서 하는 거지. 뭘 학원, 학원 그러냐? 너만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애들아, 그만해. 우리 문자로 하지 말고, 만나서 하자.

서로 예민해서 말하는 문자는 화만 일으킨다. 우린 며칠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 뉴스에서도 장마 피해로 쓰러진 농작물과 물이 집과 가게까지 차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 아지트도 이렇게 되다 보니 피해 본 이재민들의 고충도 알 것 같았다.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가 걱정이었다. 지혜는 우리에게 호미 같은 걸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 그런 물건은 있을 턱이 없었다. 가람이는 아빠가 시골에 갈 때 가지고 가는 삼 정도는 챙겨 올 수 있다고 알려왔다.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진흙의 흙을 밖으로 걷어냈다. 하루하루 조금씩 흙이 말라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지트 주변과 집을 왔다 갔다 할 때, 기웃거리던 정아름을 만나게 되었다. 아람이는 5학년 때도 나와 같은 반이었는데도 있는 둥 없는 둥 조용하게 다녀 아이들의 관심 밖이었다.

“왜? 여기 무슨 볼일 있어?”

“어...”

아람이는 당황한 듯 내 눈을 피하고만 있었다. 옆에서 지혜가 아람이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음...”

아람이가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 우리는 서서 조용히 기다렸다.

“사실, 나 여기 꽤 많이 왔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모습도 멀리서 봤고, 또 너희들이 없을 때 나도 여기서 물을 조금 걷어냈었어.”

“뭐? 네가 여기에서?”

가람이가 흥분하자, 지혜는 가람이를 손으로 막으며 아람이에게 말했다.

“여긴 우리 아지트야. 며칠 비가 와서 지금 수리 중이고 그런데, 네가 왜 여기에 관심을 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차분하게 말하는 지혜를 보고 아람이는 조금 용기를 낸 듯 보였다.

“알아. 사실은 난 너희들이 학교에서 놀 때나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어. 뭔가를 가지고 웃고 장난치고...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며칠 고민했었어. 하지만, 고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더라. 조금 용기 내서 너희들 앞에서 얘기하고 싶었어. 물론, 너희들 의견이 중요한 거라 뭐라고 말 못 하겠지만,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이 수리해보면 어떨까?”

“.....”

나는 지혜의 얼굴을, 가람이는 황당한 듯 아람이만 쳐다보고만 있었다. 우린 아람이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대답을 해 준다고 하고 돌려보냈다.

가람이는 지금처럼 셋 멤버로 지내길 바랐다. 하지만, 나와 지혜는 아람이의 말이 진심으로 전해져 같이 친구로 지내도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우린 유치원 때부터 친해서 셋만 있어도 의견이 잘 맞았지 않아?”

“그건 그래. 하지만, 아람이도 우리랑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 같아. 하은이 너는?”

“셋보다는 넷이 더 안정적이지. 물론, 너희들이 있어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난 아람이를 다시 봤어. 용기를 내서 말할 정도로 우리 멤버로 오고 싶다는 마음이 진실처럼 느껴졌거든.”

“뭐... 우리가 재밌게 노는 것처럼 보였나 보지. 아람이는 친구 없어?”

“아마, 5학년 때 전학 와서 이렇다 할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 같은 반 하영이와 잠깐 친했던 것 같은데, 6학년 올라온 뒤로는 반이 달라 하영이와도 멀어진 것 같아. 그리고, 누구와 잘 지낸다기보다 그냥 앉아서 책보고 모둠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지 나도 잘 몰라.”

“그럼, 우리 다수결로 의견 보자. 어때?”

“그래. 아람이를 우리 모임 넣을지, 찬성? 반대?”

“난 찬성.”

“나도 찬성.”

“아이, 뭐야. 몰라, 몰라. 나도 찬성!”

우리는 서로 어이가 없어 웃었다. 내가 아람이에게 우리 멤버로 초대한다고 전했더니 뭘 듯이 기뻐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아지트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한 명의 손이 큰 도움이 되는 줄 몰랐었다. 아람이는 자신의 아이디어까지 내며 전의 아지트보다 튼튼하게 만들려 했다. 옆에서 보던 아람이는 학교에서 보는 모습보다 더 매력적인 모습이 있었다. 누구보다 의견을 낼 땐 당찬 구석이 있었고 성격이 급한 가람이에게 말할 때와 지혜에게 말할 때의 호흡을 각각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아지트는 더욱 복잡거렸으며 한 명이 늘었다고 살림도 더 느는 것 같았다.

우리는 여름방학이 되어서도 아침 방학 특강이 끝나면 30분씩 만나 얘기하다 다시 집으로 갔고, 오후 스케줄이 끝나면, 서로 연락을 해 아지트에 모이곤 하였다. 그렇게 여름방학 중 반쯤 되었을 때, 지혜가 죽상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한지혜, 무슨 고민 있어? 왜 한숨을 자꾸 쉬는데...”

지혜는 한숨을 더 크게 쉬며,

“엄마가 유학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

“뭐? 유학? 어디로?”

우리는 지혜의 영어 실력으로는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학교 영어 수업에서 지혜는 항상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발음도 유창했다.

“유학이라면... 얼마 동안 공부하고 오는 거야? 너는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가람이가 답답한 듯 물었다.

나는 지혜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캐나다로 유학을 알아보는 것 같아. 처음엔 한국 유학생이 많은 밴쿠버로 알아보시다가 한국 사람들만 있으면 영어가 늘지 않는다고 몬트리올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

아,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을 깨고 아람이가 말했다.

“난 네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영어를 배우러 간다고 해도 네 의지가 없으면 되지 않을 테니까. 넌 어때?”

“나?”



지혜는 어떤 결정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가람이는 지혜에게 물었다.

“영어 배워서 다들 좋은 게 있어? 난 영어 단어 하루에 50개 외우는 게 너무 지겨워. 커트라인 5개를 넘지 못하면 매일 재시험, 재시험, 재시험! 이러다 머리 쥐 나겠어. 그런데, 지혜 너는 안 그럴잖아?”

“나야,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엄마와도 하고, 영어는 집에서도 사용하니깐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이 결정을 다 엄마가 했다는 거야. 난 너희들과도 떨어지고 싶지 않고 또 낯선 환경도 두렵워, 무섭고. 부모님도 날 캐나다에 놓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대. 그럼, 나 혼자 그곳에서 생활해야 하고. 아무리 돌봐 주시는 어른이 있더라도 내가 과연 그 낯선 곳에서 잘할 수 있을까?”

어느새 지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냥 두면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아 보였다. 우린 지혜를 안아 주었다. 그때,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혜는 화면에 뜨는 이름을 보고 우리에게 “엄마”라고 말하고 먼저 일어섰다.

우리로 답답해졌다. 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자유롭게 두고 고학년이 되니 입시생처럼 다들 조급해지는 거야. 학원에서도 예비 중학생이라고 말하는 선생님들, 벌써 중2, 3학년 수학 선행을 하고 있다는 아이들, 고등학교 영어 모의고사 문제를 내보이며 점점 압박감을 주는 환경. 그래서 평일 아파트 단지에서 노는 아이들은 유치원생 말고는 초등학생들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린 단지 사이로 오고 가는 학원 차에 몸을 싣고 차에서 짬짬이 핸드폰 하며 이동한다. 이동할 때 먹으려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음료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여름방학 때 노는 날보다 학원 특강과 본 수업으로 보내는 시간은 학교에 다니는 시간과 비슷하다. 오히려 숙제로 더 치이는 날이 많았다.

지혜는 가족들과 회의한 내용을 우리에게 실시간 카톡으로 알려왔다.

#엄마는 4개월, 아빠는 6개월 코스로 정하고 있음.

#캐나다 연수?

#응. 당분간 영어 과외 화, 목요일 8시~10시 확정.

#캐나다 외숙모 집에서 지내기로 함. 친하지도 않은데...

옆에서 카톡을 하는 걸 본 엄마가 흘깃거리며 말했다.

“지혜, 이민 갈 수도 있어.”

“뭐? 이민? 아니야. 단기 어학연수라고 했어.”

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물었다. 엄마는 식탁을 행주로 닦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당분간 비밀이야.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마. 정확한 건 아니니깐. 그리고, 지혜랑 남은 시간 싸우지 말고 잘 보내.”

“진짜야? 진짜 한국을 떠나?”

지혜 아줌마가 엄마에게 속 얘기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정말 이민까지 계획하고 가는 거였나? 싶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지혜는 분명 부모님에게 배신감이 들 것 같았다. 속아서 가는 걸 지혜는 알까? 하지만, 내가 말하면 지혜네 부모님도 난처해질 거고, 엄마도 그럴 것이 뻔했다. ‘그냥, 모른 척해야만 하나?’ 고민이 깊어졌다. 만약 이 사실을 지혜에게 알려

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하기도 싫었다.

띠링~

#졸업 후까지 남은 시간 아끼면서 놀자!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우리 뭉쳐! 약속.

그렇게 지혜의 메시지는 종료되었다.

지혜는 어학연수 준비로 영어에 더 몰입하며 지냈다. 학교에서도 영어 단어와 회화책이 놓여 있었다. 또, 주말마다 대치동으로 일과의 절반 이상을 보내고 왔다. 우리와의 시간은 좀처럼 낼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지혜의 스케줄에 따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밥을 급하게 먹다 말고 나가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지혜의 얼굴이 마치 고3 수험생처럼 반쪽 얼굴 되어 보였다. 우리는 노는 것마저도 부담스러워졌다.

이상하게도 지혜는 힘들다고 하지 않았다. 옆에서 보는 지혜는 오히려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집으로 들어와 방에 불을 켜고 조용히 책상에 앉아 나를 돌아보았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산 건 아닌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막연한 물음이 나왔다. 가까운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내 성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처럼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그렇게 늦가을이 지나 우리에게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다.

03. 모두 집합

갑작스러운 가람이의 집합 문자로 모두 아지트에 모이게 되었다. 겨울에 들어서자 해의 기울기가 점점 빨라지는 듯하다. 우리의 아지트는 벌써 캄캄한 밤이 되어 있었다. 가방에서 각자 후레쉬 하나씩을 꺼내고 앉아 모였다.

아름이는 동생이 보는 세계 지도를 가지고 와 우리 앞에 펼쳐 보였다. 그리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지혜야, 넌 이번 겨울이 지나면 캐나다로 떠나지?”

“응. 아마도...”

“우리 여기다 지도 붙여볼까?”

빛바랜 포스터가 있던 그림을 떼고 세계 지도를 붙이려고 움직이려고 할 때, 가람이가 들어왔다.

“김하은, 김하은, 너 우리에게 할 말 없어?”

거칠게 들어온 가람이의 행동에 난 나도 모르게 뒷걸음을 쳐 아름이와 부딪히게 되었다.

“왜? 무슨 말?”

가람이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땐 꼭, 이름에 성을 붙이며 다그치는 습관이 있다. 난 가람이에게 무슨 말이야? 라는 표정을 지었다.

“김하은, 너 정말 우리에게 할 말 없냐고?”



“야~ 가람아. 왜 그래?”

옆에 있던 아람이가 가람이를 말리면서 말했다. 나도 가람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 덩달아 목소리가 커졌다.

“야, 박가람, 무슨 말인지 자세히 말하고 물어.”

“너! 너, 정말 이사가?”

“뭐? 하은이가 이사를 가?”

지혜와 아람이도 놀라 똑같은 말을 뱉었다. 난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사한다는 말을 언제 꺼내야 할지 눈치만 보다 지혜의 유학 이야기로 말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가람이가 엄마를 통해 먼저 알게 된 것 같다.

가람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난 우리끼리 비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이사하는 것도 우리에게 비밀이어야 해? 김하은?”

“얘기하려고 했어.”

“뭐야? 정말이야?”

“일방적으로 결정된 거야. 이사 가는 곳, 그곳에 학원, 엄마는 아빠와 나에게도 일방적인 통보였어. 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그런데 엄마는 가야만 한다고 집까지 내놔어.”

아지트는 나의 울먹이는 소리로 가득 찼다. 지혜가 내 등을 토닥였다.

“그래. 우리는 결정권이 없어. 부모가 하라면 할 수밖에 없지. 하은이도 말하려고 했을 거야. 가람이 네가 먼저 안 것일 수도 있잖아. 가람아.”

지혜도 엄마의 결정에 따라 유학이 결정된 것이라 오히려 내 편에 서서 가람이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난, 하은이도 이사 가는 걸 원하는 줄 알았어. 다들 떠나면 나는? 우리는?”

“난 이사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너희들하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싶단 말이야. 엄마가 가려고 하는 곳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내 소리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람이는 눈치를 보다 먼저 집으로 갔고, 지혜는 나와 가람이를 일으켜 세운 뒤 아지트 문을 닫고 후레쉬를 켜겨 나갔다.

각자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04. 우리의 고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요리를 하는 엄마의 허밍 소리가 들려왔다. 어렸을 적엔 엄마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는 편안함을 주었는데, 이젠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보며, “된장찌개 만들고 있어. 조금 있다가 밥 먹자.”라고 말했다. 난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옷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핸드폰에는 매번 와 있던 우리의 단톡방에 카톡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때,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은아, 아빠한테 전화해봐. 엄마 전화는 안 받아. 도대체 어디에서 지내는 거야?”

“엄마가 잘못했잖아. 엄마가 전화해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뭘 잘못을 했다고 그래.”

엄마가 점점 더 뻔뻔해진다고 하은이는 생각했다.

“어서, 네 전화로 아빠한테 연락해봐.”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치 협박범에게 협박당하는 소녀처럼 엄마 눈치를 보았다. 그리고, 5번의 울림 끝에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아빠?”

“...어... 하은이구나. 그래, 하은이 무슨 일이야?”

“아빠, 어디서 지내? 엄마랑 내가 걱정하고 있잖아. 언제 들어올 거야?”

“아. 아빠 출장 왔어. 지방으로 왔는데, 말을 못하고 와서 미안. 엄마한테도 전해줘. 아빠 일해야 하니깐, 나중에 또 통화하자.”

“아빠!”

독.

옆에서 들던 엄마는 ‘그럴 줄 알았어.’라는 듯 허끝을 차며 조용히 내 방을 나갔다. 조금 후, 아빠에게서 문자가 왔다.

#하은아, 엄마가 전화하라고 시켜서 했겠구나. 아빠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곧 집에 들어가자.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런데 너무 늦게 오지는 마.

아빠가 집으로 들어와도 이사문제가 다시 원상태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 난 답답한 마음을 단톡방에 풀기로 했다.

#나 집으로 들어왔어. 다들 잘 들어갔어?

조금 후, 지혜가 카톡에 대답했다.

#응. 하은아, 난 이제 씻고 숙제하려고 준비 중이야.

#아~ 카톡 안 오면 나 내일까지 빠지려고 했는데 ㅋ

가람이의 말에 다들 이모티콘을 퍼부었다.

#기분 좋음(이모티콘)

#춤추는 모습(이모티콘)

#하은아, 아까 미안했어.

#아나~ 이사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던 건 사실이야. 다들, 미안해.

#야, 다들 속상하게 이사 이야기는 하지 말자. 우리, 졸업 여행 계획을 짜 볼까?

#졸업 여행? 난 찬성! 펜션으로? 아님, 놀이공원? 아니지, 분위기 있게 겨울 바다로? 여기만 아니면 난 무조건 찬성이야!

내 말에 모두가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 우리끼리 여행을 간다는 게 될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여행은 어디서 자고 해야 하잖아. 돈도 없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는 여행을 계획하는 건 어때? 같이 가지만, 우리끼리 추억만 들기.

지혜의 말에 내가 잠시 고민하고 말했다.

#사실, 우리 집에 아빠 없어. 아니, 아빠가 엄마랑 이사문제로 싸웠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 벌써 몇 달은 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은 안 될지 몰라.

#뭐야, 놀랐잖아. 그래도 엄마는 가실 수 있잖아. 내가 부모님께 말해볼게. 여행을 가는 이유 많지. 가족의 화목과 우리의 우정이란 면목으로 어때?

#좋아! 그런 명분이면 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승낙을 해 주실 거야. 그러면 일단 계획을 세워보자.

가람이는 자신의 능력만 믿어보라고 하고선 그다음 문자가 없다. 나도 여행만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엄마의 저녁 준비에 맞춰 아빠가 퇴근하고 그 속에서 내가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집이 주는 포근함이 컸는데 내가 크는 만큼 부모님의 다정함은 줄어드는 것 같다.

05. 가족이란 뭘까

터벅터벅. 띠디 띠리리

현관문 소리에 눈이 떠졌다. ‘누구지? 엄마가 나갔나? 혹시?’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오전 8시 5분이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 보니 아빠였다.

“아빠?”

“어… 하은이구나. 벌써 일어났어?”

“아빠, 집에 이제 들어온 거야? 뭐야? 엄마는?”

“응. 어제 늦게 엄마랑 통화했어. 그동안 아빠가 집에 없어서 미안하네. 아빠 보고 싶었어?”

“뭘, 아빠는 잘 있겠지. 하면서 보냈는데, 이번엔 생각보다 아빠가 집에 안 와서 살짝 걱정했어. 그런데 이렇게 와서 난 좋아.”

아빠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나에게 다정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밖에서 고생했는지 아빠는 어딘가 모르게 피곤한 듯한 모습이었다. 평소에 깔끔했던 턱이 덩수룩한 수염이 자라서 거칠어진 느낌이 들었다.

식탁엔 언제 차려놓았는지 된장찌개에 계란찜, 장조림, 고등어 조림과 밀반찬 3~4개가 차려있었다. 엄마도 아빠가 온 줄 알고 새벽부터 준비했던 것 같다. 난 아빠가 집에 오는 순간 평화가 다시 찾아온 것 같다. 엄마는 아빠를 보고도 반가워하거나 안부를 묻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세 식구가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질 때쯤 엄마가 무거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여보, 가람이 아빠한테 연락받았지?”

“어? 응. 이번에 한번 보자고.”

“무슨 해외여행을 가자고 가람이 엄마와 지혜 엄마가 부산하게 전화를 했더라고.”

“해외여행? 누구랑? 가람이네 가족이랑? 아님, 지혜네 가족이랑?”

난 여행 소리에 깜짝 놀라 아빠, 엄마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어… 가람이 아빠가 항공사에서 일하잖아. 이번에 같이 이탈리아로 여행 가보자고 연락 왔었어. 티켓이 할인되어 나올 게 있구나 뭐라나. 아빠 일정을 보고 다시 알려주기로 했어.”

“정말? 그럼, 우리 여행 갈 수 있는 거야?”

“아빠는 회사 일정을 봐야 할 것 같아. 만약 못 가면 엄마랑 가면 돼. 하은아.”

“뭐야, 다들 가족이 다 같이 가는데… 나도 아빠랑도 이탈리아 가고 싶단 말이야.”

아빠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말했다.

“그래. 같이 갈 수 있도록 함 조정해 볼게. 어서 밥 먹어.”

“꼭이야! 친구랑 가는 것도 좋은데, 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걸 원해.”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 울컥했다. 또다시 아빠 빼고 엄마랑 있는 건 싫다. 방으로 와 음악을 틀었다. 정말, 가족이란 뭘까?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여 싸우다가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다 또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에서 밥을 먹고,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어른들의 세계이다. 보아하니 이사는 기정사실로 되어 버린 듯하다. 아빠는 포기한 것인지 양보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백기를 든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나와 아빠가 침묵만 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나저나 가람이가 성공한 것인가? 그 속 얘기가 듣고 싶다.

06. 설득의 시간

“헐, 대박! 정말, 이탈리아로 간다는 거야?”

“그렇다니깐. 그런데, 하은이, 지혜 부모님까지는 될 것 같은데, 아람이네 가족은 우리 가족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이야.”

“가람아,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한 거야?”

지혜가 궁금한 듯 물었다. 가람이는 콧잔등에 손을 얹더니 고개를 가웃거리며 말을 이었다.

“아빠가 설거지할 때였어. 평일에 2번, 주말에 2번 정도는 아빠가 설거지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아빠의 뒷모습이 짝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말동무나 할까 해서 아빠 옆에서 이것저것 말했지. 너희 얘기도 하고, 우리 아지트도 살짝 알려줬어.”

“헐. 우리 아지트를 말했어? 야, 그럼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잖아!”

아지트가 누군가에게 밝혀졌단 사실로 갑작스럽게 나도 모르게 발끈하게 되었다.

“김하은, 우리 아빠를 뭐로 보고. 쫓, 그런 거 아냐. 끝까지 들어봐.”

“아빠도 내 얘기를 듣고 아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 것 같아. 시골에서 친구들과 물러다니



면서 장난친 얘기, 놀면서 사고도 쳐 할아버지한테 혼난 얘기, 남에 발에 몰래 들어가 서리 한 얘기, 아 참. 아빠도 아지트가 있었던 거 있지? 그때 신나게 놀았던 이야기를 설거지 거품을 내면서 하는데~ 아빠 얼굴이 이상하게 우리 반 남자아이 얼굴처럼 보이는 거 있지? 되게 신나 보였어. 그렇게 주머니 받거나 얘기하다 너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단 말을 했지. 우리의 졸업 여행 겸 추억여행을 말이야. 물론, 지혜의 캐나다 여학연수와 하은이 이사 얘기까지 했지만.”

“음~ 그래서 얻은 결과물이 이탈리아 여행이었구나~”

지혜의 추임새에 가람이는 우쭐거리며 말을 이었다.

“내가 누구냐?”

“그런데, 이탈리아로 가는 건 가람이 네 생각이야?”

“응. 내 생각이야. 우리 사회시간 때 세계 나라 조사한 거로 PPT 만들어 발표한 거, 기억나? 너희 반도 했었지?”

“응. 우린 베트남이었어.”

6학년 2학기 세계의 여러 대륙과 대양, 자연과 문화를 배우면서 모둠별로 국가를 나눠 조사한 수행평가가 있었다. 나의 모듬은 아시아권에 있는 중국이 걸려 기대했던 유럽이 되지 않아 실망했고, 모듬 3조는 유럽의 이탈리아가 선택되어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국가가 걸린 조와 희비는 엇갈렸다.

“그때, 우리가 원했던 나라가 이탈리아였잖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여행하면서 보자고 아빠한테 말씀드렸어.”

“난 어디든 우리가 같이 간다면 오케이야. 하하.”

가람이의 아빠는 가람이 말을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함께 캠핑하러 가더라도 단지에서 가끔 가람이 아빠를 만났어도 가람이에게 먼저 의사를 묻곤 했었다. 가람이 말로는 아빠가 회사 일로 평소에 바빠서서 같이 시간 보낼 땐 더 잘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가람이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자신이 궁금하면 바로 물어보고 해결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 점을 가람이는 이번 여행을 계획하면서 최대한 이용한 것 같다.

가람이 엄마도 여행에 적극적이라고 하셨다. 아무래도 이민까지 생각하는 지혜 아줌마와 우리 엄마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을 것 같다고 느낀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가람이 부모님은 뜻값과 여행 일정 조회도 해보고 항공사에 아시는 분에게도 따로 연락해보면서 이탈리아 일정을 짜는 듯하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가람이는 꼭, 마지막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길 원했다. 우리는 폭풍 칭찬으로 가람이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하지만, 아람이네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아람이 앞에선 여행 계획을 내색할 수 없었다.

“지혜, 하은아, 이번엔 너희들이 나설 차례야.”

“응? 뭐?”

“아람이네는 너희 둘이 말아서 설득해봐. 아빠에게 한 가족 더 있을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으니깐.”

“우리가?”

“그래. 그건 아람이가 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

지혜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표정을 본 가람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아람이만 빼고 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리 셋 가족은 이탈리아로 떠나는데, 자기만 남아 있다?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당장 의절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니? 아람이네 집에 가본 적 있잖아. 그럼 아람이에게 먼저 물어보고 약속을 잡아보자고. 아이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니깐.”

“그래~ 네가 있어야 조금 되지~ 하하”

나와 가람, 지혜는 시간을 맞춰 아람이네로 가기로 했다. 미리 아람이에게 말을 했는데 아람이는 부모님이 당황스러워할 거라고 미리 귀띔해주었다.

땡땡~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살짝 긴장한 우리는 신발을 벗으며 90도 인사를 드렸다. 아람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 쪽에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옆에 아람이 엄마가 웃으며 서 계셨다.

“어서 와.”

“안녕? 언니들?”

아람이 동생 하나가 손 인사로 반가워 해주었다.

“잘 지냈니? 아줌마가 간식 준비해서 갖다 줄 테니 아람이 방에서 쉬고 있으렴.”

“네. 감사합니다.”

우린 아람이 방으로 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말을 할 건지 여행연습을 준비하였다. 먼저, 내가 여행 얘기를 꺼내다 지혜가 아람이와 가고 싶단 말을 하고, 가람이가 가자고 부모님께 말씀드린다고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된다면 아람이도 함께 이탈리아로 떠날 수 있다.

“나 이탈리아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 물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갈 수 있을 거야. 우리 꼭, 졸업 여행으로 가자.”

똑똑.

“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했어?”

“아, 네. 사실, 저희가 여기 온 건 아람이를 보러 온 것도 있지만요.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 왔어요.”

“응? 아줌마한테? 뭐냐?”

“엄마, 거실에서 얘기해도 되요?”

“아, 방이 좀 좁구나. 그래.”

아람이 아줌마는 들고 온 간식을 다시 거실로 옮겼다. 거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았다. 순서로 따지자면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데, 무대 공포증처럼 막상 내 순서가 되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서로 눈치만 보다 지혜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기... 제가 아람이를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람이가 워낙 성격이 좋아서



저희와 아주 친해졌어요. 아름이는 평소 조용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일에선 어떤 용기가 나
는지 목소리가 커지고 당당해져요. 그런 점에서 아름이는 참 멋져요.”

“호호, 그렇구나.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또 있어요. 아름이는 저희와 놀 때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배려심도 많고요. 그런 아름이와
저희가 같이 여행을 가도 될까요?”

“응? 여행? 어떤 여행? 캠핑하러 같이 가자는 말인가?”

“아, 저희 부모님들끼리는 저희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국내 여행도 같이하고, 1박 2일로
캠핑도 다녔었어요. 아름이가 저희 멤버로 오면서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요. 혹
시, 만약 아름이도 갈 수 있다면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리려는 우리의 의도를 아셨는지, 아름이 아줌마는 흔쾌히 대답하
였다.

“그럼, 여행 당연히 갈 수 있지. 아름이가 좋다면야. 우리도 좋지.”

“정말요?”

우린 거의 확답을 받은 것처럼 좋아했다. 이제 가람이가 나설 차례다.

“저, 사실 저희 아빠가 항공사에서 일하세요. 근무한 지 10년이 넘으셨어요. 이번에 아빠
가 할인되는 여행 티켓을 구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아름이도 갈 수 있을까요?”

“아, 그래? 여행지 가 어디까?”

아름이 엄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우리 애길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계셨다.

“네. 저희의 우정 여행에 목적지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아름이 엄마는 눈이 동그래졌다. 우리가 말한 여행지를 국내 여행으로 혹은 캠핑으로 생각
하신 것 같았다. 옆에 있던 하나도 “이탈리아?”라며 큰 소리를 냈다. 당연히 놀랄 만한 이야
기다. 우린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의연하게 행동했다. 아름이 엄마는 아름이 아빠와 아름이와
도 이야기를 해보겠다 하며 대답을 미루셨다. 우린 절반의 실패를 인정하듯 현관문에서 조
용히 인사를 드리며 나왔다.

“우리가 제대로 잘 전달한 거 맞지?”

“아름이 아줌마, 정말 침착하시다. 그래도 아름이 아빠랑 얘기한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
아름이도 잘 말할 거야. 믿어보자.”

하지만, 나는 어쩌면 아름이가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학원 숙제를 마치고 시계
를 보니 10시가 넘었다. 아름이는 문자를 읽고 있지 않았다.

#아름이는 소식이 없는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루아침에 승낙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우리 얘기를 다 믿으시겠지?

#만약, 의심된다면 가람아, 너희 부모님이 아름이 부모님과 통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 우
리말보다 어른들이 말하는 게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았어. 아빠랑도 더 얘기해볼게. 하지만, 이번엔 장담할 순 없어.

우린 카톡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잠은 오지 않고, 나의 마음은 이탈리아에 벌써 가 있

었다.

띠리리띠리리.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오늘 하늘은 흐리다. 벌써 불안한데? 난 시계를 확인하면서 문자
가 왔는지 보았다. 아름이에게서 온 문자는 없었고, 문자를 읽은 표시는 되어 있었다.

아침 토스트를 간단하게 먹고 A동 앞으로 갔다. 지혜가 벌써 와 있었다. 조금 후, 가람이가
달려왔다. 우린 아름이를 기다렸다.

“아름이가 잘 설득했을 거야. 그럴겠지?”

“아름이는 말을 잘하니깐. 뭐, 아줌마도 인상 좋잖아? 안 그래?”

35분에 만나기로 한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었다. 가람이가 팔짝팔짝 뛰면서 가람이가 오
는 쪽을 바라보았다.

“이러다 우리 지각할 거 같아. 50분까지 입실 아냐? 뛰어서 가도 간당간당할 것 같아. 그러
지 말고, 아름이에게 문자 남겨두자. 우리 먼저 간다고.”

띠링~

#애들아, 미안. 오늘은 너희들끼리 가. 얘기는 나중에 해 줄게.

“뭐야,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얘기해주지. 야, 빨리 뛰자.”

우리는 학교 정문을 향해 뛰었다. 오랜만에 지혜, 가람이와 뛰어서 그런지 웃음이 나왔다.

“야, 5분 전이야. 교실로!”

후다닥 4층 계단까지 뚝 뛰어들었다. 교실 뒷문은 아직 열려 있어 숨을 헐떡이며 자리를
찾아 앉아 시계를 보았다. 지각은 면했다. 조금 후, 교실 종이 치고 1교시가 시작되었다. 아
름이는 2교시가 되어서야 뒷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왔다. 나는 입 모양으로 “무슨 일 있냐”
고 물었다. 아름이는 고개를 내 젓기만 했다. 얼굴빛이 어두워 보였다.

쉬는 시간 우린 복도 끝에 모여 아름이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되었어?”

“미안. 이번 여행은 나 빼고 갔다 와. 우리 가족은 이번에 여행을 갈 수가 없대. 아빠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엄마가 말해줬어. 코로나 때 물품 납품한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우리 아
빠 회사까지 영향을 준 것 같아. 그래서 엄마도 동생 유치원 보내고 잠깐씩 아르바이트 다
녔던 것 같아. 미안.”

“아냐. 그런 거로 미안해 하지마. 우리가 너무 우리만 생각했던 것 같아.”

“사실, 나도 속상해. 아빠 사정을 몰랐던 것도 있었고, 우리 가족이 힘들다는 걸 몰랐거든.
지혜를 보면서 엄마한테 유학 보내 달라는 투정도 했었고, 가람이네 가족을 보면서 여유로
운 것도 부러웠어. 그리고 하은이를 보면서 여러 학원에 다닌 것도 질투 아닌 질투가 났
었어.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말이야.”

“우리가 뭐라고……. 그냥, 다 싫은 것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아냐, 엄마는 내게 다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지만, 나도 알았어. 우리 집 형편이 다른 집
과 조금 다르다는 걸. 이번 이탈리아도 내가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던 곳이어
서 꿈을 꾀 봤던 거야. 나중에 갈 수 있겠지. 나 대신 많이 보고 반 숙박에 사진 투척해줘~



그럼, 대신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을 거야.”

“아름아, 너도 가고 싶은 거지?”

가람이가 아람이의 두 팔을 잡고 말했다.

“물론, 너희들과 함께 가고 싶지. 하지만, 어젯밤, 긴 얘기 끝에 내가 다음에 간다고 말씀드렸어. 같이 가자고 해줘서 고마워. 정말이야.”

“알았어. 그럼. 우선 그렇게 알아. 수업 끝나고 또 보자.”

쉬는 시간 종이 울리고 우리는 다시 교실로 흩어졌다.

07. 우정이란 이런 것!

며칠이 지나고, 가람이 아빠가 우리 집 아빠와 지혜네 아빠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아빠는 가람이 아빠의 문자를 받고 9시쯤 엄마와 홀리돌리 치킨집으로 가셨다. 나도 따라간다고 했지만, 안된다는 말만 들었다.

나는 가람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람이도 혼자 집에 있어 지혜와 아람이와 통화해 몰래 단지 커뮤니티 1층에서 만나자고 했다. 커뮤니티는 아이들이 다 집으로 가 조용했다. 회색 튜리닝을 입고 온 가람이는 힘해 보였다.

“뭐 하고 있었어?”

“영어 단어 내일 시험이라 외우고 있었지. 그런데 잘 안 외워져. 으~”

아름이가 우리를 보며 손 인사를 했다.

“어? 아름아, 이리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그냥, 부모님들끼리만 치킨집에서 만나고, 혼자 집에 있기 싫어서 불렀어.” 그 사이 지혜도 도착했다. 지혜는 가방과 문제집까지 챙겨 나왔다.

“한지혜, 뭐냐. 여기서까지 공부하려고?”

“혹시나 할 것 없으면 미리 풀어놓으려고. 어차피 해야 할 거라서.”

“아~ 애는 당장, 집어넣어라~응?”

가람이 말에 지혜는 웃으며 알았다고 했다. 우린 편한 자세로 우린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남학생의 이해 못 할 행동과 여우 짓 하는 여자애들, 담임 선생님의 작은 차별 등 수다 삼매경에 빠지다 보니, 10시가 넘었다. 아직 전화가 없는 걸 보면, 부모님들도 우리가 나와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았다.

“이제, 우리 슬슬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 몰래 나왔는데. 말이야.”

“그래, 집에 가서 내일 숙제 마무리하고, 톡하자.”

우린 아파트 단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밤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달빛과 풀 벌레 소리가 가득한 우리 아파트였는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가로등은 켜져 있었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 30분 정도 지났을 때 부모님이 들어오셨다. 책상에 앉아 숙제하는 나를 보고

머뭇거리시다 침대에 앉아 엄마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다.

“하은아, 네 졸업 여행을 가람이네, 지혜네와 함께 이탈리아로 갈 것 같아. 1년에 한두 번 씩은 같이 여행을 다녀서 엄마, 아빠도 좋았는데, 우리 이사 계획으로 앞으로 그게 가능할지 다들 섭섭해하더라. 물론, 너도 그럴겠지만. 함께 여행 다닌 횟수가 벌써 6~7년이 되었더라고.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잠깐 얘기하다 너희 4총사 얘기를 들었어. 가람이 아빠 말로는 가람이뿐만 아니라 너희 넷이서도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그런데, 아름인가? 같이 가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맞니?”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아름이도 같이 가고 싶어 했었어. 그래서 우리끼리 학교에서 얘기도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서 가람이가 아빠에게 도움을 청한 것 같아. 아름이 가족이 못 가면 혹시, 아름이만이라도 같이 가는 방법은 없을까? 아빠?”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름이네 부모님을 잠깐 만나서 얘기해봤어.”

“아름이네 부모님과?”

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되었을까?

“아름이네 부모님은 아름이만이라도 너희들과 여행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 아름이 동생은 아직 어려서 가기도 어렵고, 자영업을 하셔서 일을 미룰 수 없다고.”

“정말이야? 아름이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와!!”

나는 뭘 듯이 기뻐했다. 이 소식을 다들 알고나 있을까.

카톡방은 불이 나고 있었다. 제일 좋아하는 건 아름이었다.

#애들아, 나 너희들과 같이 이탈리아 갈 수 있어!!!

#뭐야~ 뭐야~

#나도 방금 부모님께 들었어. 너무 좋아! 우리 작전이 성공한 거야?

#가람, 하은, 지혜야. 다 너희들 덕분이야. 고마워!!

아름이의 차분한 성격은 온데간데없고 진짜 밝은 모습의 아름이가 보였다. 우리는 함께 가는 여행의 설렘을 만끽하였다. 그리고 서로를 칭찬했다.

#드디어, 우리 4총사가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야!

#근데, 이거 우리의 이별 여행은 아니겠지.....

지혜의 말로 한순간에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정말, 이 여행이 그런 의미가 될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먼저, 침묵을 깬 건 나왔다.

#우리 여행은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나는 거잖아. 언젠간 우리가 어른이 될 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를 기억하면서 웃을 수 있을 거야. 아직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자.

지혜도 조금은 안심한 듯,

#그렇다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라고 대답했다.



08. 결심

짐은 다 싸다. 학원 스케줄도 미루고 가는 여행의 맛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꿀맛 중 하나이다. 숙제에서도 해방이 되고, 학교 과제물에서도 벗어난다. 물론, 엄마는 불안해 하였다. 여행 전 산만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여행 후에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여행 갔다 와서 마음 잡고 공부할게.”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로 가서 그들과 같은 경쟁을 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그 모든 걱정을 잊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이 순간을 만끽하고 싶다.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돌아오면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이 순간만큼은 자유롭게 오직 우정과 추억을 쌓는 데 집중하고 싶다.

09. 우리의 우정 여행을 위해!

각자 차로 이동하여 공항에서 모이기로 했다. 일찍부터 서둘러 준비했다. 우리 차에 아름이가 타기로 했다. 아름이는 나를 보자마자 반가워했다. 아빠가 아름이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아름이 부모님과 인사를 나눈 뒤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아름이와 수다를 떨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둘 다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벌떡 눈이 떠졌다. 공항은 주차하려는 차들로 뱅뱅했다. 혹시나 주차할 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하는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의 눈도 덩달아 빨라졌다. 그때, 아름이가 “저기, 작은 소형차 옆에 자리가 있어요!”라고 외쳤다.

“와~ 아름이 눈이 아저씨보다 빠른데? 하하하”

주차하고, 공항으로 들어갔다. 역시 우리나라 공항은 쾌적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여행객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한껏 맛을 낸 사람들로 더 설레었다.

“우리 여기 앉아서 기다리자. 아직 지혜네와 가람이네가 안 왔네.”

엄마는 공항 안 파란 전광판에 출발을 알리는 노선을 보다 유리창 밖의 의자로 가 앉았다.

“엄마, 내가 전화해볼까?”

“아니, 곧 오겠지. 너희는 화장실 안 갔다가 올래?”

“우리 갈까?”

“그래.”

난 핸드폰을 꺼내 지혜에게 전화를 했다. 아름이는 가람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둘 다, 주차 중이라고 했다. 조금 있으니 지혜와 가람이가 우리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지혜는 파란 티에 흰색 바지를 입고, 가람이는 흰 티셔츠에 검은 조거팬츠를 입고 나타났다. 우리는 한껏 맛을 낸 둘에게 “뭐냐? 왜 이렇게 맛을 부렸어?”라고 놀렸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입고 다녔다면 인기를 얻었을 것 같다고 난 생각했다. 그 사이 부모님끼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다. 짐을 부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하물 검사를 위해 보안 검색대로 갔다. 엄마는 탑승 시간을 다시 확인하고 탑승구 게이트 번호 쪽으로 유도했다. 벌써 유리창 밖에는 다양한 나라의 비행기들이 보였다. 가람이가 창가 쪽으로 가서 멋진 포즈를 취했다. 자동으로 지혜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찰칵” 찍었다. 그리고, 우리 넷이 셀카도 여러 번 찍으며 즐거워했다.

“애들아, 우리 25분 정도 여유 있단다. 시간 잘 보고 있으렴.”

탑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금 후, 방송으로 우리가 떠나는 이탈리아행 탑승 안내가 나왔다.

“이탈리아행 비행기 탑승이 시작됩니다. 탑승객은 8번 게이트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드디어, 우리만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 안으로 들어섰다. 두 분의 스튜어디스가 문 앞에서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다. 우리 비행기 표에 좌석을 확인하고 나란히 앉았다. 부모님의 배려로 우리는 중간 칸에 같이 앉을 수 있었다.

“우리 이탈리아에서 피자과 젤라토도 실컷 먹자!”

“그래! 대신, 우리 서로 빠지거나 싸우기 없기다!”

“하하하. 누가 할 소리.”

비행기 좌석에 한둘씩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우리가 꿈꿔온 여행의 시작이다!”

내가 말하니 옆에 있던 아름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비행기가 출발하길 기다렸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마음으로, 불안한 기분이 스쳤지만 그건 곧 여행의 설렘으로 바뀌었다. ‘우리의 목적지로 안전하게 도착해줘.’ 기도하듯 마음속으로 바랐다. 활주로에 멈춰 선 우리의 비행기는 엔진을 다시 한번 점화하듯 큰 굉음을 내며 달리기 시작했다. 정말, 이렇게 떠서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순간 비행기는 하늘 높이 올라섰다. 옆을 보니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있는 게 보였다.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더 소중한질 거란 확신을 하며 서서히 이륙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하자,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아름답게 다가왔다. 마치 하늘이 넓은 바다와 같다고 느껴졌다. 이 멋진 여행의 시작을 친구들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벅차올랐다. 이사를 하더라도 난 우리의 우정만큼은 계속 ing! 라고 외치고 있었다.



인생의 공항

초등부 우수상
시 / 윤재민

게이트 1, 자동문이 열린다.
많은 사람들 기쁨을 찾으려
여행을 간다.
여행을 하며 추억을 만든다.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탄다.

게이트 2, 자동문이 열린다.
웃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행복한 얼굴과 따스한 마음
비행기를 탄다.

게이트 3, 자동문이 열린다.
울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
하지만 언젠간 이곳에서 다시
비행기를 탄다.

게이트 4, 자동문이 열린다.
엄마 손 잡은 어릴 적 나
처음 타본 비행기
삼촌처럼 기장이 되는 꿈을 꾸는 나
다시 비행기를 탄다.

공항은 인생의 터미널
그곳엔 기쁨, 행복, 슬픔이 있다.
나는 그곳에 간다.

비행기의 손님들

초등부 우수상
시 / 이준상

비행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탄다.

그많은 사람들이
각자 생각을 하고 있다.
각자 기대를 하고 있다.

가서 무얼 하고 놀지
가서 무얼 먹을지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비행기는
사람만 태우지 않는다.
사람들의 생각까지
깊어지고 운반한다



망고향이 가득한 태국 여행

초등부 우수상
수필/ 이태평

“아들! 망고 사 왔다.” “오케이 망고!!!!”

엄마의 시장바구니 속에서 섯노란 망고를 보자마자 입안에 침이 스르륵 고였다. 뽕송뽕송 말랑말랑한 게 꽤 잘 익었다. 망고를 한입 베어 무는 순간 과즙이 츄르를 흐르면서 달달한 향이 코끝으로 퍼졌다. “카~!! 진짜 맛있다. 엄마 엄마, 나 작년에 태국 갔을 때 매일 아침마다 망고를 밥 대신 먹었던 거 알아?” 작년에 엄마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태국 여행은 아빠랑만 다녀왔었다. 그래서 엄마는 태국 여행이 어땠는지 자세히 모르셨다. “엄마~ 태국 갔을 때 진짜 재밌는 일이 많았어. 제일 기억에 남는건...”

작년 2023년 1월.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은 꿈조차 못 꾸다가 오랜만에 비행기를 탄다니 너무 설레었다. 또 추위를 피해 더운 나라에서 수영이나 실컷해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엄마만 쏙 빼놓고 여행을 가서 살짝 죄송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의 시시콜콜한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가벼웠다. 기내 안내 방송과 함께 비행기 엔진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잠시 뒤에 날개가 위아래로 덜덜거려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슈우우웅~ 드디어 이륙하나 보다. 이렇게 큰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다가 갑자기 엔진이 꺼지면서 아래로 추락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벨트를 다시 확인했다. 살짝 불안하기도 했지만 얼마쯤 지나 창문으로 새하얀 구름이 연기처럼 퍼지며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때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온몸에 나른함이 몰려왔다. 몇시간 비행 후 멀리서 별처럼 빛나는 불빛이 눈앞에 펼쳐지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다. 짐가방은 크고도 무거웠고, 보안 검색대의 줄은 엄청나게 길었다. 공항 내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사람과 안쓴 사람들로 구분되었다. 다행히 우리가 여행 갔을 때 태국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마스크를 안써도 된다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뿐이었고 공항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더운 열기가 입안으로 확 들어왔다.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을 헐떡이게 하는 더위였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에어컨부터 틀었다. “아휴..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그때 밖에서 벨 소리가 들렸다. “땡동~ 과일 좀 드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여행 가이드님께서 바나나랑 망고, 오렌지 등 열대 과일을 한가득 가져오셨다. “아~ 역시 망고가 제일 맛있어. 그런데 아빠~ 이 도깨비 방망이 그림은 뭐지?” 나중에 물어보니 호텔 안내문에 그려진 도깨비 방망이 그림은 두리안이라는 과일이라고 했다. 매우 고약하고 쿼퀴한 냄새가 나서 호텔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과일이라고 했다. 열대 과일들이 달달하고 상큼한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그런 건 아닌가 보다. 침대에 누워 내일부터 시작될 태국 여행 일정을 살펴보다가

스스로 잠이 들었다. 폭신한 침대가 내몸을 빨아들었다.

첫날 여행은 라텍스 농장과 코코넛 농장에 가는 일정이었다. 태국은 열대우림 기후로 인해 고무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기 때문에 침대, 배게 같은 라텍스 물품이 유명한데 전 세계 대부분의 라텍스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했다. 어제 호텔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 고무나무 수액 채취 과정이 더 신기하게 느껴졌다.

다음은 코코넛 농장을 갔는데 버스 창문으로 본 코코넛 농장은 엄청나게 넓었다. 코코넛 나무는 얼핏 봐도 아파트 5층 높이쯤 되었는데, 그 높은 나무 위에서 원숭이들이 코코넛을 따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원숭이들이 열매를 따 뒤 한 손은 열매를 껴안고 나머지 한 손으로 나무를 부둥켜안은 채 위태롭게 내려오고 있었다. 아빠 말로는 태국의 많은 원숭이들은 열대 과일을 따기 위해 농장에서 길러지는데, 늙고 힘없는 원숭이는 비참하게 버려지기도 한다고 하셨다. 나는 평소에 원숭이가 바나나와 코코넛을 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눈으로 보니까 원숭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낮에 코끼리 타기 체험을 할 때 내가 탔던 코끼리에게도 미안해지고, 한국에서 입고 왔던 구스다운 패딩도 그 걸 만들기 위해 산 채로 깃털을 뽑히는 거위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동물들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였다.

둘째 날은 온몸이 아이스크림 마냥 흐물 흐물 흘러 녹아 버릴 것 같은 날씨였다. 더위를 피해 아침 일찍 태국의 수상 시장과 마사지 샵을 갔다. 시장은 차오 프라다강 위에 떠있는 수상 시장이었다. 날씨가 더워서 수상시장이 발달한 걸까? 강이 많고 땅이 좁아서 물 위에 시장을 만든 것일까? 수상 시장은 길이 매우 협소해 상인들과 관광객들은 카누 같이 생긴 길쭉한 배를 타며 이동했다. 배를 타고 구경하듯 둘러본 시장에는 다양한 열대 과일과 곡물들이 가득했는데, 가장 신기했던 것은 악어 고기를 파는 것이었다. 나는 악어를 먹는다는 게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맛이 궁금하기도 했는데, 가이드님이 악어 고기가 꽤 맛있다고 하셨지만 나는 전혀 먹고 싶지 않았다. 마치 외국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서 돼지 머리나 족발을 보고 깜짝 놀라듯이 나는 악어고기가 그랬다. 여행을 갈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각 나라마다 고유한 음식 문화는 재료부터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달라서 더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또 하나 신기했던 것은 가이드님께서 태국에서는 지폐를 함부로 구기거나 땅에 떨어진 동전을 발로 밟으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고 했다. 그 이유는 태국 화폐에는 국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지폐를 훼손하는 것은 왕실을 모독하는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그 말 때문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돈을 건넬 때마다 더욱 조심했다. 돈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재니까 다 같이 지폐를 깨끗하게 사용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처벌까지 한다는 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간 곳은 마사지 샵이었다. 태국은 마사지가 유명한 나라로 사원에 가면 태국 전통 마사지 방법이 따로 있다고 했다. 나는 어린아이라서 마사지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직원 분이 맛보기로 마사지를 잠깐 해주셨다. 마사지를 받아보니 온몸에 쌓인 여행 피로가 싹 풀리는 게 태국 마사지가 이런 거구나 하며 감탄이 절로 나왔다. 또 아빠를 기다리는 동안 향긋한 차까지 주셔서 고요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다 보니 정신도 맑아지며 힐링되는 느

김이었다. 아빠는 마사지 샵을 나올 때 직원분께 약간의 팁을 드렸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아서 고마움의 표시로 약간의 팁을 주는 것이 예의라고 했다.

셋째 날은 태국 사원에 들어서 건축물과 불상을 구경하였다. 고대 사원부터 현대에 들어서 색다르게 만든 사원까지 정말 다양했다. 화려한 장식과 색깔, 웅장한 모습이 한국의 불교 건축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불상은 절벽을 통째로 3차원으로 깎아 그 테두리를 모두 24K의 순금으로 만든 거대한 불상이었다. 햇빛에 빛나는 화려한 불상을 보면 불교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신앙심이 절로 느껴졌는데 한편으로는 금불상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과 경찰들이 실총과 실탄으로 중무장하여 그 불상 옆에 서 보초를 서는 모습도 신기했다.

마지막 날 새벽. 우리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몸은 피곤했고, 눈꺼풀은 무거웠다. 태국에서 친절하게 대해준 기념품가게 사장님도, 향긋한 차를 주신 마사지 샵 직원분도 생각났다. 태국의 가장 높은 마하나콘 전망대에서 본 태국의 모습도 떠올랐다. 발판이 천천히 돌아가서 가만히 있어도 태국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 아름다운 야경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며 스스로 잠이 들었다. 한참 지나서 아빠가 나를 흔들며 깨웠다. “한국에 다 도착했어. 어서 일어나야지. 그리고 얼른 패딩부터 입어.” ‘아.. 한국은 1월이었지.’ 며칠간 반바지를 입고도 덥다고 부채질하다가 한국에서 패딩을 꺼입으려니 온몸이 둔해졌다. 공항 밖엔 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추위와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고 짐가방을 끄는 손은 금세 얼음장이 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세계사 책을 읽다 보니 태국이 일제에 의해 경제적인 식민지였던 기간이 길었고, 그 후로도 한참동안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군부 정치, 독재체제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행 갔을 때에는 이것저것 즐겁게 구경하면서 재미있게 놀기만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 같았다. 어쩌면 태국이라는 나라는 망고와 참 비슷한 것 같다. 산뜻하고 향기로운 망고 과일 속에 크고 딱딱해서 절대로 삼킬 수 없는 씨가 박혀있듯이 태국의 화려함 뒤에는 아픈 역사가 크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아들!! 좀 천천히 먹어! 망고는 씨 빼면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맨날 망고를 사 오래” 하며 엄마가 나무랐다. “그런데 엄마~ 이 망고 씨 말이야. 망고 씨에 있는 겉껍질을 깨고 속씨를 화분에 심으면 싹이 나는 거 알아? 망고 나무가 된대. 나도 망고 씨 한번 심어볼래.”

씨앗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곧게 뻗어나가 망고 나뭇잎이 무성해져서 진짜로 망고가 달릴 때쯤에 엄마랑 다시 태국 여행을 가보고 싶다. 다음에 다시 태국에 간다면 휴양지로서의 태국보다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 역사적으로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진지한 역사 여행을 해보고 싶다. 물론 망고도 실컷 먹으면서 말이다.



장려상 초등부

행복한 꿈을 꾸는 곳 시/고예진
더 이상 비행기 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수필/김민선

지구 한 바퀴 시/김요한

여유 시/김운성

착륙 시/김태희

별이 빛나는 밤에 시/나도연

오늘도 내일도 시/민동원

나의 첫 해외여행 수필/박소울

하늘과 친구 되기 시/박재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 시/박준우

비행기에서 본 세상 시/성지완

인천국제공항 시/송현우

할머니의 첫 비행 시/오승완

비행기가 좋은 이유 시/이서진

바쁘다 바빠 시/이서후

구름조각기 시/이은호

비행기는 인생 시/이지환

비행기배 타고 가요 시/이찬희

비행기가 늦은 이유 시/이하진

꿈 비행기 시/이수혁

2050년 슬기로운 UAM 생활 수필/임채원

새 시/정서울

비행기 안에서 내 마음은 시/차정우

신나는 비행기 시/최우진

비행기에서 보내는 러브레터 시/현진주



행복한 꿈을 꾸는 곳

초등부 장려상
시/ 고예진

가족과 비행기를 타러 간 날
공항에 와서 출국 검사를 하고 공항 구경
시간이 되어 타러 간 비행기

비행기 타서 끝이 없는 긴 복도 옆에 우리 좌석
그 좌석에 앉아 동생과 같이 하는 가위바위보
비행기가 출발 한 순간
날개 달린 버스를 타는 기분

자신이 직접 나는 것 같다고 하는 동생
창문을 보니 구름으로 빨려 들어갈 듯
우릴 따라오는 아주 많은 구름

구름을 구경하다 나온 기내식
맛있는 기내식도 나오는
신기하고 재밌는 비행기

마법의 양탄자처럼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가는 비행기
도착하면 시간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마법의 여행을 하는 신기한 기분

나중에 비행기 타고
꼭 가고 싶은 핀란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은 마음
자꾸만 꿈을 꾸게 되는
마법의 공간 비행기

더 이상 비행기 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초등부 장려상
수필/ 김민선

나는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웠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매우 위험한 것 같아서 불안했고 멀미도 하기 때문이다. 엄마께서는 어렸을 때는 오히려 멀리도 여행을 다녔다고 하신다. 그러다 6살쯤에 베트남을 다녀오는데 심하게 멀미를 했고, 비행기 안에서 토까지 했다. 그때부터 멀미가 시작되었고 여행 가는 것이 좋기보다는 힘들었다. 여행은 대부분 국내로 갔고 비행시간이 짧은 일본과 대만도 겨우 다녀왔다. TV에서 보는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이 생겼다. 올림픽을 보며 프랑스에 가보고 싶었고 호주에 가서 코알라와 캥거루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비행기 탈 것을 생각하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렸다.

항공박물관에서 기내 훈련 체험을 하였는데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 같다. 그곳에서는 승무원이 하는 일, 비행기 탈출 방법을 배웠다. 비행기 탈출할 때 타는 슬라이드도 타보았는데 정말 무서웠다.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실제 슬라이드는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행기의 사고확률은 아주 낮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 훈련 체험을 하고 나니 비행기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 불안한 마음이 줄어들었다. 멀미도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는 즐겁게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다. 파리, 호주, 미국 등 먼 거리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또 달라진 게 있다. 예전에는 여행을 떠올리면 멀리, 무서움, 긴장이라는 단어가 생각됐지만 지금은 안전, 설렘, 재미, 멀미가 떠오른다. 이번 겨울 방학에는 재밌고 행복하게 긴 여행을 떠나봐야겠다.

지구 한 바퀴

초등부 장려상
시/ 김요한

있잖아
넓은 지구를 빙빙
여행하긴 힘들어

멀리 날 수 있는 날개도
빨리 갈 수 있는 지도도
없잖아

아니야
우리에게는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친구가 있어

뭐냐고
새처럼 날고 싶은 우리에게
하늘을 향해 오를 수 있게
날개가 되어주는 비행기야

어둠 속에선
등대처럼 우리를 안내하며
어디든 갈 수 있게
길잡이가 되어 주는 비행기야

그래.
힘껏 날아보자
하늘을 향해
다른 세계를 향해

여유

초등부 장려상
시/ 김운성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다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이었다
마음이 두근두근 정말 기대가 된다

비행기를 탔다
곧 있으면 이륙한다는 방송이 나왔다
갑자기 심장이 쿵쿵쿵
식은 땀이 뻘뻘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 손을 꼭 잡고 여행지에 왔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던 날
나는 다시 비행기를 탔다
엄마가 말했다

“손 잡아줄까?”

안전벨트를 채우며 내가 말했다

“에이, 비행기 처음 타는 것도 아닌데 뭐”



착륙

초등부 장려상
시/ 김태희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행기는 지금
‘당신의 마음’에 착륙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좌석벨트를 꼭 매 주시고
기내 방송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까지 오는 데에는
난기류를 만나 잠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어두운 밤길 반짝이는 별을 만나 극복하기도 했고,
‘타인’이라는 전투기가 쏘는 시선에 추락할 뻔하고,
창밖에 스쳐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설렘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부디 그 모든 기억을, 또 추억을 지니고
좋은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관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또 뵈기를 고대하며,

별이 빛나는 밤에

초등부 장려상
시/ 나도연

별이 빛나는 밤은
고흐의 그림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별이 빛나는 밤은
책 속 문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밤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 오르면
새까만 줄 알았던 밤하늘이
짙은 남색 카펫으로 깔려있고
그 카펫에 뽁뽁 박혀있는 빛나는 별들
그 어떤 장식보다 아름답다

수를 놓는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별이 빛나는 밤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비행기가 별이 빛나는 밤으로
날 데려가 주었다

오늘도 내일도

초등부 장려상
시/ 민동원

오늘도 북적북적
사람들이 비행기로 우르르 들어간다
천천히 달리던 비행기가
쉬이이익 하늘로 날아오른다

오늘도 내일도 날아야 하는
비행기는 너무 지쳤다

하지만 들뜬 사람들
기분 좋은 아이들의 재잘거림
사람들의 신난 웃음소리

비행기는 마지막 힘을 낸다
사람들의 기쁨과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날아오른다

나의 첫 해외여행

초등부 장려상
수필/ 박소율

“소울아! 내일 중국 청도로 여행 갈 거야. 어서 준비해!”

드디어, 손꼽아 기다린 나의 첫 해외여행 날이 다가왔다. 며칠 전에 우리 가족 모두 중국 청도로 여행 간다고 들었을 때 정말이지 팔짝팔짝 뛸 듯이 기뻐다. 하루하루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드디어 엄마의 호령으로 가족 모두 각자의 짐을 챙기게 되었다. 난 도서관에서 선물로 받은 캐리어에다가 준비물 목록을 보고 하나씩 챙겨 넣었다. 내 입에선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음~ 수영복과 옷 두 벌. 그리고, 속옷과 잠옷, 내 칫솔과 새 미니카메라. 드디어 내 카메라를 작동시켜 볼 기회가 찾아와 좋았다. 그리고, 여행하기 전 중국을 조사한 나만의 수첩까지 넣고 캐리어 지퍼를 닫았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나까지 모두 5명이다. 이렇게 모여 함께 가는 해외여행은 처음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뜻깊고, 처음 비행기를 탄다는 설렘도 크다. 다 싣 캐리어를 보니 진짜 여행 간다는 실감이 났다. 아침, 기념품을 챙길 빨간 배낭도 메어 보았다. 그리고, 나의 첫 여권도 다시 보았다. 기분이 이상했다.

다음날 새벽, 알람 소리에 모두가 다 맞춘 것처럼 한꺼번에 일어났다. 평소 같으면 이불속이 좋아 뭉그적뭉그적했을 텐데 여행 당일만큼은 달랐다. 우리는 차를 타고 조금씩 도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다, 큰 다리를 지나가게 되었다. 조금씩 해가 뜨고 있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저 해를 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다른 나라에서 보는 해와 달, 별은 어떨까? 궁금해졌다. 창밖으로 조금씩 빛을 따라 건물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다.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고 자리를 비켜주며 이동하였다. 우린 차에서 캐리어를 내렸다. 인천국제공항은 KTX보다 커서 저절로 눈이 동그랄게 떠졌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간이 넓어 웅장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여러 번 온 것처럼 알아서 척척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언니 옆에 붙어서 공항을 구경하였다. 여러 가지 색깔의 다양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우린 패키지 안내서를 받고 운반용 카트를 찾아서 캐리어를 싣고 G가 적힌 곳으로 걸어갔다. 가족의 짐이 많다 보니 비엔나소시지처럼 줄줄이 달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

출국 전 탑승 수속을 한다고 했다. 뉴스에서 찰막하게 보던 장면들을 내가 겪게 되니 신기했다. 미리 수화물에 짐을 부치고, 우리는 보안검색대에 가방 등을 올려놓고 한 사람씩 검색대를 통과했다. 바로 비행기를 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도 쇼핑이나 물건을 살 수 있었다. 조금 더 가니 창가에 큰 비행기들이 보였다.

“와! 우리가 타는 비행기가 어딴지?”



나는 언니랑 여러 비행기를 둘러보며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웃음이 저절로 났고, 행복했다. 엄마, 아빠와도 사진을 찍고 유리창 밖으로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도 신기해 사진으로 남겼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 조금 후,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어 줄을 서고 비행기에 올라탔다.

비행기 좌석을 확인 한 뒤 앉았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중국 비행기여서 승무원분들이 중국말을 하였다. 조금 낯설어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조금 후 나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묻고 싶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난처해하고 있었다. 그때 다행히도 통역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쉽게 해결이 되었다. 나는 창가 쪽에 앉게 되었다. 하늘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언니와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비행기가 출발하기를 기다렸다. 탑승을 다 마치니 승무원이 왔다 갔다 하며 안전띠 확인을 하였다. 그리고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큰 비행기가 어떻게 뜨고 나는지 궁금했었는데, 서서히 움직임을 느끼는 순간 '어? 비행기가 앞으로만 가고 날지 않네?'라며 창밖을 보았다. 우리 비행기는 서서히 긴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곤 잠시, 멈추더니 큰 굉음을 내며 빠르게 활주로를 달렸다. '슈웅!' 하고 비행기가 떴다. 처음엔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언니를 붙잡았다. 나보다 여행을 많이 가본 언니는 나에게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주었다. '갑자기 떨어지면 어찌지?'라는 걱정은 비행기가 하늘을 뜨고 나서야 괜한 걱정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도 많이 태운 비행기가 가볍게 날다니. 너무나 신기한 경험이다. 그리고, 여유 있게 사진도 찍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땅의 모습도 찍어 보았다. 우리 비행기는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 점점 더 땅과 멀어지는 내가 느껴졌다. 나도 여유 있는 척 구름 사진을 찍으며 있다가 언니가 담요를 줘서 한숨 자게 되었다.

잠깐 잔 것 같은데, 벌써 도착했다고 한다. 청도의 비행시간은 1시간 25분 정도 하였다. 다시 비행기는 활주로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중국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다. 사방에서 중국말이 왔다 갔다 했다. 내가 온 곳이 중국 땅이라는 것을 실감하였다. 우리는 수화물을 찾기 위해 이동을 하였는데, 엄마 캐리어만 빼고 다 나와 우리 가족은 당황하였다. 공항의 직원이 표를 확인하며 도와줬지만, 끝까지 못 찾게 되어 포기할 때쯤 여행 가이드 아저씨가 다가왔다. 가족의 짐이 많다 보니, 엄마의 캐리어를 인천공항에 두고 왔다는 것이다. 우리 가족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걱정스러워했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했다. 다행히 엄마의 캐리어에는 중요한 물품이 없었다고 하였고, 우린 공항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여행하는 첫날은 햇빛이 짙었다. 패키지 여행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총 15명이었고, 우리처럼 가족 여행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한국분인 여행 가이드 아저씨가 따듯하게 맞이해주었는데, 이동하는 차 안에서 사이다를 주셨고, 관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저씨가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하는 제스처였다.

"이것은 1000원이고 이것은 2000원입니다. 중국어를 못 하시면 이렇게 손으로 하시면 됩

니다."라며, 가이드 아저씨가 손동작을 보여주었다. 언니와 나는 사이다를 먹으며 가이드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웃었다. 아저씨는 재미있는 미녀 이야기도 해주시고,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도 알려주었다. 우리가 간 곳은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칭다오 맥주 박물관과 청도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실버피시거리, 중산로 거리, 그리고 성 미카엘 성당이었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성 미카엘 성당이었다. 가이드 아저씨는 이 성당은 청도 유일의 천주교당이라고 하였다. 쌍둥이 첨탑의 외관을 보고 있을 때, 가이드 아저씨는 1934년에 지어진 천주교당으로 르네상스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만들어서인지 이탈리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쓰고 설날이라서 모두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있어서 이탈리아에 온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성당은 이쁘고 창문도 마음에 들었다. 다음에 가본 곳은 대복도였다. 과거에 독일이 청도 점령 당시 거주지를 건립했던 곳이라고 한다. 지금은 다양한 맛집, 카페, 소품샵등으로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바뀌었다. 우린 그곳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나게 큰 탕후루를 먹고 양고기를 먹었다. 중국의 향신료가 너무 강해서 난 조금밖에 먹질 못했다. 가족 중에 아빠만 잘 드셨다. 우리가 보고 먹고 이동하면서 보낸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삼겹살이었다. 중국은 음식도 사람들의 모습도 한국이랑 매우 비슷한 것 같다. 패키지 팀은 모두 2층에서 먹었다. 삼겹살을 더 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직원을 부르니까 생각보다 훨씬 한국말을 잘하셔서 놀랐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국말은 "잠시만 비켜주세요. 삼겹살 나갑니다"였다. 정말, 한국말과 똑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 안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다. 난 풍선과 사진을 찍는데, 호텔 로비에서 쿠로미 풍선이 날아가 버렸다. 가족들은 하늘로 날아가는 풍선을 잡아주지 않고 웃고만 있었다. 내 표정을 본 호텔직원분은 나에게 중국의 전통 장난감 '춤추는 용'을 건네주었다. 속상했던 마음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가족과 호텔에 있는 한국식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오월의 바람' 조각상이 있는 5.4 광장과 요트 경기가 있었던 올림픽 요트경기장을 관람하였다. 5.4 광장은 우리나라의 3.1운동처럼 일본 침략에 맞서 시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광장이었다. 그곳에서 조금 더 가면 바닷가를 볼 수 있어 좋고, 거리에서 산책하며 쉬는 사람들도 있어 여유로워 보였다. 또, 소어산 공원은 붉은 지붕의 집들이 있어 인상적이었다. 관광객들이 우리 말고도 많았고, 누각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푸른 바다가 아름다워 보였다. 우린 자연휴양지 팔대관도 관광하였다. 팔대관 안의 계단이 가팔라서 조심히 천천히 올라가야 했다. 꽃과 나무가 숲을 이룬 청도의 팔대관은 외국의 집들을 옮겨 놓은 듯 보였다.

우리는 불야성에도 가봤다. 그곳은 엄청나게 화려했다. 색색의 등불이 켜져 있어서 아주 큰 파티가 벌어진 것처럼 도시는 예뻐다. 엄마는 "애들아,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라며 가족사진을 찍고, 다코야키, 만두 같이 생긴 빵도 먹어봤다. 그러고 나서 호텔로 들어와 쉬었다. 침대가 폭신해서 좋았다.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엄마는 오늘 늦게까지 여행을 마치고 비행기를 탈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 여행지가 궁금했다. 간단하게 대복도 간 후 우리는 극지 해양세계 테마파크로

향했다. 실제로 동물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에 돌고래 쇼까지 보게 된다고 들었다.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연이 시작되었고 조금 후, 돌고래가 사람과 함께 묘기를 부렸다.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돌고래가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좁은 수족관에 있어서 안쓰러웠다. 그 순간! 대형 화면에 언니와 내가 잡혔다. 우리의 놀란 표정과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이 화면에 보여 즐거웠다. 부모님도 즐거워 보였다.

다음으로 천체관으로 갔다. 누워서 보는 거라 좀 신기했다. 마지막으로 우린 수영을 하게 되었다. 언니와 오빠는 아주 잘했지만, 나는 아직 수영을 잘하지 못해서 아빠의 도움을 받았다. 엄마는 수영복이 공항에 두고 온 캐리어에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그 대신 엄마는 우리의 다이빙 하는 것을 찍어주셨다. 한참을 수영하고 나서 우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한 해외여행이 정말 내겐 뜻깊었다.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것도 새로웠고, 언니와 오빠와 함께 다녀서 좋았다. 하루하루 바쁘게 보는 즐거움과 맛있는 것도 먹어서 여행은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또다시 비행기 타고 두 번째 해외 여행을 떠나고 싶다.

하늘과 친구 되기

초등부 장려상
시/ 박재이

낮에 타는 비행기에선
폭신한 구름과 함께
손잡게 되고

저녁에는 창밖에다
붉게 물든 하늘을
색칠하면서

밤이 되면
반짝이는 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하늘과 함께이다.
하늘이랑 친구이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

초등부 장려상
시/ 박준우

우리는 베트남에 가려고 공항에 왔다
누나랑 나는 너무 신나서 춤을 췄다
비행기는 크고 멋져서 등적했다

누나랑 나는 서로 창문에 앉겠다고 싸웠는데
누나는 비행기가 날기 시작하자 잠이 들었다
나는 비행기가 빠르다고 생각 못했는데
다섯 시간 만에 베트남에 도착했다

한국은 겨울이었는데
베트남에 도착하니 더웠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다섯 시간 만에 계절이 바뀌었다

비행기에서 본 세상

초등부 장려상
시/ 성지완

비행기를 타고 높이 날아
구름 속을 지나가면
세상이 작아 보여요,
마치 장난감 나라 같아요.

공항에서 뛰어노는 사람들,
기내에서 만난 친절한 승무원,
창밖으로 바라본 하늘은
끝없이 펼쳐진 파란 물결 같아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내 걱정도 함께 날아가요,
아빠는 내 옆에서 말하죠,
“너도 언젠가 이 넓은 세상을 다닐 거야.”

나는 작지만 꿈은 커요,
저 하늘 높이 올라가
세상을 보고 싶어요.
비행기는 내 날개예요!

인천국제공항

초등부 장려상
시/ 송현우

드르륵 드르륵
캐리어 소리, 여행 떠나는 소리

공항에 도착해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를 기다리네

두근 세근 네근
중국에 가서 즐겁게
노는 상상을 하네

복적복적 복잡복작
사람이 많아 어지럽네

비행기 좌석에 앉아
꿈나라로 떠나네

할머니의 첫 비행

초등부 장려상
시/ 오승완

“내가 뱅기를 다 타보고 참 출세했다.”

육십오년 평생을 작은 두 발로
땅만 밟고 사셨던 할머니.

이제 할머니의 두 발이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할머니의 작은 손가방엔
첫 비행의 설레임이 가득.

이륙할 때 긴장감을
하늘 위로 훌쩍리고
비행기 창문으로
넓고 넓은 세상을 구경하신다.

맛잡은 할머니 손으로
행복이 전해진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더 멋진 비행기 태워드릴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비행기가 좋은 이유

초등부 장려상
시/ 이서진

비행기를 탔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렸다
처음 비행기를 타는 동생은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걱정이 한가득이었다

얼마 후 동생이
비행기 좌석에 붙어있는
이상한 버튼을 눌렀다
승무원분이 환한 미소로 다가오셨다
호출버튼이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내가
실수로 또 호출버튼을 눌렀다
내 마음은 폭탄처럼 터질 것 같았다
엄마는 미안해 하시고
승무원분은 더 환한 미소로 괜찮다고 하셨다

비행기가 더 좋은 이유는
좋은 사람들이 함께 타기 때문이다

바쁘다 바빠

초등부 장려상
시/ 이서후

매일 떼를 쓰는 나도
공항에만 가면 조용해진다

높은 지붕 공항구경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구경하느라 바쁘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아빠를 놓칠까봐
부지런히 따라다니느라 바쁘다

그리고 커다란 비행기 구경하느라 바쁘다

비행기를 타서도
엄마아빠는 주무시지만
나는 하늘구경 구름구경 하느라
바쁘다

공항에 가면
정말 바쁘다 바빠

구름조각가

초등부 장려상
시/ 이은호

나는 하늘에 집을 짓고 싶다

해뜨는 것도 제일 먼저 보고
해가 들어가는 것도 제일 먼저 보고
달도 별도 제일 가깝게 보고 싶다

매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들
여러 나라의 여러 색깔 비행기를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나는 하늘에 있는 구름으로
용 모양 거인 모양을 만들어서
비행기에 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

하늘에 집을 지으면
매일매일 사람들을 놀라게 할
구름을 조각하느라 신날 것 같다

비행기는 인생

초등부 장려상
시/ 이지환

공항에 있으면
모두가 아기가 된다
왜냐하면 아기 때는
안 좋은 기억보단
좋은 기억이
더 많기 때문이다
공항에 있으면
아기처럼
행복해진다 하지만

긴 시간 비행하면
지루해서
살짝 부정적으로 변한다
그때는 사춘기인 청소년이다
그 때문에 더 지루해지고
따분하다

비행이 끝나면
다시 행복해져
손주나 자식을 보며
행복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

비행기배 타고 가요

초등부 장려상
시/ 이찬희

하늘 위에도 바다가 있어요
파란 바다가 아닌 하얀 바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바다엔
파도도 너울도 모두 정지된 것처럼 보여요

하얀 안개 속을 지나듯
천천히 바다 위를 헤쳐나가는 비행기
그럴 때 비행기는 배가 되지요
우리는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얀 바다 위를 건너는 것이 되지요

우리는 비행기배를 타고
하얀 하늘 바다를 건너요
어디선가 인어공주 숨어 있을 것 같고
보물섬이 있을 것만 같은 하늘 바다 위
우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요

어떤 새로운 곳이 펼쳐질까
어떤 새로운 친구들이 있을까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
자꾸만 콩닥거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가요

비행기가 늦은 이유

초등부 장려상
시/ 이하진

비행기가 이륙한다
탑승객은 오직 나 하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되면 떠나는 비행기
내가 타지 않으면
공항에서는 난리가 난다

비행기는 나를 여러 공항으로 실어나른다
긴 시간의 여행을 마친 후
비행기는 비로소 나를 집으로 데려간다
오늘도 나의 비행기는 몇 번의 이륙과
몇 번의 재촉 몇 번의 착륙을 했는지 모른다

엄마는 내게 왜 영어공항에 늦었는지 묻는다
나는 늘 영어공항에 늦게 도착한다
수학공항에 갇혀 발목이 여러 번 묶였기 때문이다



꿈 비행기

초등부 장려상
시/ 임수혁

떴다 떴다 나의 꿈 비행기

지우개를 들고
높이 높이 날아
38선을 지울거야

나중, 나중에는
태극기를 들고 아픔을 지울거야

이해와 존중의 지우개로

2050년 슬기로운 UAM 생활

초등부 장려상
수필/ 임채원

2050년 10월 30일. 오늘은 여러모로 의미있는 날이다.

70회를 맞이하는 '항공의 날'이면서 내가 이직한 회사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이다.

나의 출근 준비는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과 택시 예약으로 시작된다. 예약이 끝나면 여유롭게 준비를 마치고 나가면 된다. 예전에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UAM이 이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다. 특히, UAM을 예약하면 자동으로 UAM 정거장까지 데려다주는 무인 택시도 함께 예약되는 Seamless 시스템 덕분에 출근길이 매우 편리해졌다. 직장의 위치가 멀어도 교통정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을 나가니 아파트 현관앞에 무인 택시가 와 있었다. 빠르게 본인 인증을 하고 택시에 탑승했다. 운전석이 비어있는 것을 보니 무인 택시였다. 요즘은 무인 택시가 일반화되어 도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운행 속도를 지키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현저히 낮아 안전성이 뛰어나다. 택시에서 "곧 UAM 정거장이 ㅇㅇ빌딩에 도착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음이 나왔다. 창밖을 보니 UAM 정거장이 보였고, 내가 탈 UAM이 대기 중이었다.

UAM 정거장은 건물 옥상에 위치해 있다. UAM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비행기처럼 활주로 공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빌딩 옥상을 정거장으로 많이 활용한다. UAM에 탑승하자 내부 스크린에 환영 메시지와 함께 기상정보와 뉴스가 떴다. 이제 도착할 때까지 편안히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UAM 역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은 UAM 무인 조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50%를 넘어서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최근 10여 년간 무인 UAM의 사고 발생건수가 0건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1%도 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UAM을 매일 타는 사람을 보면 모두 그가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예전 택시 요금 정도로 UAM을 탈 수 있게 되었다. 상용화 초기에는 1km당 5천원 정도의 요금이 책정되었지만 무인화가 활성화되면서 5백원 남짓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편의성, 안전성, 합리성이라는 3박자를 갖춘 UAM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기존 교통수단을 제치고 사용률 1위가 되었다.

최근에는 기존 자동차를 대신해서 UAM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과거 전기차 도입 초기처럼 전용주차장이나 충전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UAM 구매보조금 지원과 UAM 충전소 확충을 지속적으로하고 있어 큰 불편은 없어 보인다.



사실 나도 올해 인센티브를 받으면 최신 UAM모델을 구매할 생각이다.

다음 달에 우리 가족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인데 그곳에는 옥상에 입주민 전용 UAM 주차장이 있어서 무인택시마저도 이용하지 않고 더 빠르게 출퇴근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UAM 보험도 기존 자동차보험만큼이나 많이 출시되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도 있다.

아 사실 내 자량을 좀 하자면 대학에서 우주항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는 무인모빌리티 시스템으로 석박사를 최우수로 졸업했다. 덕분에 항공회사에 특채로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다 최근 UAM 1위 업체로 스카웃되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내가 이직하는 UAM 회사는 국내 기업으로 UAM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다. 20년 전만 해도 우버 등 미국회사들이 UAM 기술개발을 시작했지만 30년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UAM이 안전성과 디자인으로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과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전세계 1위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UAM 산업도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UAM을 타고 가던 중 갑자기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응급의료 UAM이 지나가니 잠시 경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위해 양보 바랍니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사 이런 소리가 들리며 응급의료 UAM이 빠르게 지나갔다. UAM은 구급차로도 활용되며, 더욱 신속하게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

나는 서울에 직장이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분당에 거주 중이다. 승용차로 이동 하면 1시간 넘게 걸리지만, UAM을 이용하면 20분이면 도착한다. 이렇게 UAM 덕분에 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새 회사 옥상에 도착해 있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저녁, 다시 UAM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어두운 저녁 에도 관제센터에서 경로를 철저히 관리해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관제센터가 나를 감시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처럼 느껴진다.

퇴근 길에 UAM안에서 나는 곧 있을 가족 여행을 계획하며 정보를 찾고 있다. 다음 달에 부모님, 동생과 함께 UAM으로 부산에 가기로 했다. 내가 예약해둔 4인용 UAM 덕분에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탈 수 있다. 예전에는 1~2인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대형 UAM도 출시되어 가족 단위 여행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예전에는 1회 충전으로 하면 30여분 정도 밖에 가지 못했다고 하지만 요즘은 충전 한 번으로 5시간을 주행할 수 있어 부산까지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분당에서 바로 부산을 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잠시 멈출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최근에 개장한 대전 UAM 터미널이다. UAM이 대중화되고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공중에 터미널이 생겼다. 이곳에서는 충전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전망대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여행을 계획하다 보니 어느새 집 근처 빌딩옥상에 도착해있다.

2050년 10월 30일, 이렇게 나의 슬기로운 UAM 생활은 마무리되었다.

넓고 넓은 푸른 하늘을
새처럼 자유롭게 나는
비행기

새하얀 구름을
가로지르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

하늘을 휘젓고 날아가는
자유로운 새

다양한 곳으로 날아가는
이새는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인도한다.

비행기 안에서 내 마음은

초등부 장려상
시/ 차정우

“탑승하세요”

두근두근 비행기에 오른다

내 감정들은 난리가 났다

설렘이 감정들을 깨웠다

분노는 잠이 깨서 화가 났다

두려움은 비행기가 무섭다

차분은 감정들을 진정시킨다

비행기가 하늘에 오르자

기쁨이가 날뛰기 시작했다

모든 감정들이 조용해졌다

모든 감정들이 기쁨이에게 졌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설렘과 기쁨이만 떠돌고 있다

신나는 비행기

초등부 장려상
시/ 최우진

비행기는 신난다.

사람들은 얌전히 앉아 있지만

으아아악!

소리치고 싶은 나대신

우우우웅

신나는 소리가 난다.

비행기는 즐겁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지만

룰루랄라!

노래하고 싶은 나대신

드르르르

즐거운 소리가 난다.

비행기에서 보내는 러브레터

초등부 장려상
시/ 현진주

어렸을 때 내꿈이 뭐였는지 알아?
바로 하늘을 나는 거였어
나는 항상 새가 되어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상상을 했어

하지만 그 꿈은 내가 잠을 잘 때만 이루어졌지
그래서 나는 그 꿈을 마음에만 담아둔 채 살았어

어느 날은 우리 가족끼리 같이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지
작은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대단했어

옆으로 동실동실 떠다니는 구름들
한눈에 보이지도 않는 끝없는 바다
나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어

나의 꿈을 이루어 줘서 고마워

발행일 2024년 10월 30일
펴낸곳 한국항공협회 www.airtransport.or.kr
Tel. 02. 2669. 8700 Fax. 02. 2669. 5590

주최/주관 한국항공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 한국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 제주항공 / 진에어 / 티웨이항공 / 한국문인협회

